

# 檀國大學校 日本研究所

第23回 學術심포지엄

日本都市文化의 再考－ 歷史・都市空間・文化形成



日時：2008年 5月 30日(金) 13:30 - 18:00

場所：檀國大學校 석주선 기념박물관 컨벤션홀

主催：檀國大學校 日本研究所



檀國大學校 日本研究所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Dankook University

제 23회 檀國大學校 日本研究所 學術심포지엄

司會 : 조혜숙(檀國大 日本研究所 責任研究員)

13:30~13:50 접수 및 등록

13:50~14:00 개회사 (정 형 단국대 일본연구소장)

◆ 기획주제: 〈 日本都市文化의 再考— 歷史·都市空間·文化形成 〉

- 14:00~14:30 일본지방도시의 위상변화와 도시축제 1  
- 근현대 이바라키현(茨城県) 이시오카시(石岡市)를 중심으로-  
- 김현정 (筑波大 특별연구원)  
지정토론 - 조규현 (숭실대 강사)
- 14:30~15:00 근현대 일본의 와카모노야도(若者宿)와 포크롤리즘 24  
- 宮前耕史 (계명대 교수)  
지정토론 - 진필수 (서울여대 강사)
- 15:00~15:20 휴식
- 15:20~15:50 고대일본의 아소비(遊び)문화와 도시 36  
- 류정선 (인하공전 교수)  
지정토론 - 김경희 (동양공전 교수)
- 15:50~16:20 일본의 중·근세도시문화와 책의 유통 45  
- 松本眞輔(경희대 교수)  
지정토론 - 이시준 (숭실대 교수)
- 16:20~16:50 일제강점기 한국의 신문에 나타난 京都 表象 53  
- 「東亞」 「朝鮮」의 문화(문학) 기사를 중심으로 -  
- 정형 (단국대 교수)  
지정토론 - 김유천 (상명대 교수)
- 17:00~18:00 종합토론 73  
사회 - 최광준(신라대 교수)  
토론 - 김현정, 조규현, 宮前耕史, 진필수, 松本眞輔,  
이시준, 류정선, 김경희, 정형, 김유천

Reception



## 일본지방도시의 위상변화와 도시축제

- 근현대 이바라키현(茨城県) 이시오카시(石岡市)를 중심으로-

- 김현정(筑波大 특별연구원)

지정토론 - 조규현(숭실대 강사)

## 일본지방도시의 위상변화와 도시축제

—근현대 이바라키현(茨城県) 이시오카시(石岡市)를 중심으로—

김 현 정(筑波大 특별연구원)

### 〈목 차〉

- I. 서론
- II. 근대 이전의 이시오카—촌락과 도시의 이중구조—
- III. 이시오카의 제1차 사회변동기—전통지역산업의 발전과 도시축제의 탄생—
- IV. 이시오카의 제2차 사회변동기—교외화의 진전과 도시축제의 변용—
- V. 결론

## I. 서론

이 글은 일본 지방도시의 위상 변화를 근대 전후 사회변동의 전개 및 결과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함께 고려되는 것은 사회변동의 진행에 따른 일본 도시축제의 변천과 발전 및 그 함의이다.

기어츠(Geertz, Clifford)가 이미 지적하였듯이 인문사회과학 영역의 고립 · 배타적 분업체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sup>1)</sup> 이것은 일본 도시 및 도시축제 연구에 관해서도 예외 없이 지적할 수 있는 특징이다. 다시 말해 도시 연구는 사회학이, 축제 연구는 민속학 · 인류학이 주로 담당 · 주도했다는 것이다. 한국에 한정하여 일본 도시사회 연구로서 가장 주목할 만한 최근의 성과로는 『일본의 도시사회』<sup>2)</sup>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일본에서 가장 선진적인 자치단체로 알려”<sup>3)</sup>진가와사키(川崎)를 대상으로 지역조직, 사회교육,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7인의 사회학자와 2인의 인류학자가 공동으로 현지조사 및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특히 초나이카이(町内会)의 구조, 기능,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일본사회의 기초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열쇠”<sup>4)</sup>를 발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초나이카이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이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도시사회에 대한 이러한 조직론적 연구는 문화 영역에 대한 관심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즉, 사회와 문화라는 상호불가결한 두 영역 사이의 연결고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1) C. 기어츠 지음, 梶原影昭 · 小泉順二 · 山下晋司 · 山下淑美 역 『ローカル・フレッジ』(東京: 岩波書店, 1991), pp.2, 3.

2) 이시계 외 8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2001).

3) 같은 책 p.viii.

4) 같은 책 p.x x 쪽.

일본 도시축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일본 도시축제 연구는 민속학이 주도한 전통적인 ‘마쓰리(祭り)’<sup>5)</sup>론, 즉 마쓰리의 발생 및 원초적인 형태와 의미에 대한 역사론적 검토, 제사집단에 대한 조직론적 분석, 상징론적 고찰 등에서 발전하였다. 다만 전통적인 촌락 마쓰리의 변화상, 즉 현대화된 마쓰리의 변용론 또는 산업화된 도시공간에서 탄생한 새로운 마쓰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연구목적이나 내용면에서 기존의 것과 크게 바뀐 것은 없었다. 다시 말해 도시공간-지역사회-와의 관계구도 안에서 도시축제의 변천과 그 함의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다. 1960년대 중반이라는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와 시기적으로 거의 동일 선상에서 시작된 도시축제 연구는 장기간의 필드워크에 기초하여 축제조직, 내용, 과정에 대한 주도 면밀한 관찰로 얻어낸 자료를 검토한 모노그래프 작성에 귀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여기서는 주로 현대도시사회의 행정적 측면-관광협회, 혹은 전통적인 제사집단과 대비되는 새로운 주민들의 집단적 대두와 축제에의 참여라는 이항적 구도가 논의되었다. 즉, ‘불균등이분,’ ‘내부구조 · 외부구조’ 라는 개념을 구사하면서 ‘친화’와 ‘대항,’ ‘결집’과 ‘대립,’ ‘포섭’과 ‘배제’라는 관계성을 도출하였던 것이다.<sup>6)</sup>

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적인 논의와는 다른 새로운 연구들도 차츰 등장, 발전하였다.<sup>7)</sup> 현대도시사회의 복잡성, 유동성, 이질성 등의 특징과 도시축제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바로 그것이었다. 여기서 도시축제는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생활, 의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효한 연구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적극적으로 평가되었다.

일본 도시축제에 대한 한국에서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축제와의 비교론적 시점에서 대도시에서 창조된 ‘大銀座마쓰리’를 검토하거나,<sup>8)</sup> 지연집단에 의해 진행되는 ‘城端曳山마쓰리’와 ‘秩父마쓰리’를 통해 일본 사회조직의 특징을 찾거나,<sup>9)</sup> 민중의 욕구 및 ‘神仏習合,’ ‘神仏分離’ 정책 속에서 ‘기온마쓰리(祇園祭)’를 설명하는 연구<sup>10)</sup> 등은 있었지만,<sup>11)</sup> 일본 도시-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축제를 논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김양주의 일본 도시축제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일본사회의 변화에 따른 문화 동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일본 사회문화를 대상으로 한 민족지학적 연구를 수행한 김양주 연구의 특징은 ‘하치만상(ハチマンサン)’ 등과 같은 전통적인 마쓰리<sup>12)</sup>와 ‘요사코이마쓰리(よさこい祭り)’라는 현대적인 마쓰리<sup>13)</sup>를 비교하여 전통적인 것의 쇠퇴와 현대적인 것의 대두,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접목 및 융합이라는 변화를 지적하였다는데 있다. 즉, 일본의 다양한 축제문화를 지역사회의 문맥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존의 일본 사회 및 문화 연구의 고립적 경향을 지양하고 두 영역 사이의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한국에서의 일본 도시축제 연구는 최근 10여 년 사이의 관광 붐을 반영하듯 일본 투어리즘과의 연관 속에서 논해지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상업적 성

5) 마쓰리란, “신령을 받들어 공헌하여 그를 위로 혹은 즐겁게 하는 행위”(民俗学研究所, 1978(1951), p.539)라고 간략히 정의할 수 있다. 자세한 개념설명에 대해서는 줄고(2005, pp.45, 46)를 참조할 것. 일본어의 마쓰리는 ‘의례(ritual)’와 ‘축제(festival)’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는 축제를 ‘祭礼’로 표현하였지만, 발표자는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용어인 ‘축제’로 바꾸어 사용하기로 한다(柳田国男, 1978).

6) 柳川啓一(1972), 藪田稔(1966 · 1969), 松平誠(1978 · 1979), 中村孚美(1971), 阿南透(1983) 등.

7) 米山俊直(1986), 松平誠(1990), 和崎春日(1996) 등. 발표자는 이러한 연구들, 특히 와자키(和崎春日) 연구시점의 유효성을 지적하고 도시축제를 현대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면서 그 조직구조와 의의에 대해 논한 바 있다(줄고, 2005).

8) 최인학, 1996.

9) 김근오, 1999.

10) 김후련, 2001.

11) 논자에 따라 ‘祭り’를 ‘마쓰리’로 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어 표기법에 따르면 ‘마쓰리’가 올바르다.

12) 김양주, 1989 · 1995.

13) 김양주, 1996.

격이 강한 이벤트성 축제가 아닌 신사의례와 관련되는 것일 경우, 투어리즘 등의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에 앞서 그 전승·연행 지역에 대한 문맥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신사’라는 일본 특유의 종교·사회·문화시설과 그 의례의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폭을 넓혀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쿄(東京), 교토(京都) 등 일본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사회 연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지방도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문맥적 이해의 가능성을 한층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검토대상지역인 이시오카시(石岡市)는 도쿄 북동쪽 이바라키현(茨城県)의 중심부, 현청 소재지인 미토(水戸)와 미토의 행정·경제 기능을 분담하는 쓰치우라(土浦) 사이에 위치하며 총인구 약 8만 4천명 규모의 지방 소도시이다. 현재 이시오카를 공식적으로 표상하는 수식은 “古都 1300년의 역사와 郷의 문화와 만날 수 있는 고장”<sup>14)</sup>이다. 그리고 이 수식을 실증하는 이시오카 역사와 문화의 중심에 ‘히타치노쿠니 소샤궁’ (常陸国総社宮 이하, ‘소샤궁’)이라는 신사와 ‘히타치노쿠니 소샤궁 대제’ (常陸国総社宮大祭 이하, ‘소샤궁 대제’)라는 신사축제가 있다. 소샤궁 대제는 ‘이시오카 축제’ (石岡のおまつり)라고도 지칭될 만큼 이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오랜 역사와 문화’<sup>15)</sup>의 도시 이시오카의 위상 변화를 사회변동을 시야에 넣어 검토함으로써 소샤궁 및 소샤궁 대제의 변천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II. 근대 이전의 이시오카—촌락과 도시의 이중구조—

일본 중앙집권국가 형성의 출발점이 된 大化改新(645년)을 계기로 중국의 제도를 수용한 행정제도의 대개혁이 이루어졌다. 즉, 京·畿·内·国·郡·里를 정하고 각 지방관을 임명하였는데, 이시오카는 당시 히타치노쿠니(常陸国)에 속하였으며 그 정치행정의 중심기구인 국부(国府)가 현 이시오카에 설치되었다.<sup>16)</sup> 그리고 국부의 종교적 중심성을 상징하는 소샤궁과 고쿠분사(国分寺)<sup>17)</sup>가 각각 건립되었다. 소샤궁은 ‘소샤’ (総社)라고도 하는데, 지방관 신사참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니(国) 내 신사의 제신들을 한 곳에 모신 신사를 뜻한다. 이렇게 고대에서 중세에 걸쳐 이시오카는 국부의 고장, 즉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차츰 국부 기능이 약화되고 미토 성을 함락시킨 사타케(佐竹)씨의 공격으로 1590년 이시오카 일대가 잿더미로 변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1623년(皆川氏 지배)부터 1645년(幕府代官松下八太夫 지배), 1647년(川越藩主松平伊豆守信綱·松平伊勢守信定 지배)까지 3번의 정권교체를 거쳐 1700년에 미토 번주 도쿠가와 요리후사(徳川頼房)의 五男인 마쓰다이라 요리타카(松平頼隆)가 집권하면서 진야(陣屋)<sup>18)</sup> 지역이 되었다.

근세 이시오카의 가장 큰 특징은 ‘촌락과 도시의 이중구조’이다.<sup>19)</sup> 행정상으로는 ‘平村’이라고 하였는데, 즉 ‘촌락’으로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 구획(一筆)의 정면 폭이 3 또는 6간(間)<sup>20)</sup>, 안 폭이 20~30간 정도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규격화된 商家= ‘마치야’ (町家) 지역이

14) <http://city.ishioka.lg.jp/index.htm>.

15) 줄고(2007)를 참조할 것.

16) 국부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1973년의 발굴조사에 의해 현 이시오카 초등학교 교정 부근이 가장 유력한 곳으로 판명되었다.

17) 오곡풍요·국가진호를 기원해 고쿠분니사(国分尼寺)와 함께 각 구니에 건립된 절.

18) ‘진야’란 성곽이 없는 작은 번 다이묘(大名)의 거처인데, 요리타카는 항상 에도(江戸)에 머무르고 이시오카의 거처인 진야에는 가끔 돌아오곤 하였다.

19) 다카하시 등은 이러한 이중구조로 인해 이시오카 도시 내부에서 촌락적인 사회생활조직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高橋伸夫 외 4인, 1994, p.2).

1625년경에는 이미 미토가도(水戸街道) 위에 형성되었다는 사실에서 도시적 특성이 존재하였음을 추찰할 수 있다.<sup>21)</sup> 당시 이시오카는 네 구미(組)—香丸組 · 中町組 · 守木組 · 富田組—로 나누어져 각 구미에는 ‘쇼야’ (庄屋)<sup>22)</sup>가 임명되어 연공징수 등의 행정적 사무를 담당하였다. 즉, 이시오카에는 4명의 쇼야가 존재했으며 촌락으로 다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그 규모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쇼야는 이시오카의 유력 상인들이 임명되었고 단기간에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4명의 쇼야 위에 2명의 ‘마치도시요리’ (町年寄)가 있었는데, 특히 오랫동안 마치도시요리로서 권력을 쥐었던 것이 야구치가(谷口家)이다.

야구치가가 새로 부임한 영주인 요리타카에게 제출한 「由緒書」에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①야구치가를 중심으로 이시오카 상인들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것, ②당시 정월의 시제(市祭)가 야구치 저택에서 거행되었다는 것, ③6월 14일에 열리는 이시오카의 우지가미(氏神)<sup>23)</sup> ‘텐노샤’ (天王社)의 제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sup>24)</sup>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도 근세 이시오카가 도시로서의 특징을 내포한 특수한 지역사회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大商이었던 야구치가의 특징을 통해 경제적 부와 정치적 영향력이 종교 · 문화적 실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시오카는 지리적으로 광대한 간토(關東)평야 상에 위치하며 그 주위로 가스미가우라(霞ヶ浦)의 양질의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벼농사 등 농경에 매우 적합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이시오카 내부에도 논 수확량이 2,319석(石), 밭이 2,720석 규모의 농경지가 있으며 그 주변으로도 방대한 농촌지대가 펼쳐진다.<sup>25)</sup> 그러나 미토가도 상에 위치한 슈쿠바(宿場)<sup>26)</sup> 마을로서 가스미가우라의 수운과 함께 교통의 중심지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주변의 농산물이 집적, 유통되는 상권을 형성하였음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렇게 주변 농촌지역 상품경제의 중심지로 변성하게 된 근세 이시오카는 쌀, 보리 등의 농산물과 양질의 물을 이용한 청주 · 간장 제조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근세 중기 이후의 이시오카 양조업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시오카를 대표하는 중심적인 전통지역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상기한 「由緒書」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근세 이시오카의 우지가미가 ‘텐노샤,’ 즉 ‘야사카 신사’ (八坂神社)였다는 점이다. 현재 이시오카의 우지가미는 소샤궁이며 여기의 신사축제인 소샤궁 대제가 이시오카를 상징하는 축제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주의를 환기시키는 부분이다.

텐노샤의 제례인 ‘기온마쓰리’ (祇園祭)는 근세시대의 또 다른 신사제례인 ‘아타고 마쓰리’ (愛宕祭)와 함께 이시오카 네 구미 중 세 구미—香丸組 · 中町組 · 守木組—가 교대로 유지, 운영하였다. 이 세 구미는 미토가도 상에 위치한 대표적인 마치야 지역으로 당시 중심적인 상권을 형성하였었다. 근세 기온마쓰리의 내용을 1784년 「常府古跡案内しるべ」를 통해 살펴보면 매년 6월 13일에 ‘미코시’ (神輿)<sup>27)</sup>가 다카하마로 출어했다가 ‘오카리아’ (御仮屋)에서 일박, 다음 날인 14일에

20) 길이의 단위. 1간은 6척, 약 1.818미터에 해당.

21) 1625년의 토지측량(檢地)에 대해서는 『石岡市史 下巻(通史編)』(石岡市史編纂委員会 편, 1985, pp.476~479, 701~704) 참조.

22) 촌장에 해당되는 관직.

23) ‘우지가미’란 일정한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우지가미를 모신 ‘신사’를 ‘우지가미’라고 줄여 표현하기도 한다. 우지가미에게 제사를 올리고 그 신사를 돌보는 지역주민들을 ‘우지코’ (氏子)라고 한다. ‘鎭守’ 또는 ‘産土神’라고도 한다.

24) “御当地市之儀 私先祖其外古来之者共出合候得テ立始申候,” “正月十三日市祭私所ニテ支配仕候,” “御当地天王之儀 村中之氏神ニ御座候故 六月十四日祭礼ニ御座候 其節社内せまく御座候故 私屋敷ニ宮ヲ立置申候.” 『石岡の地誌』(石岡市教育委員会, 1986), pp.140, 141.

25) 근세 이시오카의 논밭 면적에 대해서는 주21 참조.

26) 주요 가도 위에 발달한 숙박 · 교통 · 통신의 중심지. 슈쿠에키(宿駅)라고도 함.

27) ‘미코시’란 신체(神体)나 신의 분령을 모셔 태우는 가마를 뜻한다.

텐노샤로 돌아오는데 이 날 이시오카 시내에서는 다양한 풍물들이 선보여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는 것이다.<sup>28)</sup> 여기에서 언급된 다양한 풍물들의 내용은 明和기(1764~1772) 것으로 추정되는 ‘御用留断簡’에 기재된 ‘ぎおん御祭礼之次第’<sup>29)</sup>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1번부터 11번까지, 즉 11개의 풍물이 각각의 근린집단인 ‘町’를 단위로 참가하였다. 여기서 주의를 끄는 것은 이 11곳의 町 모두가 현재 이시오카 시내에 똑같은 이름으로 현존하고 있으며, 도미타초(富田町)의 ‘사사라’(ささら)라는 사자춤의 일종인 민속예능은 현재 소샤궁 대제에 참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당시 소샤궁과 소샤궁 대제는 어떻게 전승되고 있었을까?

근세시대 소샤궁은 과거 국부지역 일대의 총괄적 우지가미로 인식되었다.<sup>30)</sup> 平村 이시오카는 국부지역 일대의 한 영역으로 속해있었고 이곳의 본래 우지가미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텐노샤였던 것이다. 당시 소샤궁 대제는 9월 9일에 열렸는데, 지금과는 달리 신사의례 중심의 엄숙한 행사였던 것으로 추측된다.<sup>31)</sup> 다만 유일한 볼거리, 즉 풍물로서 소샤궁 제신에게 봉납하던 스모(相撲) 행사가 지역주민들의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스모 행사를 치르기에는 신사 경내가 비좁았기 때문에 근처 강가의 공터에서 열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참배객들이 그곳으로 이동하여 쓸쓸해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①고대에서 중세에 걸쳐 현 이시오카에 국부가 설치되어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으나, 근세에 들어서 국부 기능의 상실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위상, 즉 ②미토가도의 슈쿠바 및 수운을 활용한 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주변 농촌지역 상품경제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다는 점, 동시에 ③광대한 평야지대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조건에 기인하는 농촌으로서의 측면도 지녔기 때문에 도시성과 촌락성을 함께 내포하는 이중적 공간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⑤근세 이시오카의 우지가미는 텐노샤였으며 ⑥지금의 우지가미인 소샤궁은 의례 중심의 제례를 거행하였다. 당시 텐노샤의 기온마쓰리는 ⑦근세 이시오카의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풍물들이 등장하는 화려한 축제적 성격을 띠며 전개되었다.

### Ⅲ. 이시오카의 제1차 사회변동기—전통지역산업의 발전과 도시축제의 탄생—

메이지(明治) 시대(1868~1912) 이후의 이시오카는 ‘근대화,’ ‘도시화,’ ‘산업화’라는 세 키워드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다. 이것은 비단 이시오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모든 시정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함께 경험한 사회변동이다. 이하에서는 지방도시 이시오카가 겪은 근대 이후의 위상 변화를 위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본격적인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각의 키워드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도록 한다. 먼저 ‘근대화’(modernization)란 일반적으로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사회로의 이행 과정”<sup>32)</sup>을 뜻한다. 일본의 경우, 1945년 이전의 천황제 절대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의 근대화와 서구화·민주화·산업화로서의 종전 이후의 근대화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염두에 두면서 ‘전체사회로서의 국민사회·거대한 국내시장으로 모든 지역사회가 재편되어가는 과정’으로 근대화를 이해한다.<sup>33)</sup> ‘도시화’(urbanization)란 ‘도시’(city), 즉 ‘이

28) “毎年六月、祭あり。…十三日に神輿高浜へ出御、…卅日御歸り守木町香取明神を御旅所とす。是を御飯屋といふ。翌十四日神輿本社へ入御、卅日町中より思い思いに作り物を出し、鳴物を揃え、警固の人人は羽織袴を着し御供す。是を祇園祭と言う。”山口仙栄 「常府古跡案内しるべ」(『石岡市史 中巻Ⅱ』, 1983, pp.770, 771).

29) 『祭礼の伝承』(櫻井明, 1997), pp.405, 406.

30) 上掲書 pp.393, 394.

31) 근세시대 소샤궁 대제에 대해서는 山口仙栄 「総社神宮祭礼評議」(1791)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32) 『社会学辞典』(三田宗介 외 2인 편, 1988), p.223.

질적이고 다양한 사람들의 응집지'이며 '제3차 산업 종사자가 우위'를 점하고 '국지적·배타적인 여러 내부영역을 포함하면서 타 영역 및 집단 사이를 매개하는 중심적인 외부'로 그 사회형태가 변해가는 프로세스를 뜻한다.<sup>34)</sup> 마지막으로 '산업화'(industrialization)란 "산업구조가 전통적인 농업생산에서 근대적인 공업생산으로 중심이 이동되는 현상"<sup>35)</sup>으로 규정한다.

### 1. 양조업의 발전과 근대산업의 발흥—근대적 자본의 축적—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리적 조건에 기인하는 풍부한 농산물과 양질의 물을 이용한 청주·간장의 양조업은 메이지 시대로 들어와 이시오카의 근대적 자본을 축적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시오카 양조업의 역사는 근세 중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청주의 경우 宝曆기(1751~1764)에서 明和기(1764~1772) 사이, 간장의 경우 元禄기(1688~1704) 이전일 것으로 추정된다.<sup>36)</sup> 메이지 시대 양조업의 눈부신 발전에 대해 1901년 히라노 마쓰지로(平野松次郎)가 지은 『石岡繁昌記』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풍토가 제반 제조업에 적합하고 수질 양호하여 청주 간장의 양조 향기 높고... 뿐만 아니라 교통기관 완비되어 이 산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니 이 지역의 번성함 가져와 또한 좋은 일이다."<sup>37)</sup> 그리고 1907년 5월 26일자 향토신문 『いはらき』에는 이시오카의 간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이시오카의 간장인가, 간장의 이시오카인가? 어쨌든 이시오카의 간장하면 지바(千葉)의 노다(野田), 조시(銚子)와 함께 간토 지역에서는 명성이 높다. 다만 노다, 조시는 광고술에 뛰어난 만큼 때론 이시오카를 능가할 것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시오카 간장의 명예에 금이 가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sup>38)</sup> 이처럼 메이지 이후 이시오카에 관한 다수의 지지(地誌)류, 신문기사 등에서는 '이시오카' 하면 '청주,' '간장'을 손꼽아 기록할 정도였다. 그리고 이것이 메이지 시대 이시오카를 '양조의 고장'으로 널리 알리는데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표1) 1884년 이시오카 중요 수입·수출물<sup>39)</sup>

품명	생산액 (엔)	수출지역	수입지역
쌀·잡곡	133,435	東京·流山·佐原·銚子·水戸·土浦	石岡 근방 53개 마을
청주	47,556	상동·石岡 근방	—
잡화·방물	46,253	水戸·笠間·石岡 근방	東京
포목	24,706	石岡 근방	東京·西京·上州
사탕류	15,170	水戸·기타 石岡 근방	東京
목재	11,596	東京·佐原·銚子	笠間·岩間·石岡 근방
야채류·건물	11,205	笠間·石岡 근방	東京·石岡 근방
간장	25,033	水戸·笠間·石岡 근방	東京

33) 『都市の比較社会学』(若林幹夫, 2000), pp.133~170.

34) 三田宗介 외 2인 편 앞의 책 및 若林幹夫 같은 책.

35) 三田宗介 외 2인 편 앞의 책 p.340.

36) 石岡市史編纂委員会 편 앞의 책(1985), pp.1061·1066.

37) “風土の諸般製造業に好適すると水質良好にして清酒醬油の醸造芳醇なると…加ふるに交通の機關完備して益々斯業の發達を促かすあり、當町の殷賑を來たす亦宜ならずや。”(p.788).

38) “石岡の醬油か醬油の石岡か兎に角石岡の醬油といへば千葉野田、銚子と相並んで関東に名声譽を恣まにして居る、只彼の野田や銚子は其広告術に巧みなる丈け時に或は石岡を凌駕せんとするの傾むきがある、併し之れが為めに石岡醬油の名を傷つくといふことは出来ぬ。”

39) 1884년 『茨城県勸業年報』4(『石岡市史 中卷II』(1983)에 수록)에서 작성. 생산액 1만 엔 이상만 대상으로 하였다.

(표2) 1909년 이시오카의 중요물산 생산고<sup>40)</sup>

품명	생산량	생산액 (엔)
엿쌀	9,180(石)	100,980
보리	5,400	24,300
밀	2,340	18,720
대두	2,380	21,420
기계 실	4,050(貫)	266,800
얼레 실	540	23,760
봄누에	630(石)	22,050
가을누에	480	17,280
간장	6,080	139,850
청주	8,308	456,940
된장	90,000(貫)	27,000
목재	5,900(尺貫)	14,750
소나무 장작	900,000(개)	13,500

(표1)과 (표2)는 메이지 중 · 후기 이시오카의 중요물산을 생산고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표1)을 보면, 전체 생산액 314,954엔 중 청주 · 간장 생산액인 72,589엔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3%이다. 그러나 약 25년 후인 1909년에는 전체 생산액 1,147,350엔 중 청주 · 간장 생산액은 596,790엔으로 전체의 약 52%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2). 즉, 메이지 중기에는 중요물산의 약 4분의 1, 후기에는 약 2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산업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시오카 양조업체들의 특징은 근세시대 미곡상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즉, 주변 농촌지역에서 집적되는 농산물의 도소매업에서 그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업으로의 전환을 꾀한 영세 양조가라는 것이다. 근대, 즉 메이지 중반에서 후반으로 양조업의 생산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실제 양조가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즉, 생산고의 증가는 생산기술의 발전과 특정 양조업체의 성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결국에는 이시오카 양조업의 쇠퇴를 초래하게 된다.

메이지 후반을 정점으로 이시오카 양조업의 쇠퇴를 가져온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전통지역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시오카 간장의 경우, 지금도 간장의 본고장으로 이름 높은 지바현의 조시와 메이지 중기까지는 경쟁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조시의 경우, 1905년 500石 미만의 양조업체는 사라지고 5,000~10,000石의 대형 양조업체가 전체 7업체 중 3곳이나 차지하기에 이른다. 5,000~10,000石이라는 수치는 1909년 이시오카의 간장 총 생산량(6,080石)에 상당하는 크기이다(표2). 같은 시기 조시의 간장 총 생산량은 35,607石을 기록하여 이시오카의 약 6배에 이르렀다.<sup>41)</sup> 이에 대한 원인으로 주로 지적된 것이 이시오카 상인들의 퇴영적 · 현상유지적 안이한 태도이다. 예를 들어 1923년 이바라키현 내 간장 양조업에 대해 조사한 조시의 대형 간장 제조업체인 하마구치 상점은 이시오카의 간장 양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신진기업의 기풍이 부족하고 품질 개선, 판로 확장 등에 뜻을 품은 사람이 적어 ... 판매가 늘기만 하면 지금 당장 거액의 비용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개선할 필요는 없다고 여기는 듯하며 ... 이곳의 이 산업발전은 (우리가) 목표로 할 정도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음.”<sup>42)</sup>

40) 松倉鶴雄 『石岡誌』, 1910(『石岡の地誌』(1986)에 수록)에서 작성. 생산액 1만 엔 이상만 대상으로 하였다.

41) 『銚子醤油醸造業の経営動向』(谷本雅之, 1990), pp.248, 249.

42) 『茨城県醤油醸造界概況』(石岡市史編纂委員会 편 앞의 책(1985), pp.1066).

둘째는 근세 이후 양조업의 발전으로 축적한 막대한 자본을 양조업이 아닌 다른 근대산업에 투입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당시 이시오카를 대표하는 양조업가인 무라타 소우에몬(村田宗右衛門)은 메이지 후기에 양조업에서 손을 떼고 이시오카 우체국, 증기기관을 이용한 대형 정미소, 이시오카 은행 등을 설립하였다. 또 유명 양조업가인 가네코 겐헤에(金子源兵衛)도 이시오카 은행과 이시오카 전기회사 설립에 거대 자본을 투자하였다. 그리고 하마 헤우에몬(浜兵右衛門) 또한 은행, 전기회사뿐 아니라 이시오카 신용금고, 가시마 참궁(鹿島參宮) 철도주식회사 등을 일으키는데 적극 참여하였다. 이처럼 당시 이시오카를 대표하던 양조업가들은 축적된 자본을 양조업 자체의 발전보다도 근대산업의 발흥을 위하여 적극 투입하였고, 이로 인해 전통지역산업인 양조업은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달리 해석한다면 양조업의 약화가 이시오카의 근대화 · 산업화를 보다 촉진시켰다고도 볼 수 있겠다.

## 2. 소샤궁 대체의 탄생—근대적 자본과 소샤궁의 현사 승격—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근대 메이지 시대에 들어선 이시오카는 전통지역산업의 눈부신 성장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부를 축적하였고, 이것은 우정사업, 은행업, 전기공급업, 철도업 등 근대산업 발흥의 밑거름이 되었다. 즉, 메이지 후기를 정점으로 한 이시오카 변영의 중심에는 대표적 전통지역산업인 양조업을 경영하는 전통적인 토착상인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바로 이들을 중심으로 이시오카의 신사체계 및 축제양상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메이지 신정부가 단행한 일본 전국의 신사를 대상으로 한 재편 · 통제 정책의 영향은 이시오카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근세 이시오카의 우지가미는 텐노샤였으며 그 신사의 제례인 기온마쓰리가 우지가미에 대한 제사의례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이 텐노샤가 메이지 시대에는 ‘무격사’(無格社)로 격하되고 소샤궁이 ‘현사’(県社)로 격상되면서 이시오카의 민간신앙 체계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sup>43)</sup>

정확한 연대는 현재까지의 문헌자료만으로는 판명할 수 없으나, 메이지 20년(1887)을 전후로 하여 근세 텐노샤의 기온마쓰리를 유지, 운영하던 이시오카 네 구미가 4년에 1번씩 교대로 소샤궁 대체를 운영하게 되었다.<sup>44)</sup> 그리고 이것은 소샤궁 대체가 근세시대의 그것과는 내용면에서 극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 즉, ‘町’라는 근린집단이 보유한 풍류물들이 의례중심이던 엄숙한 소샤궁 대체에 참가하게 되어 보다 축제적인 분위기를 띠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개 지방 소도시에서 일 년에 세 번씩이나 각 근린집단이 화려한 풍류물들을 신사제례에 참여시킬 정도의 여유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어느 한 대상으로 관심과 열의가 집중되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위축·형식화·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향토사가 오야마 다카미쓰(大山隆光)의 지적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준다. 오야마에 의하면 “6월 14일 기온마쓰리에 이어 7월 2일 아타고마쓰리가 열렸었는데, 주민들의 부담이 크고 계속된 검약령에 의해 자숙을 강요받았다. 막말(幕末)기에는 두 제례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세 구미가 연번(年番)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그래도 부담이 컸기 때문에 1852년에는 중심도로의 다섯 町가 5년에 1번씩 연번제로 운영하였다.”<sup>45)</sup>고 한다. 이렇게 연이은 신사제례의 운영은 이시오카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인식되었다.

43) 1871년 5월 14일에 포고된 「官社以下定額及神官職員規則等」는 官 · 国幣社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밑에 府藩県社, 郷社, 産土社를 두었다. ‘무격사’는 이러한 신사제사의 체계화 정책에서 제외되어 통폐합의 대상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安丸良夫 『神々の明治維新』(東京: 岩波書店, 1981(1979)) 참조. 무격사로 취급된 텐노샤는 1934년에 소샤궁에 합사되었다.

44) 메이지 초기에 富田組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45) 「土橋町の獅子頭と祭礼雜記」, 石岡郷土史研究会 편 『石岡郷土誌』 17, 1994, pp.4, 5.

그러나 메이지 시대 이후 수많은 지역 신사들을 통합하는 국가정책은 그들의 물리적 · 심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즉, 신사를 역사적 정통성과 국가이념과의 연관성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우열을 매긴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소샤궁이 현사로 승격된 것이 당시 메이지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1896년 소샤궁 구지(宮司)를 위시하여 하마, 무라타, 가네코 등의 유력상인들이 청원인이 되어 「県社昇格願」를 이바리카현 지사 앞으로 제출하였다. 이 청원서에는 유서 깊은 소샤궁을 향사(郷社)로 지정한 것은 부당한 일이며 이에 대해 이시오카의 2천 세대에 이르는 우지코(氏子)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음이 강조되었다.<sup>46)</sup> 그리고 소샤궁은 1900년 8월에 현사로 승격된 것이다. 이 현사 승격을 기념하여 종래의 제례제도가 재검토되어 1902년 8월에는 현재와 같은 새로운 ‘연번제도’ (年番制度)가 확립되기에 이른다. 이 제도는 중심지가치에 위치하는 16개의 町<sup>47)</sup>가 1년에 한 번씩 순차적으로 ‘연번 조’ (年番町)가 되어 소샤궁 대제를 준비, 실시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897년에 봉납된 소샤궁의 미코시에 신령을 태워 연번 조 안에 설치한 임시거처로서의 오카리아에 모시고 가서 일박한 다음 미코시를 다시 소샤궁으로 모셔온다는 새로운 축제구조가 완성되었다. 이 형태는 이미 서술한 근세 이시오카의 기온마쓰리와 기본적으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미코시의 행차(渡御) 및 오카리아에서의 일박이라는 축제구조의 도입이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소샤궁 대제의 탄생에 기존의 신사제례, 즉 기온마쓰리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근린집단인 町가 중심이 됨에 따라 각각의 町가 보유하는 다양한 풍류물들이 소샤궁 대제에 참여하게 되었다.<sup>48)</sup>

현사 승격을 계기로 신사의례 중심이던 엄숙한 소샤궁 대제는 이시오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화려한 축제로 변화하였다. 즉, 신연번제도라는 제례조직의 극적인 변화와 근린집단 중심의 진행 구도, 미코시 · 오카리아라는 새로운 장치의 도입, 화려한 풍류물들의 참가 등으로 상징되는 소샤궁 대제의 변화는 국가정책과 지역주민들의 뜻이 어우러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지역주민들’의 뜻이 이시오카의 ‘모든’ 주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라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를 적극 주도한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양조업 등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이시오카의 자본가들이었으며, 그들에게 있어 소샤궁은 종교적 · 문화적 정통성을 부여하고 소샤궁 대제는 그들의 경제적 · 사회적 위상을 확인 · 유지 · 강화하는 문화적 장치 또는 상징으로서 기능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펙터클(spectacle)화된 소샤궁 대제는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비일상적 시공간을 제공하였으며 보다 많은 구경꾼들, 즉 관중(spectators)을 집중시켜 이시오카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46) “由来これある神社にして懼多くも聖明の御代に当り深仁厚沢至らざる所なく、興廢復古の今日に在て特り空しく郷社に沈埋致し居候義、全町氏子式千余戸の人民一同悲嘆に堪えず…” 櫻井明 앞의 글 pp.412, 413.

47) 16개의 町는 다음과 같다. 모리키(森木), 오코지(大小路), 쓰치바시(土橋), 기노지(木之地), 가네마루(金丸), 모리요코(守横), 도미타(富田), 나카노우치(仲之内), 미야시타(宮下), 아오키(靑木), 사이와이(幸), 고쿠부(國分), 나카(仲), 와카마츠(若松), 이즈미(泉), 고마루(香丸)이다.

48) 이시오카의 연번 조가 보유하는 대표적인 풍류물로는 ‘사자’ (獅子)와 ‘다시’ (山車)가 있다. 사자는 사자탈과 마차, 그리고 마차와 사자탈을 덮는 포장으로 이루어진다. 사자탈은 큰 것은 폭 60cm, 무게 20kg 이상의 목재이며, 마차는 농가의 마차를 이용하였다. 다시는 일본 신사 마쓰리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이동식 무대이다. 이시오카의 다시는 3층짜리도 있으나 2층짜리가 일반적이다. 1층 무대에서 춤과 연주-하야시(囃子)가 펼쳐지고 2층 무대에는 각 町를 상징하는 약 2m 정도의 큰 인형이 장식되어 있다. 당시 신문기사 내용 분석을 통해 소샤궁 대제에는 평균적으로 사자가 7대, 다시가 4대 정도씩 참가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 IV. 이시오카의 제2차 사회변동기—교외화의 진전과 도시축제의 변용—

##### 1. 산업화와 교외화의 진행—단핵구조에서 쌍핵구조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의 이시오카는 일본의 여타 지방자치체와 마찬가지로 급속한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지방도시로서의 중심성을 서서히 잃어가게 된다. 환언하자면 전체사회로서의 국민사회 · 거대한 국내시장 · 대도시 중심의 일원적 사회구조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근세 이후 주변 농촌지역 내 지역적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국가적 레벨의 변화와 연동되어 현저히 진행된 것이 산업화와 교외화 현상이다.

이시오카는 2005년 현재 총인구 약 8만4천명 규모의 지방도시인데, 이는 메이지 유신(1868) 이후 주변 촌락을 대상으로 한 네 차례의 합병을 거쳤기 때문이다. 1889년의 1차 합병 이래, 1953년 11월에 시행된 「정촌합병촉진법」(町村合併促進法)을 계기로 같은 해에 다카하마초(高浜町)를 합병하여 이듬해인 1954년에는 ‘시’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그 해에 다시 미무라(三村)와 세키가와무라(関川村), 두 농촌지역을 합병하여 총인구 약 3만4천의 지방 소도시로서 출발한 것이다(표3).<sup>49)</sup>

(표3) 이시오카의 총인구 추이<sup>50)</sup>

연도(년)	총인구(명)
1890	10,599
1902	13,064
1907	13,692
1912	14,330
1915	14,684
1926	16,651
1930	18,073
1940	19,257
1950	25,769
1960	34,758
1970	39,508
1980	47,829
1990	50,618
2000	52,568

이후고 1964년에는 ‘수도권시가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계기로 ‘지방산업중심도시’ 구축을 목표로 하여 JR(Japan Railway) 이시오카역 동쪽지역의 개발과 가시와바라(柏原) 공업단지 건설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여기서 주의를 끄는 것은 철공소, 제작소, 정공 등의 기계 · 금속 관련 공장이 196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sup>51)</sup> 이 같은 공업화 진행의 배경에는 “기계 · 금속 공업의 공백지대라고도 할 수 있는 도쿄 대도시권 북동 외연부”<sup>52)</sup>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조건과 근세 이래 농기구 등을 제조, 수리하는 직인-전통적인 기술자-들이 다수 존재하였다는

49) 2005년에 야사토마치(八郷町)를 네 번째로 합병하여 총인구는 8만 명을 넘게 되었다.

50) 石岡市 『統計いしおか平成16年版』(2004); 『石岡市史 下巻(通史編)』(石岡市史編纂委員会, 1985);

<http://business2.plala.or.jp/ishioka/topmenu/05toukei/05index.htm> 및

[http://www5.ocn.ne.jp/~ishioka/712kikaku/toukei/jyoujyuu/2003\\_08.htm](http://www5.ocn.ne.jp/~ishioka/712kikaku/toukei/jyoujyuu/2003_08.htm) 에서 작성.

51) 『工業化による茨城県石岡 土浦地域の開発に関する調査研究』(日本産業構造研究所, 1963), pp.192~194, 206.

52) 「石岡市における工業の発展と地域的性格—大都市圏周辺工業都市の一類型—」(小田宏信 외 3인, 1994), p.57.

사회문화적 특징이 있다.

1960년대 이후에 급속히 진행된 이시오카의 공업화-산업화-는 다음의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4) 이시오카 내 중학교 졸업생들의 취직장소<sup>53)</sup>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이시오카	32.7%	44.9%	47.2%	39.4%	63.6%	55.3%
이바라키현	8.2	5.1	2.8	11.3	1.6	11.8
도쿄	52.0	42.3	41.7	46.5	30.3	25.9
기타	7.1	7.7	8.3	2.8	4.5	7.1

(표5) 이시오카 내 중학교 졸업생들의 취직내용<sup>54)</sup>

	제조수리관계			도소매업			기타			제조수리관계 (%)	도소매업 (%)	기타 (%)
	남 (명)	여 (명)	계 (명)	남	여	계	남	여	계			
1956	54	21	75	9	20	29	12	30	42	51.4	19.9	28.7
1957	37	9	46	10	28	38	14	12	26	41.8	34.5	23.7
1958	34	11	45	11	22	33	16	30	46	36.3	26.6	37.1
1959	34	23	57	7	3	10	21	11	32	57.6	10.1	32.3
1960	41	29	70	3	4	7	9	7	16	75.3	7.5	17.2
1961	59	36	95	5	6	11	24	9	33	68.3	7.9	23.8

(표4)는 이시오카 내 중학교 졸업생들이 어느 지역에 취직하는가를 소재지인 이시오카 외에 이바라키현, 도쿄, 기타로 나누어 백분율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종전 후 얼마 되지 않은 1956년에는 수도 도쿄로 취직하는 사람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약 5년 후인 1961년에는 도쿄로 취직자리를 찾아나서는 사람은 25.9%, 즉 26.1% 감소하였고 그 대신 이시오카에 남아 취직하는 사람이 32.7%에서 55.3%로 22.6%나 증가하고 있다. 즉,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경향이 1960년을 경계로 명확히 변화한 것이다.

(표5)는 이시오카에서 취직하는 경우, 어떤 직종을 선택하는지 ‘제조수리관계,’ ‘도소매업,’ ‘기타,’ 즉 기계공업, 상업, 기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보면 남녀 관계없이 1956~1961년 사이에는 도소매업 종사자보다 제조수리관계 업종 종사자가 더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특기할 점은 1958~1959년 사이에 제조수리관계업 종사자가 21.3%나 급증하고 도소매업 종사자는 16.5% 감소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1960년 이후에는 제조수리관계업은 60%를 훨씬 웃돌고 도소매업은 1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이상의 (표4) 및 (표5)를 종합해 살펴보면 1960년을 전후로 이시오카의 공업화-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된 결과, 지역주민들이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진출하는 경우가 현격히 감소하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1960년대 이후의 고도경제성장에 촉발된 고령화 · 소자화 · 공동화 등의 현상으로 상징되는 촌락사회화는 분명히 구별되는 도시사회의 근대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공업화의 진전과 비교하여 이시오카의 상업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게 되었다. 아래 (표6)은 이시오카 시내의 주민들이 생활물자 중에서도 도시에서 주로 구입하게 되

53) 日本産業構造研究所 앞의 책 pp.272, 273에서 작성.

54) 같은 책 p.271에서 작성.

는 고급상품으로서의 전통의복, 포복, 양복 등과 같은 의류상품을 어느 도시지역에서 구입하는지 조사한 통계자료이다. 즉, 고급 생활물자의 구입이라는 측면에서 주변촌락과 도시와의 관계, 다시 말해 연계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표6)에서 쓰치우라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바라키현의 현청소재지인 미토의 행정·경제 기능을 분담하는 상업도시이다. 그리고 다카하마는 1953년에 이시오카에 병합된 주변 지방도시 중 하나이다. 그리고 세로로 나열된 이시오카 시내 외 가노코 등은 이시오카시로 합병된 촌락지역들이다. 1940년경에는 이시오카 시내, 즉 근세 이래 이시오카의 중심시까지 영역에 거주하는 토착주민들의 98%가 그들의 거주지역 내에서 상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약 10년 후에는 쓰치우라 및 도쿄로 구매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이 경향이 더욱 지속되면서 특히 쓰치우라로의 유출이 현저해졌다. 이것은 이시오카 시내에 한정되는 경향이 아니다. 주변의 촌락지역들, 특히 가노코, 나카쓰가와, 소메야처럼 1940년경에는 전적으로 이시오카에서 상품을 구매하였던 지역들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쓰치우라로 그 구매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표6) 이시오카의 상업적 연계도(連繫度)<sup>55)</sup>

	1962년				1950년경				1940년경			
	이시오카	쓰치우라	도쿄	다카하마	이시오카	쓰치우라	도쿄	다카하마	이시오카	쓰치우라	도쿄	다카하마
이시오카 시내	73%	20%	5%		89%	5%	5%		98%	1%		
가노코	74	19	7		90	5			100			
미무라	68	29			77	20			88	12		
나카쓰가와	68	29			79	4			100			
소메야	83	7			100				100			
네토	69	15			88	12			94	3		
히가시오하시	78	9	9		85	4			52	5		38
다카하마	49.5	44		6	71	6		23	70			30
이시카와	50	50			66	20		14	71	17.5		11
세키가와	72	28			57	10		33	67.5	7.5		25

위와 같은 1960년대를 경계로 한 이시오카 상업의 쇠퇴를 어떠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첫째는 이미 논한 바와 같이 제조수리관계업 등 공업영역으로의 노동력 유출이다. 둘째는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일본의 모터리제이션(motorization) 현상이다. 이것은 단지 자가용차의 보급만을 뜻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기계화된 교통수단의 발전에 비롯된 공공교통수단의 정비 및 발달이라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터리제이션 현상은 이시오카뿐만이 아니라 근세 이후 여타 일본 지방중심도시의 경제적 위상을 약화시키는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현재까지도 그 대책 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이 문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자가용차를 이용하여 상품구매에 나서는 경향이 현저해지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즉, 근세 시대 도시정비로 구역화된 지방도시의 경우

55) 같은 책 pp.276~277에서 작성. 1940, 1950년대의 경우 정확한 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연대 별 추정치를 이용하였다.

주차공간의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조밀한 공간구조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시오카 상인들의 기질을 들 수 있다. 문헌뿐만 아니라 현지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시오카의 토착상인들이 ‘도노사마 쇼바이’ (殿様商売)로 상징될 만큼 거만하고 무뚝뚝한 태도로 소비자들의 많은 불만을 사왔다는 점이다. 즉, “팔아주겠다”<sup>56)</sup>는 식의 장사라는 것이다.<sup>57)</sup> 마지막으로 대형소매점의 진출을 들 수 있다. 대형주차장, 친절환 서비스, 다양한 상품을 한 곳에서 구매가능하다는 편리성 등을 무기로 한 대형소매점이 1960년대 이후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이시오카도 그 영향 밖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위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1960년대 이후 이시오카 상권의 쇠퇴가 이시오카 전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상권 약화가 현저한 이시오카는 근세 이래의 전통적인 중심시가지 지를 핵으로 하는 이시오카이다. (표3) 이시오카의 총인구 추이를 다시 보면 1960년대 이후에는 정촌 합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의 3만5천 명 규모에서 2000년대에는 5만3천 명 규모로 약 1만8천 명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증가와 함께 상권의 발전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만 근세 이후의 조밀한 공간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이시오카의 중심시가지 영역에 이 정도의 인구나 상권이 들어섰을 것이라고는 가정하기 어렵다. 이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60년대 이후의 교외화(suburbanization) 현상이 있는 것이다.

교외화 현상이란 일반적으로 “도시 근교가 도심으로 통근하는 노동자의 거주지로 특화되어 감에 따라 도심의 활동을 보완하는 거주와 소비의 장으로 변용되는 과정”<sup>58)</sup>을 뜻한다. 그러나 이시오카 도시화 현상의 일부로서 교외화는 이와 같은 정의를 내포하지 않는다. 위의 정의는 대도시의 도시화 현상으로서 교외화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시오카와 같은 지방도시의 경우, 중심시가지의 “활동을 보완하는 거주와 소비의 장”이 주변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중심시가지와는 별도의 거주 및 소비의 영역이 형성된다.

이시오카의 교외화, 즉 택지화 및 상권화는 JR 이시오카역의 동쪽, 특히 국도 6호선 및 355호선 주변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이시오카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지역은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시오카의 도시구조 변화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59)</sup> 1972~1977년은 ‘중심시가지 지를 포함한 주택개발이 활발’ 하였던 제1기, 1978~1986년은 ‘교외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 주택개발이 진행’ 된 제2기, 1987~1991년은 ‘주요도로변을 중심으로 한 점포집적이 활발’ 하였던 제3기이다. 이러한 도시구조의 변화추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중심시가지에서 교외로, 교외에서도 주요도로변을 중심으로 도시공간이 확대되었다는 점과 먼저 택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상권화가 연이어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택지화의 경우, 바라키다이(ばらき台) 주택단지, 미나미다이(南台) 주택단지 등과 같은 대규모 주택단지가 7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건설되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과 타 지역에서 단신 부임한 개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입주가 이루어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중적인 산업화와 교외화로 특징되는 이시오카의 제2차 사회변동기는 이시오카라는 근세 이후의 지방 도시공간을 단핵구조에서 쌍핵구조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변화는 전통적인 지방도시로 새로운 주민들이 대거 유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주민들(newcomers)의 유입이 전근대사회에서 상품거래를 목적으로 주변지역으로부터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sup>60)</sup>

56) 『石岡繁昌記』考の一端 (岡崎秀雄, 1996), p.96.

57) 이 문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론의 목적 상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하겠다.

58) 若林幹夫 앞의 책 pp.177, 178.

59) 『石岡市における都市化の進展—新旧住宅地の居住者の特性を中心に—』(堤純 외 4인, 1994), pp.27~30. 건축확인신청의 추이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 2. 소샤궁 대제의 변용—신주민의 유입과 ‘이시오카 축제’ (石岡のおまつり)—

이 시기에 소샤궁 대제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그 특징을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통적인 소샤궁 대제가 부정되고 ‘근대적인 마쓰리’ 로의 전환이 도모되었다는 점, 둘째로 신주민들이 소샤궁 대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새로운 제례조직이 탄생하였다는 점, 셋째로 대립과 결속이 병존하는 ‘문화 퍼포먼스’ (cultural performance)화하였다는 점이다.

1960년대 이전의 소샤궁 대제는 우지코들에 의한 그들만의 잔치였다. 소샤궁에서의 엄숙한 신사의례에 이어 펼쳐지는 축제의 향연은 여타 축제론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된 것처럼 일상성에서의 탈출과 욕구분출, 파괴 등의 행위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고조시키는 술과 음식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시오카시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한 관으로부터의 비판과 제제가 가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아래의 인터뷰 자료를 통해 소샤궁 대제 변화의 과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시오카 축제는 말이죠, ‘싸움축제’ 라고 했어요. … 조나이(町内)의 다시(山車)라고 해도 남들한테 보여줄 만한 게 아니었죠. 게다가 사자(獅子)따윈 … 길바닥에 나뒹굴러 다니고 귀도 다 떨어져 버리고 덜렁덜렁거리서 사자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그래도 우리들에겐 근심걱정을 잊게 해주는 축제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3일간 즐기 위한 축제. 그러니까 3일 동안은 술도 마셨겠다 싸움도 뭐라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싸움 같은 거. 지금은 각 조나이들도 관광객들도 오고 하니까 그런 보기 흉한 축제는 하지 않기로 하고 있죠.<sup>(61)</sup>

“싸움축제” (喧嘩祭り)로 알려졌을 만큼 당시의 소샤궁 대제는 질서정연하고 보기 좋은 이미지의 현대적인 축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sup>(62)</sup> 즉, 1년에 1번뿐인 비밀상적인 시공간 속에서 우지코 본인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의 욕구를 분출하고 정신적인 억눌림을 해소하는 기회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보기 흉한” 것으로 비판하고 개선해야만 하는 것으로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높아졌다. 1968년 9월 9일자 『이하라키』 (『いはらき』) 신문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올해에는 제례행사의 체질개선을 꾀하여 시민이 즐기는 축제인 동시에, 일반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축제로서 관광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등 새로운 아이디어가 준비되고 있다. 이 축제의 체질개선은 시 관광협회의 오랜 현안이었는데, 시 당국, 시 상공회의소, 나카마치, 고마루, 역앞거리 등 시내 중심지가 지 상점가의 협력을 얻어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 지금까지의 무질서, 무통제의 행진 중에 사자의 지붕 위에서 병 채로 술을 마시고 다 마신 술병을 땅에 던져버리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 … 교통, 치안 문제의 관점에서 근대적인 축제 집행을 바라고 있었던 만큼 이번 체질개선을 환영하고 있다.

“무질서,” “무통제” 로 수식되던 1960년대 이전의 소샤궁 대제는 관광객들을 의식한 ‘보기 좋

60) 전근대사회에서의 폐쇄적 · 배타적 ‘운명공동체’ 로서의 혼란과 같은 지역공동체가 아니다. 지리적 · 문화적 공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개념의 지역공동체임을 밝혀둔다.

61) 2002년 인터뷰 조사 당시 62세(남). 이시오카 중심시가지의 모리키조 거주.

62) 실제 일본의 축제가 갈등과 대립이 자연스럽게 또는 의도적으로 표출되는 더할 나위없는 무대 · 기회였음은 자주 지적되는 점이다. *The rousing drum: Ritual practice in a Japanese community* (Scott Schnell, 1999) 등.

은' 축제, "근대적인 축제" 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축제 중에 공공연하게 술을 마셔서는 안 되며 싸움을 할 경우 경찰서로 바로 연행되게 되었다. 또한 질서 정연한 행렬을 지어 행진함으로써 '보여주기 위한' 축제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시 관광협회 등의 관이었다. 시 당국은 시 관광협회를 통해 '합리화 배분금'이라는 공적 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공적인 관광자료 등에서 '소샤궁 대제' 는 '이시오카 축제' 로 명칭이 바뀌어 등장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이시오카의 교외화 현상에 의해 대두된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도 주목할 만하다. 1970년대 전까지만 해도 소샤궁 대제-이시오카 축제-는 1902년에 제정된 연번제도에 근거하여 전통적인 근린집단인 16곳의 연번 조가 교대로 운영하는 이른바 우지코들의 축제였다.<sup>63)</sup> 그러나 '비연번 조' (非年番町), 즉 연번이라는 역할은 맡지 않으나 사자라는 풍류물을 가지고 소샤궁 대제에 참가하는 신주민들의 제례조직이 70년대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더 이상 우지코들의 축제라고는 하기 어렵게 변한 것이다. 이들이 소샤궁 대제라는 신사축제에 적극 동참하게 된 배경에는 어린 자녀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줌과 동시에 전통적인 근린집단뿐 아니라 그들도 이시오카의 '시민' 입을 강조,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

지금도 소샤궁 대제는 이시오카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특별한 날이다. 물론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시오카의 주민들, 특히 전통적인 근린집단의 주민들에게 있어 소샤궁 대제는 "설과 오봉 때는 귀성하지 않아도 마쓰리 때는 꼭 돌아간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향 이시오카를 상징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특히 아이들을 때료시키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역시 다시나 사자와 같은 역동적이고 화려하며 거대하고 재미있는 풍류물들을 타거나 끌면서 놀 수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북과 피리의 신명나는 축제음악( 'お囃子' ) 속에서 또래집단과 어울리는 기회는 그다지 흔치 않은 것이다. 이시오카라는 새로운 거주지에 생활공간을 마련한 이방인=신주민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더 이상 이방인=신주민이 아닌 이시오카 시민=신주민이라는 소속감과 권리를 얻고자 하였음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점은 새로운 이시오카시의 구축과 발전을 꾀하던 행정당국이 시의 통합, 즉 구주민과 신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이 소샤궁 대제를 적극 활용, 권장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위에 인용한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시민이 즐기는 축제" 라는 표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주민들에 의한 비연번 조의 참여는 이시오카의 교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양적으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1980년에는 연번 조 15곳에 대해 비연번 조가 14곳, 2003년에는 비연번 조만 21곳으로 7곳이 늘어나 연번 조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해진 이시오카 축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상위조직으로서 1980년에 '이시오카 축제 실행위원회' 가 발족하였다.

그러나 구주민과 신주민이 함께 참가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화합' 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서로의 이권 다툼과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대립과 갈등이 수면 밑으로 흐르고 있다.<sup>64)</sup> 즉, 행정당국의 담론 및 관광 대상으로서의 소샤궁 대제에는 쉽게 나타나지 않지만 끊임없는 조정과 타협이 불가결한 사회적 구축물이라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적 속성을 지닌 참가자들은 때로는 이시오카 시민으로서, 또 구주민 혹은 신주민으로서, 또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소샤궁 대제의 주인공 · 연행자로서 등과 같이 다양한 사회적 문맥 속에서 스스로의 역할내용을 바꾸어가며 이 축제를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대도시사회 속에서 복잡 · 다양 · 거대해진 축제, 즉 도시축제를 전통

63) 이 중 기노지조(木之地町)는 근린집단의 노령화, 과소화 등으로 인해 1934년에 연번을 탈퇴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연번 조는 총 15곳이다.

64) 지면 관계 상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한다.

성, 정통성, 진정성 등의 배타적 개념만으로는 논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참고가 되는 것이 싱어(Singer)의 문화 퍼포먼스론, 즉 의례, 식전 등과 같은 종교적 행사뿐만이 아니라 연극, 콘서트, 축제 등 세속적인 문화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성스러운 의례와 세속적인 문화행위가 접촉하는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문화구조의 윤곽뿐만이 아니라 그 구조적 변화의 경향과 과정까지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sup>65)</sup> 1960년대 이후의 소샤궁 대제-이시오카 축제는 이시오카의 도시화, 특히 교외화라는 사회변동 속에서 축제의 구조에서 내용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화하였다. 바로 근세 이래의 신사제례에서 현대사회의 도시축제로 탈바꿈하고 진화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다.

## V. 결론

지금까지 지방도시 이시오카의 위상 변화를 사회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전근대 및 근대 이후로 나누어 그 전개 및 결과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도시의 사회적 위상 변화가 축제라고 하는 문화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시오카시에 전승되는 신사축제인 소샤궁 대제-이시오카 축제를 사례로 하여 논해보았다.

이시오카는 고대에서 중세에 걸쳐 국부의 고장, 즉 정치 · 행정 · 문화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국부 기능의 소멸과 새로운 시대로서 근세를 맞이하면서 에도에서 미토로 이어지는 미토가도 상에 위치한 슈쿠바 마을로서, 그리고 주변 농촌지역 상품경제의 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달리하여 역사를 이어가게 되었다. 다만 다른 도시지역, 특히 이른바 대도시로 일컬어지는 지역과는 달리 광대한 간토평야 상에 위치한 이시오카는 촌락으로서의 성격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바로 여기에서 메트로폴리탄으로서의 대도시가 아닌 촌락경영 및 상품거래에 기초한 지방도시의 특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촌락과 도시의 이중구조로 특징지어지는 이시오카의 경우, 주변 농촌으로부터 유입되는 풍부한 농산물과 양질의 물을 이용한 청주 · 간장의 양조업이 근세 중기 이후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양조업으로 대표되는 전통지역산업의 변성은 메이지 시대 이후에 진행된 이시오카의 근대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자본을 마련하였다.

이때까지 소샤궁은 국부가 설치되었을 때 건립된 유서 깊은 신사로서 이시오카에 전해지고는 있었지만, 이시오카 주민들에게 소샤궁은 그들의 지역을 지켜주는 그들만의 우지가미는 아니었다. 다만 과거 국부지역 일대의 총괄적 우지가미로 인식되었을 뿐이었고, 이시오카 주민들에게 가장 친근한 우지가미 신사는 텐노샤였다. 따라서 텐노샤의 마쓰리, 즉 기온마쓰리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력 아래 성대히 개최되었지만 소샤궁의 마쓰리, 즉 소샤궁 대제는 엄숙한 신사의례로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메이지 신정부의 신사 통폐합 정책에 의해 텐노샤는 무격사로 격하되고 소샤궁은 향사로 격상되었다. 즉, 신사의 위계질서 상 소샤궁이 상위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양조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번성을 구가하고 있던 이시오카 주민-상인-들은 이시오카에 종교적 · 문화적 정통성을 부여하고 그들의 경제적 · 사회적 위상을 확인 · 유지 · 강화하는 문화적 장치 또는 상징으로서 소샤궁을 확보하고자 향사에서 현사로의 승격운동을 벌여 현실화시킨다. 그리고 이때부터 소샤궁은 이시오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우지가미 신사로, 소샤궁 대제는 지역주민들의 최대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또 이 시기에 현재와 같은 연번제도가 제정되어 주민들의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근린집단 중심의 화려한 스펙터클로서의 축제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65) *When a Great Tradition Modernizes: An Anthropological Approach to Indian Civilization* (Milton Singer, 1972), pp.64, 71.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시오카는 주변 촌락지역을 합병하면서 ‘시’로 거듭나게 되었고 공간적으로 확대되어진 이시오카에서는 산업공장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가 진행되었다. 이것은 근세 이시오카의 지역적 특질뿐만이 아니라 양조업과 같은 전통지역산업의 쇠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60년대를 전후로 하여 이시오카에는 기계 · 금속 관련 공장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고 여기서 일자리를 얻어 고향 이시오카에 남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게 된다. 이로써 여타 일본의 농산어촌과 같은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인한 피폐한 상황에서는 벗어나게 되었고 지방도시로서 그 사회적 위상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와 함께 진행된 교외화 현상으로 인해 이시오카 중심시가지에서 벗어난 지역, 특히 국도와 같은 주요간선도로 주변으로 택지 및 상권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이곳으로 새로운 주민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모터리제이션 등과 같은 사회변동의 영향과 택지화 · 상권화의 진전으로 이 지역은 이시오카의 구 중심지와 함께 새로운 중심지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이시오카가 사회공간적으로 단핵구조에서 쌍핵구조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후 이시오카의 사회적 위상 변화는 이시오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소샤궁 대제에 명확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바로 신주민들의 소샤궁 대제에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이 시기의 소샤궁 대제는 관광화를 꾀하는 행정당국의 주도 하에 보여주기 위한 근대적인 축제로 거듭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방대해진 시 운영에 있어 구주민과 신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에도 활용되게 된다. 그러나 신주민들에게 있어 소샤궁 대제는 그들 자녀의 추억 만들기 및 그들 스스로의 소속감과 지역민으로서의 권리를 확인 ·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었던 것이다. 연번 조직보다 수적인 측면에서 우세한 신주민들과 소샤궁 대제의 전통적인 우지코인 구주민들 사이에는 대립과 갈등이 잠재해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 속성을 달리하는 이질적인 주민들의 참여로 소샤궁 대제는 명실 공히 현대사회의 도시축제로 재편, 실현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존의 대도시와는 다른 지방도시의 연구에 있어 그 통시적 문맥의 검토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특히 사회적 위상 변화를 검토하는데 있어 문화적 영역에 대한 연결고리를 검토하고 상호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은 유효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겠다.

## 【參考文獻】

- 김근오 「마츠리(축제)에 나타나는 일본 사회 조직의 특징」 『비교민속학』 16-1, 1999.
- 김양주 「일본지역사회의 『마츠리』와 그 사회문화적 역동성」 『民族과 文化』 3, 한양대 민족학연구소, 1995.
- \_\_\_\_\_ 「도시축제의 다이아미즘」 『培材論叢』 1, 배재대학교, 1996.
- 김현정 「일본 도시 축제의 조직 구조와 그 의의: 축제조직에 대한 통시적 · 공시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8-1, 2005.
- \_\_\_\_\_ 「향토의식의 형성과 지역 전통문화의 발견」 『한국민속학』 45, 2007.
- 김후련 「야사카진자(八坂神社)의 기온마츠리(祇園祭)」 『日本研究』 17,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2001.
- 이시제 외 8인 『일본의 도시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2001).
- 최인학 「일본의 마츠리(祭)와 한국의 축제 비교」 『日本研究』 11,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1996.
- 阿南透 「鞍馬火祭:二元的構成の祭礼」 『季刊人類学』 14(3), 1983.
- 石岡市 『統計いしおか平成16年版』, 2004.
- 石岡市教育委員会 편 『石岡の地誌』, 1986.
- 石岡市史編纂委員会 편 『石岡市史 中卷II』, 1983.
- \_\_\_\_\_ 『石岡市史 下卷(通史編)』, 1985.
- 大山隆光 「土橋町の獅子頭と祭礼雑記」, 石岡郷土史研究会 편 『石岡郷土誌』 17, 1994.
- 岡崎秀雄 「『石岡繁昌記』考の一端」 『郷土文化』 37, 茨城県郷土文化研究所, 1996.
- 小田宏信 외 3인 「石岡市における工業の発展と地域的性格—大都市圏周辺工業都市の一類型—」 『地域調査報告』 16, 筑波大学地球科学系人文地理学研究グループ, 1994.
- 金良柱 「神々の結婚:四万十川流域社会における『ハチマンサン』とその変化」 『民族学研究』 54(3), 1989.
- C. 기어즈 지음, 梶原影昭 · 小泉順二 · 山下晋司 · 山下淑美 역 『ローカル・ノレッジ』, 岩波書店, 1991.
- 櫻井明 「祭礼の伝承」, 石岡市教育委員会 편 『常府石岡の歴史—ひとちのみやこ1300年の物語—』, 1997.
- 藪田稔 「祭り参加の諸相と階層」 『人類科学』 19, 1966.
- \_\_\_\_\_ 「祭りと都市社会」 『国学院大学日本文化研究所紀要』 23, 1969.
- 高橋伸夫 외 4인 「石岡市中心部における都市空間の特性」 『地域調査報告』 16, 筑波大学地球科学系人文地理学研究グループ, 1994.
- 谷本雅之 「銚子醤油醸造業の経営動向」, 林玲子 편 『醤油醸造業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90.
- 堤純 외 4인 「石岡市における都市化の進展—新旧住宅地の居住者の特性を中心に—」 『地域調査報告』 16, 筑波大学地球科学系人文地理学研究グループ, 1994.
- 中村孚美 「町と祭り—秋田県角館町の節山囃子の場合—」 『日本民俗学』 77, 1971.
- 日本産業構造研究所 『工業化による茨城県石岡・土浦地域の開発に関する調査研究』, 日本産業構造研究所, 1963.
- 平野松次郎 「石岡繁昌記」(1901), 石岡市史編纂委員会 편 『石岡市史 中卷II』, 1983.
- 松倉鶴雄 「石岡誌」(1910), 石岡市教育委員会 편 『石岡の地誌』, 1986.
- 松平誠 「都市の社会集団—“まつり”を準拠点とする実証研究(その1·2)—」 『応用社会学研究』 19·20, 1978·1979.
- \_\_\_\_\_ 『都市祝祭の社会学』, 有斐閣, 1990.
- 民俗学研究所 『民俗学辞典』, 東京堂出版, 1978(1951).
- 三田宗介 외 2인 편 『社会学辞典』, 弘文堂, 1988.
- 安丸良夫 『神々の明治維新』, 岩波書店, 1981(1979).
- 柳川啓一 「親和と対抗の祭」 『思想』 582, 1972.
- 柳田国男 「日本の祭り」 『新編 柳田国男集 第五卷』, 筑摩書房, 1978.
- 山口仙栄 「常府古跡案内しるべ」(1784), 石岡市史編纂委員会 편 『石岡市史 中卷II』, 1983.
- \_\_\_\_\_ 「総社神宮祭礼評議」(1791), 石岡市教育委員会 편 『石岡の地誌』, 1986.
- 米山俊直 『都市と祭りの人類学』, 河出書房新社, 1986.
- 若林幹夫 『都市の比較社会学』, 岩波書店, 2000.
- 和崎春日 『大文字の都市人類学的研究—左大文字を中心として—』, 刀水書房, 1996.

Milton Singer, *When a Great Tradition Modernizes: An Anthropological Approach to Indian Civilizat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2.

Scott Schnell, *The rousing drum: Ritual practice in a Japanese communit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9.

이시오카시 공식홈페이지 <http://city.ishioka.lg.jp/index.htm>.

## 조 규 헌(승실대)

## 일본지방도시의 위상변화와 도시축제

김현정 선생님의 본 연구는 지방도시 이시오카의 위상 변화를 사회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전근대 및 근대이후로 구분하여 그 전개 및 결과 양상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러한 지방도시의 사회적 위상변화가 축제라는 문화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이시오카시에 전승되는 신사축제인 소샤궁 대제 이시오카 축제를 사례로 분석 및 고찰한 것입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기존의 대도시와는 다른 지방도시의 연구에 있어 그 통시적 문맥의 검토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점인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연구방법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위상 변화를 검토하는데 있어 문화적 영역에 대한 연결고리 및 상호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유효한 방법론임을 주장하셨습니다.

이러한 통시적 문맥에 의한 검토는 본 연구에서 충실히 수행되어 제 5장의 결론부분에 잘 정리되어져 있는 것처럼 지방도시의 위상과의 관련 속에서 이시오카의 축제 소샤궁 대제의 변천과정 등을 매우 세밀하게 그려낸 점은 본 연구의 갖는 의도와도 합치하며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논문 전체를 통해 전해진 선생님의 치밀한 연구의 전개는 토론자인 저에게도 매우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생님의 논문내용에 공감하지만 연구목적으로 삼은 문화영역 부분에 대한 고찰은 비교적 불충분한 점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연구사검토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일본의 마쓰리 연구의 한계에 대하여 기어즈에 의한 학문적 분업체제 문제를 기본적인 문제의식으로 삼아 일본 도시축제 연구를 민속학과 인류학의 연구의 한계점을 포괄적으로 파악한 뒤, “도시공간-지역사회-와의 관계구도 안에서 도시축제의 변천과 그 함의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다” (p.2)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시 삼은 종래의 연구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갖는 연구라고는 여겨지지 않으며, 최근의 연구동향으로 선생님과 동일목적 및 방법론을 갖는 연구가 어느정도 선행되어 있으며 일정한 학설적 전개도 있지 않았을까 궁금합니다. 이러한 연구가 선행연구로서 들어졌다면 <사회학+인류학>의 새로운 관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선생님의 연구가 오히려 각 지역사태의 축적에 의한 이론적 정립이라는 측면에서도 보다 연구사적 의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2. 신사의례양식에 대하여

"1960년대 이전의 소샤궁 대제는 우지코들에 의한 그들만의 잔치 였다. 소샤궁에서의 엄숙한 신사의례에 이어 펼쳐지는 축제의 향연은 여타 축제론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된 것처럼 일상성에서의 탈출과 욕구분출, 파괴 등 (중략) “싸움축제(喧嘩祭り)라고 알려졌을 만큼 당시의 소샤궁 대제는 질서정연하고 보기좋은 현대적 축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pp.13-14)

선생님의 논문에서는 엄숙한 의례후의 무질서로 싸움축제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축제(喧嘩祭り)는 역병, 전염병 등의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八坂神社계통의 あばれ祭로 알고있습니다. 아마도 근세 이시오카의 우지카미인 ‘텐노샤’의 싸움축제가 계승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의례 양식의 변형과정에 대해 보다 자세히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근현대 일본의 와카모노야도(若者宿)와 포크롤리즘

- 宮前耕史 (계명대 교수)

지정토론 - 진필수(서울여대 강사)

## 近現代日本の若者宿とフォークロリズム

宮前耕史(啓明大学校国際学大学日本学科)

### 1. はじめに

近年における日本の民俗学界において最も注目されている概念の一つに「フォークロリズム」というものがある。

フォークロリズムとは、

- ・「民俗文化が本来のコンテクスト（文脈）を離れて見出される現象」（八木2000）、
- ・「民俗的な文化物象が本来それが定着していた場所の外で、新しい機能を持ち、新しい目的のためにおこなわれること」（河野2003）、
- ・「人々が（中略）民俗文化的要素を『流用』し、表面部分のみを保存する『書き割りの』な演出や、伝統らしさを自ら振る舞うことで、都会から訪れた観光客のノスタルジーや欲望を満たすような状況や現象を指示すると同時に、都市に暮らす現代人が何故こうした素朴さに惹かれるのかをも問い掛ける枠組み」（岩本2003）

などと便宜的に定義され、さしあたっては、観光現象をめぐって見られる民俗（とりわけ神社祭礼や伝統芸能）の「文化財」化や「観光資源」化、商品化、あるいはいわゆる村おこし・町おこしのイベントやその際の擬似的な民俗の創出などといった現象が分析の対象とされてきた。

この「フォークロリズム」という概念は、もとは西ドイツの民俗学者、ハンス・モーザーとヘルマン・パウジンガーにより1960年代に提唱され、河野真により日本に紹介されたものなのであるが（河野2003）、日本の民俗学界においては、歴史学における「創られた伝統」論や文化人類学における「文化の客体化」論の影響も受けながら、外部社会の眼差しを内在化することにより、その担い手自身が自らをとりまく日常の生活事象を民俗（＝伝統文化）として客体化・対象化して認識し、ある場合にはその民俗に変更を加えた上で維持し、ある場合廃棄してゆくという、現在における民俗のあり方や、そのような状況の成り立ちを明らかにしてゆくに際して、大変有効な概念として注目されている。

一方、報告者は、三重県鳥羽市に属する離島・答志島（伊勢湾）において、当地で「寝屋」あるいは「寝屋子」と呼ばれる若者宿の民俗について調査・研究を行ってきた（以下、便宜上「寝屋」の民俗と呼ぶ）。当地における「寝屋」の民俗とは、中学校を卒業後、男子（とりわけ長男）が地区内の「信頼のおける家」の主を「寝屋親」と頼んで擬制的親子関係（親分-子分関係）を結び、結婚するまで、あるいは25~26歳になるまでの約10年間、仲間とともに寝起きを共にする、というものである。「寝屋」に寝泊りする若者たちを「寝屋子」と呼ぶが、寝屋親と寝屋子、寝屋子同士の間には特別に親密な関係が形成されて、冠婚葬祭に助け合うなど、生涯にわたってその関係を維持してゆくものと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若者宿の民俗は、その構造や機能に地域的な偏差を伴いながらも、近代以前の日本の村落社会に広範に存在していたが、近代（明治期・大正期）以降、あるいは戦後の高度経済成長期を通じて、漸次消滅していったと考えられている。当地における若者宿は、現在にまで存続している、おそらくは日本で唯一のものとして著名であり、民俗学的研究の対象とされてきたのみならず、新聞・雑誌・テレビといったのマスメディアにも数多くとりあげられてきた。

今回の報告では、日本の民俗学界におけるフォークロリズムをめぐる議論の動向について簡単に紹介した上で、答志島における若者宿－「寝屋」の民俗の現在の状況とその成り立ちをフォークロリズムの視角においてとらえ、その成立過程について検討を加えたい。

### 1. 民俗学界におけるフォークロリズムをめぐる研究動向

まず、フォークロリズムをめぐる議論の遡上に、これまでどのような事象がのせられてきたか、参考までに【資料1】日本民俗学会機関紙『日本民俗学』236号<特集・フォークロリズム>の構成をみると、「節分の巻き寿司」、博物館展示、ツーリズム、伝統文化産業、桃太郎伝説、郷土玩具、民芸(陶芸)、葬儀、写真・童画、メディア、文化政策などといった素材が、商業戦略、ノスタルジア(ノスタルジー)、地域アイデンティティの創出、郷土、ナショナルリズム(あるいは文化ナショナルリズム)などといった視角から取り上げられている。以下ではまず、これらを参照しながら、近年の日本の民俗学界におけるフォークロリズムをめぐる議論の動向を簡単に概括・整理しておきたい。

### (1) 現代日本における観光現象をめぐるフォークロリズム

まず、現代日本における観光現象をめぐるフォークロリズムをあげることができる。

神社祭礼が、町おこし・村おこしのための観光資源として注目されるに従って、祭礼そのもののイベント化がすすむ。と同時にまた、新たなイベントが観光資源として創出される。そうした中で、祭礼、あるいは、祭礼の一部を構成している伝統芸能の「文化財」としての価値が称揚されたり、従来とは異なる形で「上演」されるといった事態がすすむ。その際、「伝統」的色彩を付与するために、舞台装置や意匠に新たな工夫が凝らされることもある。また、その一方では、例えば「伝統芸能フェスティバル」や「東京公演」といった形での伝統芸能の切り売りがすすむ。

従来民俗学は、こうした現象をとらえる視角を持ち合わせていなかった、あるいは民俗(=伝統文化)の「真正性」を保持する立場から、こうした現象には批判的であった。しかし、観光現象の文化人類学的研究(観光人類学)が進展し、観光現象を、文化の「客体化」とそれに伴う文化の「流用」ととらえる「文化の客体化」論が出現すると、その成果を参照しながら、観光現象をも視野に入れつつ、現在の地域社会における民俗のあり方の実態をとらえるための枠組みとしてフォークロリズムを取り入れた。

たとえば、日本の事例ではないが、伝統的バリの象徴的存在とも言える「ケチャ」が、ヨーロッパ人のバリに対するイメージをモデルとして、観光客のニーズに合わせて創造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は有名である(山下1996)。「特集・フォークロリズム」では、森田真也と川森博司が、観光現象をめぐるフォークロリズムについて論じている。たとえば森田によれば、本来、特定の期日に特定の場所で営まれていた宮崎県高千穂町における「夜神楽」は、期日を選ばず「夜神楽保存館」で行われれるといい、これを「観光夜神楽」と呼んでいる。

### (2) 現代における民俗の商品化

観光現象をめぐるフォークロリズムも、そこで民俗が観光の目玉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という意味で、広義には民俗の商品化ととらえられる。しかし、民俗の商品化をめぐるフォークロリズムを、民俗の商業戦略への流用として狭義に考えるなら、たとえば「特集・フォークロリズム」では、次のような事例が扱われている。

・「節分の巻き寿司」

・「葬儀」：現在における葬儀産業は、「従来の民俗を商業的にアレンジしている」という意味においてフォークロリズムの視角から捉えうる(山田2003)。この過程で新たな儀礼(サービス)が、従来の(あるいはすでに消滅していた)民俗を参照しながら創出される。

### (3) 近代日本における国家的伝統の創出

歴史学における「創られた(発明された)伝統」や「想像の共同体」をめぐる議論は、現在「伝統」と考えられている多くの事象が、近代国家の成立過程で、国民・民族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創出・保持してゆくために、「創造」「想像」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きた。

日本の場合も例外ではなく、現在、「日本の伝統文化」と考えられている多く事象が、近代以降の国家形成過程で「創造」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されてきている。たとえば代表的なものでは、武士道・相撲などがある(船曳2003)(風見2002)。国家儀礼として皇室により営まれる宮中儀礼も、「創られたもの」といい(高木1997)、あるいは神前結婚などは、韓国の大学生でも知っている「創造」された日本の伝統文化の代表とも言えるかもしれない。

日常卑近の「日本の伝統文化」と目される「民俗」の場合も同様で、明治初期段階においては、「淫風」「陋習」として禁止・廃止の措置がとられることも多かった。たとえば岩本通弥

によれば、盆踊りは明治初期段階においては禁止・廃絶すべき「淫弊」「陋習」とされていた。こうした「民俗」に対する政府の視線が転換するのは、日露戦争を経て、地方改良運動が進展する大正期以降のことである。たとえば盆踊りは、西洋の民族舞踏との対比のもとに、「国体」を体現する「美風」「伝統」へと高められていった（「我が舞踏に多い輪をどりの形式にも、中心に向かつて統一せられる没我的な特色が出てゐて、西洋の民族舞踏に多い男女対偶の形式に相對してゐる」（文部省、『国体の本義』昭和12年）（岩本1998））。

実は、今回報告の後半に事例として扱う若者宿の民俗も、明治初期においては「弊風」「陋習」としてその禁止・廃絶が求められていた民俗の代表格である。

若者宿に対する政府のこうした施策・視点が逆転するのも、やはり日露戦争後の地方改良運動下においてであった。地方改良運動においては、天皇制を核として、より強固な国家意識を国民の間に形成してゆくことが課題とされた。そのため、小学校卒業後の青年を対象として、天皇制教育のための教化機関として官製青年団が組織化されたが、この官製青年団に、正当性を与えるために創造（想像）されたのが、近代以前の村落社会に広範に存在していた若者宿を青年団の前身とする説である。いわば、いわば、官製青年団に、「歴史」と「伝統」という面から正当性を与えようとするものであったといえるが、この過程において、明治初期段階においては禁止・廃絶すべき「淫風」「陋習」とされていた「若者宿」は、近代以前の村落社会における「教育」の「伝統」を体現する「美風」として、評価しなおされることとなった。

#### （4）現代日本における国家的伝統の創出

近代日本の国家形成における「伝統」の「想像」「創造」と同様の視点から、現代日本における国家的伝統の創出に関する研究も進展している。

たとえば、岩本通弥は、全国各地で展開される世界遺産登録運動や里山・棚田などの文化的景観保全の運動、文化庁の「ふるさと文化再興事業」その他、「ふるさと（の）資源化」の運動が、新たな農村保全策としての新農業基本法の成立を契機としながらも、「愛郷心・愛国心の涵養を図るといった性格も帯び」ているという意味において、「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の再構築」を目指した「地方改造運動」－「政治的フォークロリズム」であると述べている（岩本2007）。

### 3. 答志島・答志の若者宿（「寝屋」の民俗）をめぐるフォークロリズム

以下では、答志島・答志地区の若者宿（「寝屋」の民俗）の現在の状況をフォークロリズムの視角からとらえ、その成立過程について検討を加える。まずは、答志島・答志地区および当地における「寝屋」の民俗の概況とその現在の状況を、フォークロリズムの視点から整理しておく。

#### （1）調査地概況－答志島・答志地区

答志島は三重県鳥羽市に属する離島である。島には答志・和具・桃取の3つの地区があるが、本報告で対象とするのは答志地区である。

答志地区は、平成8年現在、人口1593（男759、女834）人、世帯数344。うち299世帯が漁業共同組合に加入し、その半数以上が沿岸漁業を中心とする専業漁家という、沿岸漁業集落である。

#### （2）答志地区の若者宿（「寝屋」の民俗）の概略

当地における「寝屋」の民俗とは、中学校を卒業後、男子（主として長男）が、地区内の信頼における家の一間を借りて、同時に中学校を卒業した者同士（同級生5、6人から十数人）で、結婚するまで、あるいは25、26歳までの約10年間、寝泊りを共にするというものである。彼らの寝泊りする家あるいは部屋を「寝屋」、その家の主人を「寝屋親」、そこに寝泊りする子ども達を「寝屋子」と言う。寝屋親と寝屋子、寝屋子同士は、冠婚葬祭に助け合うなど、生涯にわたって特別に親密な関係を維持してゆくとされる。

#### （3）「寝屋」の民俗をめぐるフォークロリズム

次に、「寝屋」の民俗をめぐる現在の状況を、フォークロリズムの視点から整理する。

【資料2】～【資料5】としてあげたのは、答志漁業協同組合および答志島旅館組合のHPの一部である。それぞれのHPにおいて、2箇所ずつ、「寝屋」の民俗についての紹介を行っている。

①「寢屋」の民俗の客体化・対象化

答志地区の「寢屋」の民俗が、その担い手自身により「説明」が加えられるといった事態は、それが、その担い手たる答志地区の人々自身により客体化・対象化して認識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意味している。これが、答志地区における「寢屋」の民俗の現在の状況、フォークロリズムの第一の局面である。

②漁村・答志のアピール手段としての「寢屋（子）制度」

次に、それぞれのHPにおいて、「寢屋」の民俗がどのように、どのようなものとして紹介されているかという点に注目すると、論点は多々あるのだが、「寢屋」の民俗を「寢屋制度」「寢屋子制度」と呼称しながら、それを通じて形成される寢屋親と寢屋子、寢屋子同士といった人間関係における特別に親密な関係性を強調した上で、それが、答志地区という「離島」の「漁村」において必要とされる人々の強い結びつきをもたらす源泉となっていると紹介している点で、共通している。

漁業協同組合の最も重要な役割は、地区内漁師により水揚げされた漁獲物の販売である。一方、答志島旅館組合は、観光客の誘致を最大の目的とする。こうした役割をもつ漁業協同組合・答志島旅館組合により、「寢屋」の民俗が上記のような仕方で紹介されているといった事態からは、それが、漁獲物販売・観光客誘致のための重要な手段として、両者により位置づけられているという事実が明らかである。すなわち、答志地区の「寢屋」の民俗は、（現代日本人が失ってしまった）人々の強い結びつきを現在でも保持する「離島」の「漁村」として、答志地区を外部社会に対してアピールしてゆく手段として戦略的に利用されていると言える。こうした事態を、答志地区における「寢屋」の民俗の現在の状況、フォークロリズムの第二の局面ととらえることができる。

このように、答志地区の「寢屋」の民俗をめぐる現在の状況は、その担い手たる答志地区の人々自身により客体化・対象化して認識されているという点と、それが、人々が強い結びつきをもちつつ生活している「離島」の「漁村」として、答志地区を外部社会に対してアピールしてゆく手段として戦略的に利用されているという点において、フォークロリズムととらえることができる。

それでは、このような状況は、どのようにして成立するにいたったのか。言い換えるなら、「寢屋」の民俗を客体化・対象化してとらえる視点はどのようにして獲得され、どのようにして継承されて来たのか。して次に、こうした問題について検討を加える。

4. 「寢屋」の民俗をめぐるフォークロリズムの成立過程

(1) 「寢屋制度」「寢屋子制度」の成立—「寢屋」の民俗を客体化・対象化するまなざし

答志地区の「寢屋」の民俗に関する最初の著述は、答志地区在住の高校生・山下伴郎による「答志の若者組について」というものであった。論点はいくつかあるが、およそ次のように整理できる。

①担い手自身による著述であること。

第一に、すでに述べたように、答志地区在住の一高校生、すなわち「寢屋」の民俗の直接的な担い手により著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

②「寢屋（子）制度」という語の出現

第二に、これが答志地区における若者宿の民俗のfolk termである「寢屋（子）」に「制度」という語を付与することによる「寢屋（子）制度」という語を使用した、初発の事例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

③「漁村」と「寢屋」の民俗の結びつき

第三に、「寢屋」の民俗が、漁村において卓越して必要とされる共同労働の必要性と、そのための連帯感—人々の強い結びつきをもたらす心性を養成してゆくための訓練の場とする、現在にも連続する認識が、すでに見られることである。

④「若者組」との照応関係（専門知識の参照）

第四に、そのような認識が、「寢屋」の民俗を、日本民俗学の専門知識を参照しつつ、もたらされたものであるという点である。タイトルに見る「若者組」とは、日本民俗学の学術用語で、民俗学の専門知識を参照することなしに、これを一高校生が使用したと考えることは困難である。ここでの「若者組」という用語の使用は、若者組という民俗学の専門知識を準拠として、答志の「寢屋」の民俗を理解するという方向性を示唆しているが、③に見たような、「寢屋」の民俗を、漁村において卓越して必要とされる共同労働の必要性と、そのための連帯

感一人々の強い結びつきをもたらす心性を養成してゆくための訓練の場とする理解・認識は、答志地区の「寝屋」の民俗を、民俗学の専門知識である「若者組」を準拠枠とすることにより、もたらされたものなのである。

⑤社会科教員による指導の介在

第五に、こうした事態は、民俗学の専門知識を持ち合わせた人物による指導の存在を予測させる。

実際、「答志の若者組について」は、当時山下が在学していた三重県立鳥羽高等学校の社会科レポートとして著されたものであり、民俗学研究にも造詣の深い郷土史家・神話研究者として当時一定の評価を受け、また県下の社会科教育研究にも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ていた社会科教員・筑紫申真の指導のもとに著されたものであると推測される。

このように、自らがその担い手たる「寝屋」の民俗を、山下が客体化・対象化して認識してゆく視点は、答志地区の「寝屋」の民俗を、学校教育を通じてもたらされた若者組という民俗学の専門知識を準拠枠とすることにより、もたらされたものである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

「寝屋（子）制度」という語の出現は、「寝屋」の民俗を、その担い手自身が客体化・対象化して認識してゆくための視座を獲得したことを象徴的に示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のであり、その結果が上記のような、現在にも継承される「寝屋」の民俗に対する理解の仕方なのであった。

(2) 客体化・対象化する視座の継承過程—行政・学界・マスメディアとの相互作用

それでは、「寝屋」の民俗に対する「寝屋（子）制度」という呼称、そしてそれを「離島」の「漁村」における人々の濃密な人間関係形成の源泉であるとする理解の仕方は、どのようにして現在にまで継承されてきたのであろうか。

昭和40年、鳥羽市教育委員会では、鳥羽市域および志摩半島の若者宿の民俗に関する著述を収集し、『鳥羽市に於ける寝屋制度』なる冊子を発行した。ここに、山下によるレポート「答志の若者組について」も、他の郷土史家や研究者（大学教員）らによる、鳥羽市を含む志摩地方の若者宿に関する著述と共に、収録された。

また、同時期、答志地区を含む志摩地方は、「民俗の宝庫」とも称され、各種研究機関による民俗調査が活発に展開されたが、そこでは若者宿の民俗は、同地方を代表する「民俗」として好んで調査研究の対象とされた。「答志の若者組について」を含む『鳥羽市に於ける寝屋制度』は、その多くにおいて貴重な資料として参照されている。答志地区の「寝屋」の民俗を直接的に取り扱っている研究のうち、代表的なものとして、以下の三点をあげておく。

- ・宮本袈太郎編集代表1966『三重県志摩地方の民俗調査—鳥羽市答志島・志摩町和具・越賀—』立教大学博物館学講座
- ・立教大学博物館学講座・三重県立博物館・鳥羽市教育委員会編1964『三重県答志島の総合調査』
- ・和歌森太郎編1965『志摩の民俗』吉川弘文館

さらに、昭和40年代以降になると、答志地区とその「寝屋」の民俗は、新聞・雑誌・テレビなどのマス・メディアにより、現代日本人には忘れ去られてしまった「古きよき人間関係の伝統」とそれを現在に保持する島として喧伝されてゆく。昭和60年、答志地区の「寝屋」の民俗が鳥羽市により無形民俗文化財の指定を受けたこと、「寝屋子制度」が、「寝屋」の民俗の文化財としての正式名称としても採用されたことについてはすでに述べた。

こうした過程を答志地区の人々の視点から考えるなら、それは「寝屋制度」「寝屋子制度」という呼称とこれに対する理解の仕方が、行政・学界により正当性を与えられつつ、より高次の普遍性・一般性を獲得してゆく過程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また、度重なる研究機関による「寝屋」の民俗に関する調査活動や、マス・メディアによる取材攻勢は、答志地区の人々に、答志地区の「寝屋」の民俗の「民俗」＝「伝統文化」としての価値とその希少性を繰り返し確認させてゆくことにもなったであろう。

こうした意味で、「寝屋」の民俗に対する「寝屋（子）制度」という呼称、そしてそれを「離島」の「漁村」における人々の濃密な人間関係形成の源泉であるとする理解の仕方は、外部社会と「寝屋」の民俗の担い手である答志地区の人々との間における、螺旋状の相互作用の結果として継承されてきたものであり、答志地区における「寝屋」の民俗をめぐるフォークロリズムも、その帰結として出現したと考えられるのである。

5. おわりに

以上、本報告では、日本の民俗学界におけるフォークロリズムをめぐる議論の動向について紹介した上で、答志島における若者宿－「寝屋子」の民俗の現在の状況とその成り立ちをフォークロリズムの視角においてとらえ、検討を加えてきた。

今回の報告では、答志地区の「寝屋」の民俗をめぐるフォークロリズムをいわば「言説」の面において検討を加えたものである。「寝屋」の民俗を、その担い手たる答志地区の人々が客体化・対象化して認識しているという、答志地区の「寝屋」の民俗をめぐるフォークロリズムが、「寝屋」の民俗をめぐる人々の現実の行為においてどのような変化をもたらしているのか、という問題について検討してゆくことを、報告者の以降の課題として設定したい。

また、韓国における民俗＝伝統文化の現在の状況を、フォークロリズムの視点にとらえてみたいというのが、現在における報告者の関心である。

【資料1】『日本民俗学』2003年11月「特集＜フォークロリズム＞」の構成

- 河野眞「フォークロリズムの生成風景－概念の原産地への探訪から」
- 八木康幸「フェイクロアとフォークロリズムについての覚え書き－アメリカ民俗学における議論を中心にして」
- 法橋量「ドイツにおけるフォークロリズムス議論のゆくえ－発露する分野と限界性」
- 岩崎竹彦「フォークロリズムからみた節分の巻き寿司」
- 青木俊也「昭和30年代生活展示とノスタルジアにみるフォークロリズム的状况」
- 森田真也「フォークロリズムとツーリズム－民俗学における観光研究」
- 川森博司「伝統文化産業とフォークロリズム－岩手県遠野市の場合」
- 加原奈穂子「地域アイデンティティ創出の核としての桃太郎－岡山県における桃太郎伝説の事例から」
- 香川雅信「郷土玩具のまなざし－趣味家たちの『郷土』－」
- 濱田琢司「民芸と民俗－審美的対象としての民俗文化－」
- 山田慎也「葬儀とフォークロリズム」
- 矢野敬一「ノスタルジー／フォークロリズム／ナショナリズム－写真家・童画家・熊谷元一の作品の受容をめぐる－」
- 川村清志「フォークロリズムとメディア表象－石川県門前町皆月の山王祭りを事例として－」
- 岩本通弥「フォークロリズムと文化ナショナリズム－現代日本の文化政策と連続性の希求－」

【資料2】答志漁業協同組合「寝屋子のご紹介」  
<http://www.osakanaikiiki.com/toushi/neyako.htm>

寝屋子制度はいつから始まったか判明しないが、百年以上前から続いている様です。一説では、海賊大名である九鬼嘉隆は舟の漕ぎ手をいざという時に集めやすかったからという説もある

この制度は、中学校を卒業した男の子が、両親の揃った家の一部屋を借りて5、6人ぐらいで寝泊りをさせてもらう制度です。日柄の良い日を選んで家具を運び、その日から家族同様に寝泊りします。その家を寝屋子といい、その子供達を寝屋子の子供といい、その家の親を寝屋親といいます。しかし寝屋子の子供達は、寝屋子で寝泊りするだけで日常の仕事は朝、自分の家に帰って仕事をして、夕食を食べてから寝屋子に集まってきます。寝屋親には、朝夕きちんと挨拶を交わし、集まった子供達はその日の漁の話や彼女の話などをして過ごします。

寝屋子の子供達が年頃になると、寝屋子同士は女の子の家に遊びに行き、彼女を選びます。結婚の話がまとまると、寝屋親は仲人となり正式に婚約します。結婚式は寝屋親は上座に座り、祝宴の盃をとります。そうして寝屋子の子供達は嫁さんをもらうとその日から寝屋子を出て、自分の家に戻ります。家に戻ることになっても、一度寝屋子を取った者同士は朋友会を組織して、生涯親交を結んで生活していくわけです。寝屋子は漁業の町、答志島を支える原動力です。寝屋子には答志という大きな共同体を作っている根源であり、答志漁協の団結の力の秘密は寝屋子制度にあるのです。

【資料3】答志漁業共同組合「海賊ストーリー」  
<http://www.osakanaikiiki.com/toushi/kaizoku.htm>

海賊大名、九鬼嘉隆は伊勢志摩半島一帯を支配していた頃、織田信長に見込まれ水軍の将として、信長、秀吉に仕えた。秀吉に仕えていた頃、加藤清正らと共に朝鮮にも出兵して水軍の将として名をはせた。

関ヶ原の戦いで、敵方についた実子、守隆と東西に分かれて戦った。東軍徳川勢に敗れ、この答志島に逃れ滞在していた時、家康に許しを得て迎えにきた実子、守隆を追ってがきたと勘違いして自害して果てた。

嘉隆の首は、家康の首実検のため京都伏見に送られ、胴は答志島に葬られた。その後、守隆の手によって首塚が建てられ、現在「首塚・胴塚」として答志島の和具地区の人達に大切に守られている。その首塚、胴塚は海に突き出た、築上山（つかげやま）という小高い山の上であり、太平洋や鳥羽湾を見守っている。

伊勢志摩半島一帯には、寝屋子制度というものがあった。これは若い衆が5人から多いところは10人くらい、よその家の一間を借りて寝起きしていた。一度共に寝屋子を取った若い衆は、生涯義兄弟の縁を結び、冠婚葬祭はもとより、何事があっても、すぐに駆けつけてくれる。一間を借りている家の親は、寝屋親といって、自分の親の言うことは聞かなくても、寝屋親の言うことは聞かなくては行けない。志摩半島一帯にあったこの寝屋子制度は、今は無くなりましたけれど、ただ一つこの答志島の答志地区に今もなお、その良き伝統は引き継がれています。

一説によると、九鬼水軍がいざと言う時に、舟のこぎ手を集めるのに寝屋子を回れば、早く人を集めることが出来たから、このような制度を作ったのが最初であるという。

詳しいことは[寝屋子のご紹介](#)をクリックして下さい。

【資料4】 答志島旅館組合「寝屋子」 (<http://www.ymd7.com/trk/tousi-iroha.htm>)

一定年齢に達した男子数名を預かり、世話をする制度で、以前は珍しい風習ではなかったが、現在では答志地区にその良き伝統が受け継がれている。寝屋子は食事の為に実家へ帰り、職業に従事するなどのほかは、寝屋で過ごし、共に寝屋子となった若い衆は生涯義兄弟の縁を結び、冠婚葬祭はもとより何事があってもすぐに駆け付けてくれる。この制度がいつから始まったかは、はっきりしないが、百年以上前から続き、一説には九鬼水軍がいざと言う時に船のこぎ手を集める際、寝屋子を回れば早く人を集められることができたとも言われる。昭和60年2月19日に市の無形民俗文化財に指定されました。

【資料5】 答志島旅館組合「答志島の概要」 (<http://www.ymd7.com/trk/tousi-iroha.htm>)

答志島の生活基盤は、漁業従事者が80%を占め、観光業・公務員等、間接的には住民の全てが漁業生産の影響を受けて生活しています。町内の行事は漁業組合・青年団等によって運営され住民が住民が強い結びつきを持って毎日の生活にいそしんでいる事は、離島としての特殊事情を克服して、独自の生活様式も生み出しています。その一つとして「寝屋子」という制度があり、昔と生活様式の全く変わった現代にも、その制度は多少の変化があったにせよ、脈々と受け継がれ現在は鳥羽市の有形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

【参考文献】

- ・ 岩本通弥1998 「『民俗』を对象とするから民俗学なのかーなぜ民俗学は『近代』を扱えなくなってしまうのか」 『日本民俗学』 215 「特集 シンポジウム『近代』と民俗」
- ・ 岩本通弥2003 「フォークロリズムと文化ナショナリズムー現代日本の文化政策と連続性の希求ー」 『日本民俗学』 236 「特集<フォークロリズム>」
- ・ 岩本通弥編2007 『ふるさと資源化と民俗学』 吉川弘文館
- ・ 岩本通弥2007 「現代日本の文化政策とその政治資源化ー『ふるさと資源化』とフォークロリズム」
- ・ 風見明2003 『相撲、国技となる』 大修館書店
- ・ 河野真2003 「フォークロリズムの生成風景ー概念の原産地への探訪からー」 『日本民俗学』 236 「特集<フォークロリズム>」
- ・ 志摩郷土会編1965 『鳥羽市に於ける寝屋制度』 鳥羽市教育委員会
- ・ 高木博志1997 『近代天皇制の文化史的研究』 校倉書房
- ・ 多仁照廣1984 『若者仲間の歴史』 財団法人・日本青年館

- 日本民俗学界編『日本民俗学』2003年11月「特集<フォークロリズム>」
- 船曳建夫2003『「日本人論」再考』日本放送出版会
- 宮本袈太郎編集代表1966『三重県志摩地方の民俗調査－鳥羽市答志島・志摩町和具・越賀－』立教大学博物館学講座
- 八木康幸2000「フォークロリズム」福田アジオ他編『日本民俗大事典』吉川弘文館
- 山下晋司1996『観光人類学』新曜社
- 山下晋二編2007『資源化する文化』（資源人類学02）弘文堂
- 山下伴郎1965「答志の若者組について」（昭和34年脱稿）志摩郷土会編『鳥羽市に於ける寢屋制度』鳥羽市教育委員会
- 山田慎也2003「葬儀とフォークロリズム」『日本民俗学』236「特集<フォークロリズム>」
- 立教大学博物館学講座・三重県立博物館・鳥羽市教育委員会編1964『三重県答志島の総合調査』
- 和歌森太郎編1965『志摩の民俗』吉川弘文館
- 宮前耕史2003「『寢屋制度』の誕生－鳥羽市答志の寢宿慣行をめぐる『民俗再帰的状况』の成立－」筑波大学大学院日本文化研究学際カリキュラム『日本文化研究』14
- 宮前耕史2004「『寢屋制度』の『現在』記述のための覚え書き－答志島・答志の寢宿慣行をめぐる『民俗再帰的状况』によせて－」筑波大学大学院日本文化研究学際カリキュラム『日本文化研究』15
- 宮前耕史2004「『若者制度』の誕生－地方改良運動期以降における政府青年団（体）施策と『若者組＝教育機関』説の発生－」筑波大学教育学会『筑波教育学研究』2
- 宮前耕史2005「民俗に関する言説の内面化－答志島・答志の寢宿慣行をめぐる『民俗再帰的状况』と言説としての『寢屋制度』－」筑波大学大学院日本文化研究学際カリキュラム『日本文化研究』16
- 宮前耕史2006「マス・メディアにおける答志島・答志の寢宿慣行に関する理解の特徴－新聞・雑誌記事を中心とした検討から－」筑波大学大学院人文社会科学研究科『歴史人類』34筑波大学大学院博士課程人文社会科学研究科歴史・人類学専攻

## 진 필 수(서울여대)

### 1. 현지연구(fieldwork) 방법론에 있어서 포크로리즘 시각의 중요성

토론자는 2003년 4월 - 2005년 8월 동안 오키나와(沖繩) 킨초(金武町)에서 미군기지외 오키나와 촌락공동체라는 주제로 현지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다. 자료수집의 과정에서 토론자는 현지연구자가 인터뷰를 통해 얻는 많은 정보들이 현지주민들의 고유한 민속지식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

종교인류학적 관점에서 오키나와의 전통문화를 이해할 때 핵심적 연구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이 우타키(ウタキ, 御嶽)라고 불리는 각 마을마다의 성역(聖域)이다. 킨초 주민들에게 우타키에 대해 물어 보면, 그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대개 평소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만 대답한다. 우타키에 대해 약간의 지식을 가진 노인들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나 귀신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신성한 곳이며 그 주위를 지날 때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킨초 주민들 중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우타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는 사람이 가끔씩 있다. 우타키는 자기 마을의 조상들이 처음 터를 잡은 마을의 발상지이며, 조상신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촌락제사가 행해지는 곳이었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를 확장시켜서 자기 마을의 오랜 역사를 나타내는 증거라며 자랑거리로 삼기도 한다.

킨초 교육위원회는 1983년 킨초지(金武町誌)라는 지역 민속지(民俗誌)를 발간한 바 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킨초 내 각 마을마다 민속지가 발간되고 있다. 우타키에 대한 킨초 주민들의 진술은 이러한 민속지에 적혀 있는 내용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벗어난 경우에는 구술자의 독창적인 윤색이 가미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지역 민속지 작성에 참여했던 향토사학자들과 노인 증언자들은 우타키와 지역사에 대해 비교적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속지 작성자들의 지식도 처음부터 체계화되어 있던 것이 아니어서, 민속지 내용을 직접 읽어보면 오키나와의 민속학자 및 전문가들의 지식체계와 구술자의 증언이 조합되거나 우타키와 관련된 지역사가 아예 대학의 전문연구자들에 의해 조사·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우타키에 대해 진술하는 킨초 주민들의 대부분은 지역 민속지에 나온 내용을 외우거나 윤색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이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이들의 진술은 그 내용의 진실성보다 왜 그 지식을 공부해서 외우고 어떻게 그 내용을 윤색하는가 하는 점을 분석할 때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분석에 필요한 관점이 바로 포크로리즘의 시각이 될 것이다. 포크로리즘은 현지연구에서 얻어지는 구술 자료의 성격을 이해해서 분류하고, 구술자들이 자기 민속(문화)에 대해 자성(reflection)하게 만드는 중층적 맥락과 자성의 과정을 거쳐 얻게 된 지식체계를 분석하는 데 큰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 2. 포크로리즘의 시각을 통한 민속학과 제반 사회과학 및 문화정책론의 소통가능성

어떤 문화의 행위자들이 자기 민속(문화)에 대해 자성하게 만드는 맥락과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

어 왔다. 포크로리즘은 자기 민속에 대한 자성과 새로운 의미 부여가 주로 정치경제적 힘과 동기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관광자원의 개발, 지역 활성화 및 지역정체성의 창출, 근현대 민족주의 및 국가 전통의 창출, 각종 행정단체의 문화재 지정 등을 통해 많은 행위자들이 타자의 시선과 필요에 맞추어 자기 민속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점을 포크로리즘은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전승주체가 사라져 가거나 전승주체가 불명확해진 민속 요소 및 물질문화가 포크로리즘 시각의 분석에서 주요한 소재가 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포크로리즘은 어떤 민속요소에 대해 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어떤 민속요소가 왜 새롭게 부활되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정치경제적 요인과 문화정책의 요인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포크로리즘은 민속 현상의 기술(description)에 치중해온 민속학 연구가 다른 사회과학 분야와 연구 성과를 교환하고, 문화정책에 있어 좀 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포크로리즘은 민속 연구가 과거로부터 잔존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과거의 것을 통해 현재를 비추어보는 연구임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

### 3. 현대 한국 민속연구에서 포크로리즘 시각의 유용성

발표문 서론에서 제시된 포크로리즘의 일반론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토론자가 보기에 포크로리즘은 전승주체가 불명확해지거나 소위 사라져가는 민속 요소의 재생 및 부활 현상을 분석하는 데 더 큰 유용성을 갖는 것 같다. 바꾸어 말해 이 말은 전통문화의 전승주체의 문화적 자율성이 약한 조건에서 포크로리즘의 분석은 더 큰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그리고 새마을운동과 같은 문화제국주의적 국가정책으로 인해 현대 한국에서도 농촌 지역의 과소화와 전통문화의 소멸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2008년 5월 한국문화인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참조).

현대 한국에서 나타나는 전통문화의 소멸 위기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국가정책, 예를 들어 유·무형 문화재 지정을 통해 오히려 가중된 측면도 있다는 점이 최근에 지적되고 있다. 즉 정부가 특정의 전통문화 계승자에 대해서만 정통성을 공인하고 원형 계승의 명목으로 민속을 박제화함으로써 농촌지역 다양한 민속의 전승주체들의 자발성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전통문화를 관광상품화하는 과정에서도 정부나 지자체의 관 주도형 관광자원 개발이 민간의 문화전승 메카니즘과 조화롭게 연결되지 않는 못했던 것 같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지방자치체 중심의 지역활성화 노력이 전통문화 내지 사라져가는 민속의 부활에 중요한 동력으로 등장하였다. 전국의 지방자치체들은 재정자립도와 주민생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음식이나 축제 등의 민속 요소를 자기 지역의 브랜드로 개발하고 관광산업 및 미디어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2000년대 한국의 지역활성화는 지방분권의 전통이 강했던 일본과는 또 다른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민속 요소의 부활 및 재생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포크로리즘은 현대 한국의 민속연구를 계승, 소멸, 부활이라는 단순한 현상 인식을 넘어 정부 및 지방자치체의 문화정책, 관광산업, 미디어산업 등과 연관된 민속의 역동적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단계로 발전시키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민속 현상을 통해 일본과는 또 다른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밝혀 주리라 생각된다. 토론자의 경험으로는 전라남도 진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례문화의 관광상품화(2007년 제11회 진도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참조)나 강원도 영월의 생태박물관 구축 계획(2005년 11월 심포지움 자료집 참조) 등 흥미로운 사례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 4. 포크로리즘에 담긴 오리엔탈리즘적 요소의 문제

발표문의 본론 말미에서 포크로리즘은 寢屋의 민속에 대한 외부사회의 인식과 행위주체의 자기 인식이 나선형으로 상호작용해 가는 양상을 분석하는 일종의 문화변동론임이 주장되고 있다. 본론 내용에서는 寢屋에 대한 외부사회의 인식이 행위주체(答地島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내재화되고 실제로 전환된 양상(寢屋제도라는 명칭, 어촌과 농밀한 인간관계의 원천이라는 자기인식 등)이 서술되고 있다. 이 내용은 寢屋의 민속에 대한 答地島 사람들의 담론(언설)에 대한 분석이며, 寢屋의 민속이 실행되는 양상에 대한 분석은 이후의 연구 과제라는 점이 결론에서 제시되어 있다.

포크로리즘의 분석이 담론의 수준에 그칠 경우에는 오리엔탈리즘의 한계를 답습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오리엔탈리즘의 중요한 문제는 행위자(동양인)들의 의미체계를 블랙홀로 남겨놓은 채 그들을 타자화시키는 권력(서양인)의 인식체계가 계속해서 재생산되어 결국에는 타자화된 행위자들의 실재까지 바꾸어가는 점이다. 寢屋의 민속에 대한 외부사회의 인식이 비록 억압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검토하지 않은 채 행정, 학계, 미디어를 통해 생산된 지식체계의 담론이 행위주체(答地島 사람들)에게 내재화되었다는 점만을 확인하는 것은 행위주체(答地島 사람들)를 타자화시키는 외부사회의 담론에 또 하나의 버전을 보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포크로리즘과 문화의 객체화는 기본적으로 권력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개념들은 주변부 사회의 주민들이 행정, 자본, 지식의 권력에 종속되는 측면을 전제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주변부 사회의 주민들도 자기 민속(생활)에 대한 인식을 외부사회의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리라 생각하기는 힘들며, 외부인들에게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寢屋의 민속이 실행되는 양상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제시될 때 포크로리즘은 단순히 외부사회의 권력 작용만을 포착하는 시각이 아니라, 행위자들의 문화적 자율성까지 포착하여 나선형적 문화변동을 역동적으로 설명하는 시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대일본의 아소비(遊び)문화와 도시**

류 정 선(인하공전 교수)

지정토론 - 김경희(동양공전 교수)

## 고대 일본의 아소비 (遊び) 문화와 도시

류 정 선(인하공전)

### 1. 서론

아소비(遊び)라는 어휘는 오늘날 娛樂를 목적으로 한 유희를 지칭하는 단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遊戯史 연구의 관점에서 고찰되었다.

또한, 아소비에 관한 고찰은 「아소비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언급한 본질론과, 「왜 인간을 아소비라는 행위를 하는 건가」(目的論的説明과 發生論的説明)<sup>1)</sup>라는 존재이유론을 묻는 고찰이 사회학적 측면에서, 혹은 민속학적 측면에서 고찰되어 왔다.

그렇다면, 고대 일본에 있어서의 ‘아소비’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아소비’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하다. 고대문헌인 『古事記』 『日本書紀』 『風土記』 『万葉集』, 그리고 物語 등의 헤이안조 작품 속에서 ‘아소비’의 용례를 찾아보면 그 의미뿐만 아니라, ‘아소비’의 형태, 목적, 그 기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시대의 ‘아소비’ 형태와 의미 변화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소비’는 심리적 측면에서 「마음을 위로 하고 즐기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歌舞管弦이나 狩獵, 行樂, 酒宴, 遊戯 등으로 형상화되고, 좀 더 폭넓게는 「神遊び, 즉 神樂을 연주하는 것」 「勝負를 건주는 것」 「아이들이나 동물들이 한가하게 돌아다니는 것」 「舟遊び를 하는 것」 「宴會를 하는 것」 그리고 「遊女」를 의미하기도 한다<sup>2)</sup>.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고대문학작품 속에서 나타난 ‘아소비’의 양상과 기능을 ‘聖의 아소비’와 ‘俗의 아소비’의 관점으로 분석해 보고, 도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아소비’의 주술성과 마쓰리

원시시대 ‘아소비’는 동물의 움직임을 흉내 낸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가 발전하면서 비로소 ‘아소비’를 무언가를 통해 표현하려는 관념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형식의 개념조차 없던 ‘아소비’가 형식화 되고, 그 가운데 「秩序, 緊張, 움직임, 즐거움, 無我夢中」<sup>3)</sup>의 요소를 지닌 ‘아소비’가 가장 신성한 표현으로 표출되기 시작한다. 즉, 그것은 聖스러운 ‘아소비’로 祝祭나 儀禮등의 신앙적인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쾌락의 ‘아소비’와는 달리, 호이징가

1) 尼ヶ崎彬 「日本における遊びの思想」 『日本の美学15』 1990年, 10月

2) 阿部好臣 「「遊び空間」六条院の組成—大人のあそび 子供のあそび」 『源氏研究』 (第4号) 1999年 참조

3) 吉田比呂子 「「遊」(あそび、あそぶ)の意味とその展開—仙郷の表現と異世界の表現」 (国語学叢史研究会 『国語学叢史の研究 14』 和泉書院 1994年

(J.Huizinga)가 지적했듯이 「(진지한 아소비(まじめな遊び))」 = 「(신들의 아소비) 神の遊び」의 성격을 띤다. 즉, 고대의 종교적 신성한 행위는 ‘아소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아소비’의 공간은 성스러운 공간과 일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견해이다. 그렇다면 고대 일본문학 속에 나타난 ‘聖의 아소비’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먼저, 문헌 속에서 「아소비(遊び)」라는 語源을 살펴보면 『古事記』에 몇 개의 용례가 보이는데, 각각 음악과 遊獵의 의미로 ‘아소비’가 지칭되었음을 알 수 있다.

仲哀天皇條 「恐し 我が天皇 猶其の大御琴を あそばせ (阿蘇婆勢)」 (『日本古典大系』 229)

雄略天皇條 「やすみしし我が大君の 遊ばし (阿蘇婆志期) 猪の病猪の唸き畏み」

(『日本古典大系』 315)

여기서 彈琴은 神託을 받는 행위로, 遊獵 또한 주술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折口信夫<sup>4)</sup>는 古代 「아소비」의 기능을 鎮魂呪術의 한 형태로 언급하면서, 舞踊을 행하는 것, 歌을 부르는 것, 樂器을 연주하는 것, 狩獵을 행하는 것 등을 모두 鎮魂의 ‘아소비’로써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古代信仰에 있어서의 ‘아소비’의 개념은 후에 점차 神事を 벗어난 ‘宴의 아소비’로써 확대되어 간다.

또한, 「上代에서 ‘아소비’는 異世界를 모방하고 연출하는 것 이었지만, 시점의 변화에 따라 異世界로 부터의 神이나 死者의 來訪, 帰還, 그리고 往來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어, 神이나 死者들의 모습을 모방하는 巫女등의 행위」로 표출되었다<sup>5)</sup>.

『古事記』에서 天宇受売가 天岩戸 앞에서 행하는 舞踊을 「樂(あそび)」로 칭하고 있고, 天若日子가 急死했을때 그의 처와 아버지가 원통하고 슬픈 마음을 다음과 같이 八日間の ‘아소비(遊び)」로 죽은 자의 넋을 부르기 위해 歌舞와 音樂을 행하고 있다.

\* 『古事記』 「天の石屋」

天照大御神、怪しと以為ひ 天の石屋の戸を細く開きて、内に告らしく、「吾が隠り坐す因りて、天の原自ら暗く、亦、葦原中国も皆闇けむと以為ふに、何の由にか、天宇受売は樂<sup>あそび</sup>を為、また、八百万の神は諸咲ふ」とのらしき。爾くして、天宇受売が白して言はく、「汝が命に益しき貴き神の坐すが故に、歡喜び咲ひ樂<sup>あそび</sup>ふ」 『新全集、p.63』

\* (上卷、忍穂耳命と迺々芸命)

乃ち其処に、喪屋を作りて、河鴈をきさり持と為、鷺を掃持と為、翠鳥を御食人と為し、雀を確女と為、雉を哭女と為、如比行ひ定めて、日八日夜八夜以て、遊<sup>あそび</sup>びき。 『新全集、p.104』

이것들은 가무음악에 의한 진혼주술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고대의 ‘아소비’는 인간뿐만 아니라 신이나 영혼을 가무음악에 의해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고, 그 주술적 힘을 발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鎮魂의 ‘아소비’는 ‘神遊び’의 기능을 지니는 神事の 형태로 표출된다. 따라서, 신화 속에서 보이는 天宇受売의 「樂」은 후에 「鎮魂祭」의 기원이 되는 마쓰리(祭)의

4)遊びは意味が廣くて、舞ひも勿論、その中に入れて考えることが出来る。鎮魂呪術をすべてあそびと言ふので、舞ひを舞ふこと、歌をうたふ事、樂器を奏すること、狩場で矢を放つて神靈の憑る鳥獸を獲ること、皆あそびである。(折口信夫「古代演劇論」『折口信夫全集(第十七卷)』中央公論社、1956年)

5)吉田比呂子「『遊』(あそび、あそぶ)の意味とその展開—仙郷の表現と異世界の表現」(國語語彙史研究會編『國語語彙史の研究 14』和泉書院、1994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 장례의례 절차 가운데 시신을 임시적으로 안치해 두던 모가리(もがり:빈소)의 형식도 「鎮魂際」와 같은 구조의 마쓰리로 볼 수 있다.

『伊勢物語』 45段의 「行く蜚」의 이야기에서 한 남자에게 연정을 몰래 품던 여자가 상사병에 걸려 죽자, 그 남자는 빈소에 들어가 ‘아소비’를 하는 행위는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는 관현인 것이다.

むかし、男ありけり。人のむすめのかしづく、いかでこの男にもいはむと思ひけり。うちいでむことかたくやありけむ、もの病みになりて、死ぬべき時に「かくこそ思ひしか」といひけるを、親、聞きつけて、泣く泣くつげたりければ、まどひ来たりけれど、死にければ、つれづれとこもりをりけり。時は六月のつごもり、いと暑きころほひに、宵は遊びをりて、夜ふけて、やや涼しい風吹きける。蜚たかく飛びあがる。

(新全集、153)

이렇듯, ‘아소비’는 본래, 「다마후리(魂振り)」 즉 鎮魂을 목적으로 하는 주술적인 행위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또한 중이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수행하는 행각인 遊行 또한 본래 神의 巡行으로, 「あそびあるく」 행위를 바탕으로 한 성스러운 종교적 ‘아소비’로 포함시킬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아소비의 주술적 기능은 마쓰리(祭)의 형태로 발전된다. 여러 신들을 모시는 진혼나 농경의 풍작기원 등을 목적으로, 고대 신도의 성스러운 의식에서 유래한 마쓰리는 二元的世界를 연결하는 일종의 주술적 ‘아소비’라 할 수 있다. 일본 고대에서 『古事記』 『日本書紀』 『風土記』 및 『万葉集』의 용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祭의 공간으로써의 아소비는 魂의 아소비」로 「祭는 아소비의 生成과 持続的인 場」<sup>6)</sup>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祭의 중핵을 형성하는 ‘아소비’에는 신에게 올리는 神樂처럼, 음악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소비’가 마쓰리라는 공간에서 분리되어 가는 것은 ‘아소비’의 새로운 전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모습은 野遊び, 舟遊び, 宴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고대 종교적 기능이 강한 고대 ‘아소비’가 점차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구현됨에 따라 饗宴으로써의 ‘아소비’는 節会나 酒宴의 형식을 띠게 되고, 宴는 祭의 不可欠의 요소로 정착한다.

## 2. 음악과 연회의 ‘아소비’

고대 ‘아소비’의 語義라 하면 우선 일반적으로 詩歌管絃이 그 중심이며, 그 특징은 日常에 대한 非日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음악과 같은 芸道적 성격을 지닌 ‘아소비’는 幻想으로 同化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고, 그 공간은 이세계를 추구하고 있어 성스러운 기능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양상에 관해 松井健児氏は 「芸道の 일면을 담당하는 ‘아소비’란 역시 신과의 교감을 의미하는 「神遊び」의 성질을 지니고 있고, 그것은 「비일상적인 演技에 의해 異界의 것과 정신적으로 교감」<sup>7)</sup>하는 행위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소비’의 성격에 있어 「연기하는 것(演じること)」의 역할을 중시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연기하는 것이란 ‘아소비’의 성격에 있어 모방의 요소에 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악과 연회의 ‘아소비’는 「忘我’熱中’陶酔’愉悅」<sup>8)</sup>의 심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異世界 공간을 연출하는 장치로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

6) 国安洋 「日本古代における「遊び」」 『横浜国立大学教育紀要26』 1986年、12月.

7) 松井健児 「『源氏物語』の蹴鞠の庭一六条院東南の町の空間と柏木」 『文学空間としての平安京 論集平安文学1』 勉誠社 1994年 10月.

8) 木村紀子 「古代日本語の「あそび」」 『奈良大学紀要一三』 1984年、12月

다. 즉, 음악이 흐르는 연회의 '아소비'는, 인간의 세계를 묘사한 物語世界の 내부에서 일상을 벗어난 異郷을 지향하고 있으며, 物語 또한 허구적 요소를 지닌 일종의 '아소비'로 궁중여인들에게 즐겨졌던 것이다. 따라서 物語 문학에 있어서의 음악과 연회의 '아소비'는 物語의 표현구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하게 묘사된다. 그렇다면 物語에 있어서의 '아소비'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中川正美는 '아소부(あそぶ)'가 음악을 연주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은 平安中期의 作り物語와 그 유형을 이어받은 後期物語에 한정되어진 특징이고, 「あそぶ あそび」를 음악에 사용한 것은 文学에서의 요청으로, 物語에서는 연회장면의 음악에 한해서 「あそぶ」이라고 표현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sup>9)</sup>.

그 가운데 『宇津保物語』는 琴의 소리에 의해 天變地異를 일으키는 주술적 기능을 지닌 '聖의 아소비' 뿐만 아니라 「祝祭의 문학」으로 언급될 정도로 年中行事(五節 相撲의 還饗 菊의 宴, 神泉苑의 紅葉賀 등)을 중심으로 하는 宴의 場에 있어서 '아소비'의 양상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또한 『源氏物語』도 이러한 음악적 '아소비'의 양상은 보다 다양해지는데<sup>10)</sup>, 이러한 宮廷을 무대로 한 음악과 연회의 '아소비'는 정치적 권력을 상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권력을 형성하는 공간이 '아소비'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宴의 공간에서의 '아소비'는 정치세계의 '아소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아소비'의 기능에 대해, 松井健兒氏は 본래 私的이었던 음악의 '아소비'가 公的인 요소를 지니게 된 것을 「아소비」에 있어서의 「公·私의 二重性」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연회의 「아소비」의 場에 대해 「남성세계에 있어서 권력형성과 관련된 정치적인 공간으로써 기능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優美한 사랑의 공간을 형성하는 記号로도 생성되어 있다」<sup>11)</sup>고 지적하고 있다.

『源氏物語』에서 源氏が 개최한 若菜下卷의 「女樂」의 향연은 왕권의 상징임과 동시에 음악의 미학을 피로하는 物語의 장치로써 작용하고 있고, 六條院은 음악공간으로써 비교할 수 없는 異世界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헤이안 시대의 연회의 '아소비'는 권력 작용과의 관련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연회의 '아소비'는 궁정을 중심으로 하는 都市文化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소비'의 공간과 都市文化와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儀式이나 行事 등의 祝祭의 時空은 '아소비'의 場이다. 『源氏物語』나 『宇津保物語』를 祝祭나 都市의 시좌에서 해석하면, 음악 및 의식의 묘사가 강조되어 있는 두 작품의 무대는 平安京라는 도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源氏物語』의 六條院은 헤이안 시대의 도시문화의 특징인 '雅'의 공간의 극치이자 理想 공간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六條院은 「살아 있는 부처의 나라(生ける仏の御国)」라는 표현에서도 알다시피 淨土世界에도 통하는 理想空間이자, '아소비'를 통해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설정 되어 있다. 물론, 『源氏物語』의 경우, 작품 안에 나타난 異郷性은 北山, 須磨, 明石, 宇治 등의 都以外の 공간을 異郷的인 공간으로써 설정하고 있지만, 특히, 都의 내부인 六條院은 異郷의 환상을 지향하는 '아소비'의 場으로써 장치되어 있는 것이다.

9) 中川正美 『源氏物語と音楽』 和泉書院 1987年.

10) 鎌倉時代 이후 '仏教精神나 武士道精神' 등의 영향을 받아 '音樂은 소위 아소비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修道의 엄격한 면을 갖게 되고, 遊戯로서의 音樂에서 芸道로서의 音樂으로 변천한 것이다. 그리고 후에 江戸時代の 庶民音樂의 흥행과 함께 아소비적 요소도 다시 부활되는데 日本音樂史에서 이 두 가지 요소는 중요한 것이다.(吉川英史 「音樂用語に現れた日本人の音樂觀」 『日本音樂の性格』 音樂之友社, 1979年).

11) 松井健兒 「宮廷文化と遊びわざ」 『源氏物語の生活世界』 翰林書房, 2000年

또한 『宇津保物語』의 무대로 설정 되어 있는 神泉苑도 자연풍경을 모방하여 커다란 산이나 연못을 배치하여 離宮을 조영, 그곳으로 천황이 行幸를 행하고 신하들을 초대하여 소위 ‘君臣和樂의 宴’을 개최한 異세계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음악이 울리는 「아소비는 일상생활과 다른 비일상적 공간 또는 시간, 소위 異界에 步入하는」<sup>12)</sup>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異鄉論적 관점에서 실제 존재했던 헤이안 시대의 朱雀院과 神泉苑는 天皇의 ‘아소비’의 공간이자 비일상적인 공간으로써의 異世界를 지향하고 있고, 그 ‘아소비’의 공간은 권력을 표상하는 공간으로써의 기능도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헤이안시대의 음악의 ‘아소비’가 궁중에서 열리는 관현 놀이로, 대부분 천황을 포함한 당산관들(展上人)의 御遊로 행하여 졌듯이, 중세의 ‘아소비’ 또한 정치와 분리된 오락이나 여흥의 성격이기보다, 대부분 왕권과의 긴장감을 지닌 「왕권의 퍼포먼스」<sup>13)</sup>와 관련이 깊다. 이러한 중세왕권과 ‘아소비’와의 관계는 後鳥羽院을 중심으로 한 歌舞音曲의 ‘아소비’로 나타나는데, 그 시공간 또한 「晴」와 「穢」와 연결하는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음악의 ‘아소비’는 전통예능 문화인 노(能), 분라쿠(文樂), 가부키(歌舞伎), 교겐(狂言) 등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극예술의 미적 승화를 한층 부각시킨다.

### 3. 유희적 ‘아소비’

‘아소비’의 행위를 사회학적으로 「실제 생활의 강제나 구속을 벗어난 자유스럽고 주체적인 활동이고, 또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서 행하는 自己完結的이고 비생산적인 활동이다」<sup>14)</sup>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개념은 ‘俗의 아소비’인 ‘유희적 아소비’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어느 정도 구속력 있는 ‘聖의 아소비’와는 다른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호이징가(J.Huizinga)가 ‘聖’과 ‘遊’를 동일적 시점 파악을 한 것과는 달리, 로제 카유아(Roger Caillois)는 「聖-俗-遊」의 三元論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두드러지게 자유스런 활동인 아소비는 순수하게 세속적인 것이다」<sup>15)</sup> 즉, ‘아소비’는 오히려 俗보다도 좀 더 세속적이고, 좀 더 자유스럽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여기서 호이징가의 ‘聖’과의 ‘遊’의 동일적 시점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주술적인 아소비를 의미한다면, ‘俗의 아소비’는 ‘유희적 아소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카유아는 호이징가가 목살했던 도박이나 내기와 같은 「非文化的」아소비를 「①자유 ②실생활외의 허구 ③沒利害 ④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 ⑤특정 규칙의 지배」<sup>16)</sup>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항목에 근거하면 ‘俗의 아소비’는 ‘유희적 아소비’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고대 일본의 유희라 하면 詩歌管弦의 ‘아소비’를 제외한 귀족들이 극히 일상적인 오락이나 승부를 거는 내기(勝負事), 장남감인 遊具 등의 종류를 일컫는데, 거기에는 ‘아소비’의 동기로써 競争과 模擬를 언급할 수가 있다.

『枕草子』의 清少納言은 「二〇二 놀이는(遊びわざは)의 章段에서 「遊びわざは、小弓。碁。さまあしけれど、鞠もをかし」(p.337)로 열거하고 있고, 한가함을 달래는 것에 「つれづれなぐさむもの、碁、双六、物語、三つ四つのちごの、物ををかしく言ふ」(p.254)와 같이 碁, 双六, 物語 등을 들고 있다.

12) 高橋六二 「遊びのことば」(古橋信孝他編 『古代文学講座7 ことばの神話学』 勉誠社 1994年)

13) 細川涼一 「中世のあそび」 『岩波講座 日本通史 第9巻 中世3』 岩波書店 1994年 p.352

14) 井上俊 『遊びと文化—風俗社会学ノート』 アカデミア出版会. 1979年 p.142

15) R カイヨウ 『遊びと人間』(多田道太郎 塚崎幹夫訳 講談社 1990年) p.374

16) 주 12)와 同書.

또한 『源氏物語』에서의 유희는 碁, 双六, 雛遊び, 物語 그림의 감상, 物合, 蹴鞠 등이 작품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臨時宴遊」 유희인 蹴鞠는 『枕草子』에서 재미는 있지만 체신이 안서는 공놀이로 인식되었고, 『源氏物語』에서도 「난잡하고 질서가 없는(乱れがはしきもの)」 놀이로 취급되었다<sup>17)</sup>. 이것들은 후궁들이 거처하는 궁중에서 즐기는 ‘유희적 아소비’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찾기 놀이(物合)는 『枕草子』에서 「기쁜 것(うれしきもの)」 가운데 하나로, 「物合せ、何くれといどむ事に勝ちたる、いかでかはうれしからざらむ」(新全集、389)와 같이 다른 사람과 경쟁했을 때 이기는 기쁨에 대한 언급은 놀이의 성질을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物合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좌우방향으로 나누어서, 사물들을 모아, 우열을 가리는 유희의 총칭으로 그 다양한 종류는 『平安朝歌合大成』에서도 그 수는 (歌合, 香合, 貝合歌合, 詩合, 植物, 動物, 調度品 등) 20개 이상을 넘고 있다. 그 외의 실외 유희로는 競射, 競馬, 小弓, 相撲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렇듯 문헌에서 보이는 당시의 ‘아소비’의 세계는 시대의 상황과 유행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세에서는 遊芸人が 歌舞音樂의 예능에 빠진 것이나, 能樂에서 遊芸에 열중하는 것을 遊狂, 遊이라고도 칭하였으며, 이것은 歌舞音曲의 예능에 중사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했다. 즉, 歌舞音樂을 직업으로 하는 遊女, 白拍子, 巫女와 그들의 예능을 ‘아소비’로 불렀던 것이다. 특히, 『万葉集』부터 「遊行女婦」로 불리었던 遊女는 『源氏物語』(落標卷)<sup>18)</sup>안에서도 一例가 보이듯이 「遊女」로 표기되어 「あそび」로 칭하였으며, 『更級日記』에서도 「遊女三人、いづくよろともなく出で来たり」와 같이 遊女를 「あそび」로 칭하였다. 또한, 歌舞를 본업으로써 하고 있던 遊女를 『和名抄』에서는 「遊行女兒, 宇加礼女, 又云ふ阿曾比女」로 다양하게 지칭하고 있는데, 그것은 遊女史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梁塵秘抄』359番의 今様에는, 유녀가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자 절로 흥겨워진다고 하는 유녀의 모습에 ‘유희적 아소비’의 본질적 기능이 그대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遊びをせんとや生れけむ 戯れせんとや生れけん 遊ぶ子供の声 聞けば 我が身さへこそ揺るがるれ」(新全集、281)

일반적으로 ‘아소비’가 아이들의 成長儀禮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柳田国男(『こども風土記』) 등의 아동 유희를 둘러싼 연구가 있듯이, 「大人の 아소비」 함께 ‘아소비’의 종목을 둘러싼 항목열거적인 서술은 遊戯史적 입장에서 자주 거론되어 왔다. 이러한 유희적 아소비는 ‘聖스러운 아소비’와는 달리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俗스러운 아소비’로 규정지을 수가 있다.

#### 4. 결론

고대 도시는 ‘聖’인 영역과 ‘俗’인 영역이 같이 공존하는 일종의 생활공간이며, 그것은 고대로 올라 갈수록 왕권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러한 공간에는 ‘聖의 아소비’와 ‘俗의 아소비’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것은 ‘아소비’와 도시공간과의 관련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대 문학 속에서도 주술적인 성격을 지닌 ‘聖의 아소비’와, 異世界를 지향하고 있는

17) 『源氏物語』의 遊戯에 대해서는 川名淳子 「源氏物語の遊戯」(『美の世界 雅の継承』(源氏物語講座7) 勉誠社 1992年) 참조.

18) 「遊女どもの集ひ参れる、上達部と聞こゆれど若やかに事好ましげなるは、みな目とどめたまふべかめり」(『新全集』、落標卷 p.307)

음악의 연회, 그리고, 유희적 기능을 지닌 '속의 아소비' 는 그 시대의 문화를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고대신화의 주된 무대가 되고 있는 성스러운 공간에는 주술적 아소비가, 헤이안 시대의 宮廷文學 속에는 정치적 권력을 상징하는 연회의 아소비에는 「花の都」 라는 이상공간을 지향하고 있으며, '유희적 아소비' 는 일상생활 속의 심리적 자유와 여유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헤이안 시대 도시공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花の都」 에서의 '아소비' 는 '미야비(雅)' 로 대변되는 심상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호이징가 (Huizinga) 가 “문화는 아소비의 형식가운데에서 발생하고, 비로소 문화는 활용되었다(文化は遊びの形式の中で発生し、はじめのうち、文化は遊ばれた)<sup>19)</sup>라고 지적한 것은 대부분의 문화의 싹이 아소비'로써 활용되어 졌다는 시각이다. 이것은 예도의 '아소비'인 그림이나 和歌, 物語가 헤이안시대의 문화를 대변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아소비' 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그 시대를 대변하는 문화를 새롭게 창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시대의 추이에 따라 변형되고 좀 더 확대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학적 측면이나 민속학적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문화를 읽는 코드로써 조명해야할 과제라 할 수 있겠다.

19) Huizinga 『ホモ・ルーレーデンス(Homo ludens)』 (Huizinga全集 第一卷 里見元一郎訳' 1971年 河出書房新社版)에 수록 된 것을 (西村清和, 『遊びの現象学』 勤草書房 1990年 p.15) 에서 재인용. 'Homo ludens란 현인류를 유희의 인간으로 규정, 놀이가 문화의 한부분이 아니라 놀이에서 문화가 탄생되었으며 사람들은 점점 즐거운 여가생활을 중요시 한다라는 이론이다.

## 김 경 희(동양공전 교수)

본 발표는 일본의 고대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아소비’의 기능과 양상을 ‘聖의 아소비’와 ‘俗의 아소비’의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한 고찰로서, ‘聖의 아소비’의 기능에 마쓰리를 포함한 주술적 아소비의 양상을, 음악과 연회의 아소비에 있어서 異世界の 추구하고 정치적 권력 양상을, 그리고, ‘俗의 아소비’의 기능에 있어서 ‘유희적 아소비’의 양상을 살펴본 연구이다.

## 질의:

1. 본 고찰에서 아소비의 기능을 ‘聖의 아소비’와 ‘俗의 아소비’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음악의 아소비와 연회는 어떠한 관점에서 분석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2. p.5의 유희적 아소비에서 호이징가(J.Huizingga)가 ‘聖’과 ‘遊’를 동일 시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로제 카유아(Roger Caillois)는 「聖-俗-遊」의 三元論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여기서 로제 카유아(Roger Caillois)가 말하는 「聖-俗-遊」의 三元論에 대하여 부가 설명이 필요함.
3. p.2 『古事記』에서 「樂」을 ‘あそび’로 표기하여, 樂과 遊び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헤이안 시대에 들어와 음악을 칭하는 「樂」과 「遊び」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p.6의 遊女로 표기하고 ‘あそび’로 칭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万葉集』에서 나타난 「遊行女兒」와 근세시대의 遊廓에 있던 遊女와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요함.



## 일본의 중·근세도시문화와 책의 유통

- 松本眞輔(경희대 교수)

지정토론 - 이시준(숭실대 교수)

## 일본의 중근세도시문화와 책의 유통

松本真輔(경희대)

### 1. 들어가며

본고는 책의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필사본을 둘러싼 책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문화를 생각하려고 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는 서지학적 연구를 둘러싼 필자의 개인적인 체험에 있다. 필자의 연구 분야는 일본 중세의 고전이다. 고전 연구라는 것은 내용 분석은 물론이고 그것을 하기 전에 서지학적 연구도 중요한 활동이 된다. 현대인도 해독할 수 있는 활자본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사고를 고찰하는 작업 이외에, 그러한 내용이 기록된 종지와 먹, 그리고 그것들을 실로 묶은 책 자체에 관한 분석이 불가결하다. 따라서 고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불가피하게 서지학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한 움직임은 특히 근년에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한 상황이 나타난 큰 이유는 활자화 된 문헌이 이미 수많은 연구자에 의해서 분석되어 버려서 새로운 「발견」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 공개의 진전과 촬영기기의 진보라는 측면도 이런 상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로운 발견」을 지상 목적으로 삼는 「학술 연구」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실적을 올리고 싶으면 「아무도 손대지 않은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기 마련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텍스트 데이터 공개가 진행되어 있다는 현실이다. 이것에 의해 「아마추어」이라고 해도 간단하게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었다. 「분석력」이 뛰어난 「아마추어」가 「독해」에 있어 「전문가」를 능가할 수 있고나 이미 능가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가 그 실력을 보이고 싶을 경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료를 파내는 것 이외에 갈 길이 없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근세 이전의 문헌에 관해서는 문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崩し字 흘려서 쓴 글자를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라는 「벽」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벽」이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근대의 경우 편지 독해를 제외하고 자료를 「읽을 수 있는」 인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더욱 더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벽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것이 연구자를 신출 자료 찾기로 향하게 하는 큰 동기가 되는 것인데, 새로운 자료(혹은 데이터)에 의거해서 새로운 지견을 얻어 가는 연구 수법은 오히려 학술에서는 상식적인 방향일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국내는 물론, 재외 자료의 목록 정비나 귀중본의 영인 간행 등, 서지학적인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소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신출자료가 없으면 논문 쓰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연구 대상이 일본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책뿐만 아니라 해외자료까지 확대되어간다. 당연히 그 대상국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필자를 포함해서 많은 연구자가 한국에 있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도서관 등 고전열람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럴 때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연구자가 가진 관심의 방향성이다. 일본의 연구자, 특히 중세 이전의 서적을 연구하는 사람은 대체로 인쇄물인 판본(혹은 활자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희박하며, 그 대신에 필사본을 보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하다. 왜냐하면 고대부터 중세까지의 고전을 연

구하는 사람에게는, 「사본」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고전을 읽을 때 이용해야 할 「底本(저본)」은 기본적으로 필사본이다. 그리고 「본문」을 작성할 때 원래의 형태를 복원할 수 있도록 복수의 전래된 책들을 참조하고 자구의 차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런 연구를 할 경우 복제품인 판본은 전래된 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해서 별로 중요시되지 않는다.

일본 서지학에는 인쇄된 서적에 관한 많은 연구도 있기는 하지만, 그 전단계로 필사본에 관한 광범위한 접근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橋本不美男 『原典をめざして—古典文学のための書誌』(笠間書院 一九七四年七月)과 같은 연구 방법, 즉 필사본을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원본(복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성격이 강하다(그 결과 예를 들어 『源氏物語』의 경우처럼 가마쿠라 시대에 행해진 교정 때문에 원본에 되돌아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알게 된 사례도 있다).

단적으로 일본은 사본으로 전해지고 있는 책이 쓸데없이 많다. 때문에 異本(이본)도 많고, 교합 작업을 하면서 복잡하게 나타나는 자구의 변천을 가지고 「원전」을 복원하고 싶어지는 유흥을 자극한다.

이것은 한국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왜 일본에서는 이렇게 필사본이 많은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부각시킨다. 일본에 있어도 五山版(오산판) 春日版(하루판) 高野版(고노판) 등 중세 단계에서 서적의 인쇄는 행해지고 있었는데, 그 대부분은 불교에 관한 책이나 한문 서적이었다. 다양한 장르의 서적이 인쇄물로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근세에 들어가고 나서이다. 인쇄의 보급이 늦어진 까닭에 복잡괴기한 필사본의 세계가 생겨나왔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서적의 유통 형태가 낳은 여러 문화 현상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 2. 필사본의 문화

일본의 고전에는 필사본으로 남아 있는 것이 많고 인쇄물로 유통하기 시작하는 것은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꽤 늦다--이것은 이전에 논한 적이 있는 테마이지만 보충을 겸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sup>1)</sup>.

여기에 표시한 표는 『日本書紀』를 비롯한 六国史의 개판(개판) 상황이다<sup>2)</sup>.

제시한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六国史 모두가 근세에 들어가고 나서 처음으로 출판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당연히 필사본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필사본의 전래에 잔존상태는 다음에 인용한 『国書總目録』 해당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역시 중세 이전에 상당

六国史の開版状況

日本書紀	続日本紀	日本後紀	続日本後紀	文徳実録	三代実録
▼慶長15年(1610) 野子三白校・古活字版 ▼寛文9年(1669) 整版本・古活字覆刻	▼明和3年(1657) 立野春節校 林和泉挿刊		▼寛文8年(1668) 立野春節校・林和泉挿刊	▼寛文9年(1669) 村上平樂寺刊 宝永6年(1700) 林和泉挿刊	▼寛文13年(1673) 松下見林校
▼寛政6年(1794) 小寺清先校		▼寛政11年(1799) 塙保己一校・山城屋佐兵衛刊	寛政7年(1795) 寛文版覆刻	寛政8年(1796) 曾我部元寛補	
享和3年(1803) 寛政版覆刻 ▼文政3年(1820) 大岡増業校		▼享和元年(1801) [卷12・21の追加]			
文政13年(1830) 天保14年(1843) 寛政版覆刻 元治元年(1863)	天保14年(1843) 明暦版覆刻		天保14年(1843) 寛政版覆刻 安政4年(1857) 寛政版覆刻		元治元年(1864) 寛文版覆刻

参考：類聚国史—文化13年(1816)刊/仙石政和校  
日本紀略—嘉永7年(1854)・安政3年(1856)・万延元年(1860)刊/山崎知雄校

1) 松本真輔 「日本前近代の知識伝達と公共性」 (『倫理教育研究』 一一' 二〇〇六年一二月)

2) 遠藤慶太 『平安勅撰史書研究』 皇学館出版部 ' 二〇〇六年一〇月' 三四頁

수의 필사본이 남아 있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물론 근세 이전에 서적 인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사찰에서 불교 서적이 간행되어 있었고<sup>3)</sup>, 헤이안시대말 무렵부터 興福寺에서 만들어진 春日版<sup>4)</sup>, 카마쿠라시대 중엽에 시작한 高野版이나 叡山版, 중국에서 일본에 온 兪良甫·陳孟榮의 힘을 빌려서 선종사찰을 중심으로 카마쿠라시대

日本書紀神代卷 二卷三冊 ①神代紀 神代卷 日本書紀卷一・二・日本紀神代卷 ②通史 ③舍人親王等編 ④養老四 ⑤國會(応永頃写) ⑥慶長三番盛政写二卷一冊 ⑦内閣(室町末期写) ⑧江戶初期写二卷一冊 ⑨静嘉(寛文三写) ⑩上卷一冊(下卷一冊) ⑪北野藏本写二卷一冊(殘欠) ⑫北野藏本写一冊(慶長古活字版写二卷一冊) ⑬東洋岩崎(下卷一冊) ⑭宮書(江戶初期写) ⑮正徳二写二卷一冊(仮名書) ⑯享保四写四卷(宝曆一) ⑰森昌胤写(守辰本昭和写) ⑱上卷(天保九写一冊) ⑲上卷(永和五写本写一軸) ⑳下卷(明治写一冊) ㉑二卷一冊(三卷) ㉒上卷一冊(四部) ㉓二部(東山御文庫(守辰本) 永正七荒木田守辰写(後西天皇写) 京女大上卷) ㉔元禄一〇写一冊(京大) ㉕江戶初期写(四部) ㉖慶大(二冊) ㉗下卷一冊(慶大) ㉘江戶初期写(国学院(嘉禎本) 下卷) ㉙卷首欠(嘉禎二写) ㉚一軸(伝飛鳥井雅世写二卷一冊) ㉛早大(東大) ㉜上卷一冊(二部) ㉝東北大(上卷) ㉞昭和写一冊(東北大狩野(上卷) 瑞鳥園叢書三〇) ㉟京都府(豊橋(古訓神代紀) 文政七羽田野敬敏写) ㊱蓬左(慶長一四下卷兼見写) ㊲江戶中期写) ㊳猪熊(上卷断簡) 平安初期写一帖 高野山眞別処(断簡) 二葉 高野山宝龟院(二帖) 金刀比羅(矢野玄道写) 三宝院(上卷) 室町初期写一冊(実藏坊真如藏) 一帖 大坂四天王寺(上卷断簡) 紙背性靈集 平安初期写二葉 重文(彰考) 嘉曆三(登春集) 四帖(重文) 一冊(神宮(明応八小槻雅久写) 上卷) 永正七(大田忠忠写一冊) 上卷) 室町時代写一冊(安永三) 中川経雅写一冊 大東急(下卷) 明治写一冊 高木(明応四写) 多和(寛永二写) (古訓神代卷) 一冊 竹柏(上卷断簡) 紙背性靈集 平安初期写一冊(重文) 天理(乾元部兼致写) 上卷(殘欠) 南北朝時代写一冊(上卷) 室町初期有目写一冊(下卷) 室町中期写一冊(二部) 室町末期清原業賢写(室町末期写) 二部(江戶初期写) 上卷) 下部兼照写一軸(下部兼致写) 下部兼見写(田中慶太郎写) 天理吉田(下卷) 慶長九写一冊(江戶初期写) 二部(元禄一三写) 享保六(下部兼雄写) 享保九(下部兼雄写) 享保一(中臣連屋写) 一冊(享保二) 下部兼雄写(兼方本享保一) 九(下部兼雄写) 乾元本(寛永三) 下部兼雄写(宝曆四) 下部兼雄写(宝曆七) 下部兼雄写(宝曆一〇) 下部兼雄写(宝曆一三) 下部兼雄写(宝曆一四) 上卷) 下部兼雄写(宝曆一五) 深祐写本(江戶末期写) 仁和寺(慶長四) 羽中山(三冊) 穂久通(仮名書) 江戶末期写(江戶末期写) 江戶末期写一冊(正宗(石尾有則写) 鈔を付す) 三冊(京都同神社(下卷) 室町初期写一帖) 重文) 無窮神智(慶長一五) 梵舜写二卷一冊(宝曆三) 三竹島許伝写(徳川光圀考訂本) 二卷三冊(嘉禎本写一冊) 三卷(二卷一冊) 玉籠四〇) 無窮平治(上卷) 伴直方写一冊(下卷) 伴直方写一冊(陽明) 竜門(明徳二) 写(西尼院(室町中期写) 下卷) 弘治三写一冊(寛永一六) 上卷) 江戶末期写一冊(旧浅野) 勤修寺家(三冊) 大橋寛治(兼方本) 弘安九(下部兼方奥書) 二軸(国宝)

①慶長四古活字版(刻版を含む) ②静嘉・東洋岩崎・宮書・東博・京大・東大・大阪府・岩瀬・猪熊(二冊) ③井本(二冊) ④栗田(上卷一冊) ⑤大東急・多和(一冊) ⑥茶園成實・天理・天理吉田・無窮神智・陽明・竜門・慶長一〇古活字版 ⑦京大・旧安田・寛文七版 ⑧宮書・阪大・大阪府石崎・岩瀬・神宮・茶園成實・天理吉田・無窮神智・寛文九版 ⑨宮書・京大(下卷一冊) ⑩茶園成實・寛文二版 ⑪神宮・延宝四版 ⑫國會・宮書・京大(下卷) ⑬大東急・豊橋・井本・神宮・羽中山 ⑭延宝七版 ⑮九(大岡山) ⑯鶴舞・蓬左(高野山) ⑰持明院 ⑱高野山宝龟院 ⑲神宮(頭書神代卷) ⑳薬師寺 ㉑元禄八版(校正評閣神代卷) ㉒松下見林校 ㉓東洋岩崎・宮書・関学 ㉔京大(大東急) ㉕京大(東大) ㉖京都府 ㉗岡崎 ㉘鶴舞 ㉙豊橋 ㉚神宮 ㉛茶園成實 ㉜天理 ㉝無窮神智 ㉞陽明 ㉟旧下郷 ㊱学書言志 ㊲宝永六版 ㊳静嘉 ㊴広島大 ㊵豊橋 ㊶天理吉田 ㊷享保一〇版 ㊸國會 ㊹宮書 ㊺享保一四版(鳥谷長庸校) ㊻宮書 ㊼香川 ㊽大原 ㊾京大 ㊿国学院 神宮 天理 享保一六版(日本神代卷) 源最中校 長野 茶園成實 寛延四版 一(東大本居) 寛政元版 宮書 阪大 春海 寛政七版 神宮 文化元版 天理吉田(下卷一冊) 文政六版 九(大島大) 刊年不明 國會 宮書 大谷 香川 大原 九(大教大) 慶大 慶大 大原 岡山 東大 東大 東大 東大 東大 東大 徳島 長野(校正大) 神代卷) 日比谷加賀(上卷一冊) 日比谷諸橋 福井松平 宮城小西 岩瀬 刈谷 鶴舞(上卷一冊) 豊橋 大倉山(一冊) 神宮 大東急 茶園 小笠原 成實 天理(一冊) 天理吉田 無窮神智 平治 陽明 米本 竜門 旧浅野 仙台伊達家 福井久藏(一冊) なお神紙要編一二の内

①新釈日本文学叢書二編 ②丹鶴叢書一 ③古典保存会(八) 猪熊本 嘉禎本 秘籍大観(上卷) 竹柏本 下卷(書院部本) 日本書紀丹鶴叢書本 大正三 日本書紀(彰考本) 昭和一九 日本書紀神代卷(慶長古活字版) 昭和一九 日本書紀神代卷(慶長古活字版) 昭和七

\* 明治版あり 一(仮名) 日本書紀神代卷

日本書紀 卷第一・二三私抄 三卷三冊

①注釈 ②東洋岩崎

日本書紀(安閑天皇) 記錯簡考 天理吉田

安閑天皇記錯簡考 天理吉田

日本書紀(二卷御統) 一冊 ①注

말기부터 간행되기 시작한 五山版 등이 있다<sup>5)</sup>. 그리고 興福寺 이외의 사찰도 지속적으로 출판사업은 계속해 왔었다<sup>6)</sup>.

이와 같이 일본에서도 중세에는 이미 인쇄된 서적이 유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많은 부분은 불교 경전이나 한문서적이었는데, 그 이외에는 源信 『往生要集』이나 虎関師鍊 『元亨釈書』 과 같은 일본인이 저술한 서적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한문(중국어)으로 기술된 서적이지만 같은 한문체로 쓰여 있는 『日本書紀』 등의 사서도 "하려고 하면" 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좀처럼 그것은 실행되지 않았다.

물론 『日本書紀』 에 대한 수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방대한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日本書紀』 를 읽어야 하는 필연성을 느끼고 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또한 중세에 잘

3) 木宮泰彦 『日本古印刷文化史』 富山房 一九三二年二月  
 4) 白石克 『春日版「成唯識論(鎌倉期)」の開版について--関東所在を中心とする』 (『書誌学』 一六、一九六九年七月)、稲城信子 『鎌倉期における經典印刷と流布--春日版大般若經を中心に』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七二、一九九七年三月)  
 5) 川瀬一馬 『五山版の研究上・下』 日本古書籍商協会、一九七〇年三月  
 6) 中根勝 『日本印刷文化史』 (大阪印刷百年史刊行会編 『大阪印刷百年史』 大阪府印刷工業組合一九八四年三月)

읽혀져 있던 문헌에 『古今和歌集』이 있다. 단가를 배울 때 근간이 되는 문헌이며 『日本書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주석서가 만들어져 있었다<sup>7)</sup>. 이것도 인쇄물로 유통하기 시작하는 것은 17세기 중엽쯤(17세기 초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嵯峨本이라고도 말해지는 책도 있기는 했다). 같은 식으로 주석의 대상이 되어 있던 문헌으로는 『伊勢物語』 『和漢朗詠集』 『聖德太子伝暦』 등이 있는데, 이것들도 인쇄물로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에 들어가고 나서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불전과 한문서적에 관해서는 인쇄하려는 움직임이 있던 반면, 일본에서 찬술된 문헌에 관해서는 사서든 歌学書(혹은 단가집)든 이야기든, 사본으로 전해진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할 수 있다.

### 3. 발문문화와 비전秘伝

이렇게 필사본이 많은 것과 관련해서 일본의 필사본에는 책의 발문이 길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 인용한 것은 『古今和歌集』의 한 전본의 발문이다. 여기서 이 필사본을 소개한 이유는 이 책을 특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 전래의 구체적인 예로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A 此集家々所称雖説々多且任師説又加丁見  
 為備後学之証本不顧老眼之不堪手自書之  
 近代僻案之好士以書生失錯称有識之秘事可  
 謂道之魔姓不可用之但如此用捨只可隨其身  
 之所好不可存自他之差別志同者可隨之

貞応二年七月廿二日癸亥戸部尚書藤在判  
 同廿八日參校合詠書入落字畢  
 伝于嫡孫可為将来之証本

書写=云

B 累代好士平常録所持之本也外題所  
 望之間染秃筆畢  
 和歌所旧老大僧都

書写本云

C 旅行之時為隨身以家本令書写之  
 跳門弟源基清少々之勸文并  
 声以下所口伝書加畢令准証  
 本者也

文明七年十二月廿一日常縁<sup>8)</sup>

현존하는 『古今和歌集』의 발문은 인용문에 보이는 戸部尚書, 즉 藤原定家 교정본에서 파생한 것이 많다. 교정을 거치면서 필사되는 과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 필사자로 나와 있는

7) 片桐洋一編 『中世古今集注積書解題一~六』 등.

8) 国文学研究資料館(初雁文庫)藏 『古今和歌集』、 「国文学研究資料館藏マイクロフィルムによる古今和歌集奥書集成(二)」 (『調査研究報告』二〇〇〇年九月) 今六八

「常縁」은 말할 필요도 없이 東常縁이다. 그는 15세기 후반에 활약한 문인이며 二条派歌學을 계승하고 堯孝 등이 주장한 학설을 쓴 『東野州聞書』, 連歌師로 알려져 있는 宗祇가 질문한 의문에 대답한 내용을 정리한 『東野州消息』 등을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인용문 B에 등장하는 「和歌所 旧老大僧都」는 단가의 스승인 堯孝가 아닐까 싶은데<sup>9)</sup>, 전체를 봤을 때 단가의 권위로 군림하고 藤原定家 이후의 흐름을 이어받은 二条家の 학설을 계승한 인간이 쓴 필사본이라는 올바른 전래과정을 이 발문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문의 서식은 특별히 희귀한 것은 아니다. 유명한 작품이 되면 될수록 각각의 전래본이 「올바른 전래 과정」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래본의 내용이 「秘伝」임을 일부러 강조하는 책도 적지 않다.

다음에 인용하는 것은 중세에 작성된 『聖徳太子伝記』 중 四天王寺 혹은 그 주변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 「文保本」이라고 불리는 계통의 필사본의 발문이다. 이 책은 그림을 이용해서 쇼오토쿠 타이시의 인생을 말하는 「絵解き」 대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절 안에서 絵解きを 실시해서 신도들의 신앙심을 높여 기부를 모으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 내용은 널리 알려지는 편이 좋은 것 같은데, 인쇄물로 유통되는 일도 없고 필사본으로 전해지고 있다.

#### 第七册末

##### 古写本云

応永十二年(一四〇五)乙酉七月晦日於四天応寺蓮花藏院之内

護摩堂大愚叟生年六十二而書写校合仕畢

于時応永十五年戊子三月十一日於撰津国西成郡榎並下庄

西方赤河大金剛院三藏坊住侶性算生年五十一而

書写畢偏為弘法紹隆兼又仏法伝来之為酬広

徳書之一期之後当寺納寺庫於有器用之仁之時者或為

太子聖靈之法示或為諸人結縁可有読誦者也此本者四天

王寺金堂不出堂内秘本也聊有不思儀之子細感徳之

令写之者也更々不可出他所者也努力々々<sup>10)</sup>

#### 第八册末

右此伝者四天王寺行田坊之秘伝也彼奥書云不可出院内

又不可有外見以起請文唯是一人付属也然面依有事縁

彼秘伝之肝用所校写也而故者雖為此伝不可有書写

亦不可有他見於本伝之起請読有真蹟之源故也穴

々々可隠密者也云々(以下略)<sup>11)</sup>

흥미로운 것은 「四天王寺金堂不出堂内秘本也」「四天王寺行田坊之秘伝也」「可隠密者也」라고 하는 부분이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으면 상당히 귀중한 책이 「유출」되고 그것을 필사했다고 볼 수 있다.

9) 주(8)참조

10) 『中世聖徳太子伝集二』一九三頁

11) 『中世聖徳太子伝集二』二二八頁

같은 발문을 가지는 필사본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귀중한 책이라고 해도 한 번 유출되면 증식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단지 원래 필사를 허가한 이상 그것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미리 예측된 사태였을지 모른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여기에 있는 「秘」도 액면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내용의 가치와 올바른 전래 과정을 보증해주고, 책의 가치를 높이는 기능을 기대한 것이라고 봐야할 지도 모른다.

#### 4. 『源氏物語』 과 권력

일본문화에 큰 영향을 준 문헌 중의 하나가 『源氏物語』이다. 이 책도 역시 필사본을 중심으로 전해져 왔고 출판된 것은 역시 17세기 이후이다.

그런데 『源氏物語』는 권력과 상당히 강력한 관련이 있었다. 『源氏物語』에 관한 지식은 중세에 있어서도 무사라고 해도 권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요구되는 교양이었다. 그래서 발흥<sup>勃興</sup>하는 지방 무사나 戦国大名들은 「도읍」의 문화인 『源氏物語』를 원했다<sup>12)</sup>. 예를 들어 『源氏物語』의 옛 필사본의 하나인 尾張徳川家 소장 河内本은 金沢文庫에서 足利家, 豊臣家를 거쳐 徳川家로 전해졌다. 그 전래 과정을 보면 『源氏物語』는 권력 그 자체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源氏物語』 주석의 하나인 四辻善成 『河海抄』는 室町将軍 足利義詮의 명령으로 편찬된 문헌인데, 권력과 결합해서 『源氏物語』가 수요된 당시의 사정을 알려준다.

이렇게 권력자들이 구한 『源氏物語』이었지만 앞서서도 말했듯이 인쇄된 책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이다. 그리고 출판되었다 하더라도 秘藏된 책의 본문을 인쇄해서 보급시킨다는 방향성은 없었다. 오히려 전래 과정을 중시하거나 유래 있는 필사본을 소유하거나 다시 필사하는 방법으로 그 권위가 높아져 갔다. 그 귀결이 앞에서 본 발문의 복잡함이며, 전래의 주장인 것이다.

12) 脇田晴子 「戦国期における天皇権威の浮上」 (『日本史研究』三四〇・三四一、一九九〇年一二月、一九九一年一月、源城政好 「地方武士の文芸享受」 (村井康彦編 『公家と武家——その比較文明的考察』 思文閣出版、一九九五年一〇月)

## 지정토론

## 이 시 준(승실대)

질의에 앞서 江戸이전의 출판상황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최초의 출판물은 称徳天皇의 発願에 의해서 만들어진 百万塔陀羅尼 (770년) 로서 東大寺·興福寺·薬師寺·法隆寺 ‘四天王寺등 畿内 10개의 大寺에 各10万씩 寄進되었다. 이후 200年以上이 경과되었지만 현존하는 印刷資料뿐만이 아니라 기록도 없다.

헤이안 시대의 일기류를 보면 藤原道長の 『御堂関白日記』 寛弘6年 (1009) 에 「妙法蓮華經」 1000部를 인쇄했다는 기술이 보인다. 동시에 이 당시의 公家の 日記에는 仏像의 모습을 인쇄하는 摺仏이나 印仏에 관한 기술도 보인다. 供養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하는 출판물로는 奈良興福寺에서 간행된 『成唯識論 (寛治2-1088年刊)』 인데 대표적인 불교철학서로 범상종의 근본 전적이다. 출판이 실용화되기 시작한 헤이안시대는 신앙을 목적으로 한 것과 학술·교육을 목적으로 한 두가지의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鎌倉時代に 이르면 헤이안시대와 마찬가지로 奈良의 興福寺 (春日版)을 중심으로 東大寺·西大寺·唐招提寺·法隆寺등 각각의 절의 주요 경전이나 教学書を 주로 卷子本 (卷物) 이나 折帖의 형태로 출판하게 된다. 한편 高野山·比叡山·京都의 浄土宗寺院에서도 활발하게 出版事業이 행해졌는데 특이한 점은 教学書の 装訂의 대부분이 粘葉装이었다. 南北朝時代부터는 『論語』 『三体詩』 등의 漢籍이나 禪宗의 高僧의 話録도 때때로 간행되게 되었다.

1) 필자는 이러한 에도 이전의 출판상황을 염두하면서 [불전과 한문서적에 관해서는 인쇄하려는 움직임이 있던 반면, 일본에서 찬술된 문헌에 관해서는 사서든 歌学書(혹은 단가집)든 이야기든, 사본으로 전해진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에서 찬술된 문헌이 불전과는 달리 필사본의 형태로 읽혀진 데에는 어떠한 문화 사회적 배경이 있었는가 궁금해 지는 대목이다.

2)에도 시대에 들어오면 古活字版의 성립을 보나 천황이나 막부 사원 혹은 특권 초령등의 손에 의해 작은 부수의 출판이 행해져서 그 이전까지의 書寫時代와 크게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寛永이후(1624년~) 의 整版출판이 중심이 되면 서서히 상업활동을 하는 서점에 의한 영리적인 대량출판이 보이기 시작한다. 書寫(필사본)시대와 整版출판이후의 시대를 비교해 볼 때, 도시문화와 책의 유통의 면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 일제강점기 한국의 신문에 나타난 京都 表象

- 「東亞」 「朝鮮」의 문화(문학) 기사를 중심으로 -

- 정 형(단국대 교수)

지정토론 - 김유천(상명대 교수)

## 일제강점기 한국의 신문에 나타난 京都 表象

정 형(단국대)

### I. 식민지기 한국에서의 京都表象

#### 1. 시작말

근대 특히 明治維新以後, 일본이 국민국가를 지향하면서 제국의 수도 도쿄의 의미와 비중이 강조되는 한편으로 천년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교토의 문화적 위상의 내실과 변화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 즉 문명, 문화의 기저로서의 교토의 제양상에 관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시점과 방법으로 교토학연구의 성과가 이루어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교토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교토는 어떠한 위상으로 다가왔는지, 당시 식민지 지식인에게 교토는 도쿄, 오사카라는 대도시와 비교해 어떤 의미를 지녔으며 교토라는 역사, 문화적 공간을 그들은 어떻게 경험하고 느꼈는지, 그리고 일본국내에서의 교토의 위상과는 어떠한 차이가 라는 식민지기 한국에서의 교토표상이라는 주제를 주로 문화(문학)의 영역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식민지기 한국의 문학작품에 나오는 교토라는 공간의 예가 도쿄 등과 비교해 극히 적을 것이라는 예상되기에 문학작품 등에 나오는 용례로 교토표상이라는 주제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그 대안으로서 식민지기의 주요 신문이었던 『東亞日報』 와 『朝鮮日報』 에 등장하는 교토에 관한 문화관련 기사를 도쿄와 오사카의 기사와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식민지기 한국에서의 교토표상의 一端을 밝혀보겠다.

20여년간의 양 신문에 등장하는 京都·大阪·東京의 기사는 방대한 양에 달한다. 본 발표에서는 이른바 京都表象을 고찰하는 전단계로서 도쿄, 오사카 기사와의 비교와 더불어 교토에 관한 기사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을 단순분석한 작업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다. 그리고 이 같은 작업을 통해 문화(문학) 영역에 나타나고 있는 흥미로운 과제 몇가지를 결론부분에서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교토표상을 고찰해가기 위한 단서로 삼고자 한다.

#### 2. 한일관계사로서 본 교토와 한국

한국과 교토의 다양한 접점을 한일관계사를 통해 개관하는 것이 본 발표의 목적이 아니므로 주로 근대기를 전후로 한 사항만을 개관하기로 한다. 일본의 수도 도쿄(에도)나 경제도시 오사카에 비해 교토와의 교류의 접점으로서 등장하는 영역은 주로 문화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류사의 내용이 적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개관의 전제로 되어 있다.

임진왜란(文祿慶長の役) 즉 豊臣秀吉의 조선침략전쟁(1592年~1598年)이 이후의 한국인의 일본관과 일본표상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음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침략을 위해 최종 결집지가 규슈 북단의 名護屋城이었음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이 전쟁의 발원지가 히데요시가 거주하는 교토였음은 한국인에게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히데요시가 주도한 침략전쟁의 역사적 폐해가 우선적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고 교토라는 지역적 사항은 한국인에게 단순히 일본 국내문제 정도의 의미일 수밖에 없다. 그 뒤에도 한국인에게 교토라는 도시가 지니는 이미지는 江戸-東京라는 근세기 이후의 정치, 경제의 중심도시에 비하면 과거 일본문화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역사도시 정도의 표상으로 존속해 왔을 것임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까지의 역사분야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근대기의 교토와 한국과의 접점에는 의외로 많은 역사적 사실과 교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sup>주1)</sup>

주1) 정재정 「교토가 말하는 한일관계2000년 (근현대편)」 (『역사비평』 2006년 겨울호) 와 정재정 『교토에서 본 한일통사』 (호형출판, 2007년), 『교토에서 본 한일통사』 서문에서 교토와 한일관계사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로 역사로부터 지혜를 얻어 첨단도시로서 다시 태어난 創新京都, 두 번째로 고모문명으로서의 교토, 세 번째로 무가사회에서의 교토의 변화, 네 번째로 임진왜란과 교토, 다섯 번째 조일외교와 동아시아교역에서의 교토의 역할, 여섯 번째로 유신전쟁의 무대로서의 교토 일곱 번째로 조선의 식민지화와 교토, 여덟 번째로 교토와 한국인유학생, 노동자들과의 관련양상, 아홉 번째는 패전후의 상생공영하는 교토와 교토의 한국인들.

이와 같은 항목은 한국근대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의 현재적 시각을 통해 제시된 교토를 둘러싼 한일교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대 이후 한국인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시각이 공유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관한 중요한 史跡과 사항을 연대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병합과 지배의 유적으로 明治天皇陵과 乃木神社, 韓国併合記念碑 등. 한국병합 이전에 오사카와 교토 일원에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와 있었고, 특히 6천명의 노동자가 동원된 陵墓造成工事に 조선인노동자도 수십명 동원되었다고 함. 이처럼 한국병합 직전부터 조선인노동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1920년에 천명정도. 纖維産業, 土木建設, 商業, 交通業, 農業, 公務自由業, 기타 무직 등. 토목건설은 현장노동자들이었고 섬유산업은 西陣의 織工이었음. 교토의 한국인은 1927년에 1만 천명, 1933년에 3만 2천명, 1937년에 5만명, 1941년에 8만명으로 급증하였고, 그들 대부분은 하천가나 교외에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슬럼화해 갔다. 조선인집단거주지로서는 교토의 東九条가 대표적인데 멸시적 용어로 豚(東)九条로 불리기도 했다. 또한 1908년에서 1912년에 걸친 第2疎水工事와 比叡山케이블카·로프웨이 工事, 阪急電鉄工事, 宇治火藥製造所, 宇治水力發電所, 国鉄山陰線, 第3海軍火藥倉製劑工場 등에 동원되었다. 이를 계기로 노동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조선인노동총연맹이 결성되어 파업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배후에 조선인 유학생들의 지원이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10년대에는 毎日新報社, 東洋拓殖株式会社, 朝鮮總督府 등이 조선 전국에서 조선인을 다양한 형태로 모집해 일본으로 파견했는데, 貴族觀光團, 全北觀光團, 東拓視察團, 儒林視察團, 教育視察團, 仏教視察團, 蠶業視察團 등이 그것이다. 이는 식민지 지배의 동조자 내지는 협력자를 만들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25년에는 서울(京城)의 한복판인 남산에 天照大神과 明治天皇을 받드는 朝鮮神宮이 완성되었고, 1934년에는 朝鮮神宮에서 멀지 않은 곳에 乃木神社가 건립되었다.

또한 교토의 三宅八幡宮에 있는 韓国合併奉告祭碑와 新羅明神을 받드는 大雲寺, 赤山明神을 받드는 赤山禪院 등에 교토와 근대기한국과의 접점을 찾아볼 수 있다.<sup>주2)</sup>

주2) 조선인 노동자의 교토유입과 정착사, 운동주 관련 연구 등이 많다.

- 日本における先行研究には以下のようなものがある。(朝鮮史研究会ホームページ参照)
- 鈴木博 「京都における在日朝鮮人労働者の闘い-1920年代」(『在日朝鮮人史研究』 8, 1981年 6月)
- 浅田朋子 「京都府協和会小史」(『在日朝鮮人史研究』 27, 1997年 9月)
- 水野直樹 「尹東柱と京都在住朝鮮人」(尹東柱詩碑建立委員会編『星うたう詩人-尹東柱の詩と研究』, 三五館, 1997年2月)
- 林茂 「京都時代の尹東柱-南炳憲さんに聞く」(『在日朝鮮人史研究』 28, 1998年 12月)
- 松田利彦 「曹寧柱と京都における東亜連盟運動」(『世界人権問題研究センター研究紀要』 3, 1998年 3月)
- 浅田朋子 「1930年代における京都在住朝鮮人の生活状況と京都朝鮮幼稚園-京都向上会館前史」(『在日朝鮮人史研究』 30, 2000年10月)
- 許光茂 「戦前京都の都市下層社会と朝鮮人の流入-朝鮮人の部落への流入がもつ歴史的意義をめぐって」(『コリアンマイノリティ研究』 4, 2000年12月)
- 水野直樹 「戦前京都在住の韓国人の生活」(『民族文化教育研究』 3, 2000年7月)
- 浅田朋子 「京都向上館について」(『在日朝鮮人史研究』 31, 2001年10月)
- 宇野豊 「京都東九条における朝鮮人の集住過程(1)-戦前を中心に」(『世界人権問題研究センター研究紀要』 6, 2001年3月)
- 高野昭雄 「戦前期京都市における朝鮮人の流入-就業状況を中心に」(『在日朝鮮人史研究』 34, 2004年10月)
- 高野昭雄 「戦前期京都市郊外吉祥院における朝鮮人の流入過程」(『在日朝鮮人史研究』 35, 2005年10月)

## II. 『東亜日報』 『朝鮮日報』 記事 (東京・大阪・京都) 의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및 분류

### 자료데이터베이스 작업

東亜日報社, 朝鮮日報社 양 신문의 記事 데이터 베이스의 표제어 색인에서 東京(동경), 大阪(대관), 京都(경도)가 등장하는 모든 기사를 검색·추출해서 엑셀에 입력한 후 항목별 주제별 데이터베이스화를 진행했다. 두 신문의 발행기간과 기사건수는 다음과 같다.

기간 : 『東亜日報』 1920. 5. 13 - 1940. 7. 09

『朝鮮日報』 1920. 8. 07 - 1940. 7. 15

京都 : 東亜 (총 621 건) 朝鮮 (총 470 건) : 2803 건  
 大阪 : 東亜 (총 3,108 건) 朝鮮 (총 1,988건) : 5096 건  
 東京 : 東亜 (총 37,250 건) 만 자료처리 <sup>주3)</sup> : 37,250 건 총 기사분석건수 45,089 건

주3) 양 신문의 표제어에 東京가 등장하는 기사의 수가 방대하기 때문에 우선 『東亜日報』의 자료를 대상으로 했고 『朝鮮日報』의 자료처리는 현재 작업 중에 있어 이번 발표자료에서는 제외했다.

기사제목을 엑셀파일에 입력한 건수는 총 45,089 건에 달하고 있고 현재 잔여 작업 중인 『朝鮮日報』의 도쿄자료 입력이 완료되면 총 7만 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완성된 교토항목 엑셀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료입력의 에러건수 (예 : 京都의 한국어발음인 경도와 동음어인 경도(傾倒) 등의 기사항목이 교토기사에 포함된 오류 등)가 10건 미만으로 나타나 자료의 오차범위는 대개 0.3% 이하인 것으로 판단된다.

『東亜日報』의 자료색인은 発行日, 面, 段, 題目, 主題語로 되어 있고, 『朝鮮日報』의 경우는 発行日, 面, 段, 題目이 있고 主題語는 없음.

#### 資料 例

『東亜日報』

一連番号 5, 発行日 1920.5.1, 面 3, 段 3, 題目 : 在京都日本朝鮮労働共済会臨時總會, 15日에 성대히 강연회까지 열어, 主題語 : 朝鮮労働共済会

一連番号59, 発行日1922.4.1., 面 3, 段 3, 題目 : 京都에서 二泊王世子殿下旅程一部変更, 主題語 : 李垠

一連番号87, 発行日1922.11.23., 面 3, 段 6, 題目 : 京都에서日本人과 朝鮮人 連合으로 組織한 社會主義秘密結社團, 檢察은 活動開始, 主題語 : 社會主義運動-日本

『朝鮮日報』

一連番号 3, 題目 : 荒木寅三郎總長再入京, 京都帝大早朝, 1920.12

#### 資料分類

분류방식은 크게 a)單一分類와 b)複數分類로 나누었다.

單一分類는, 기사내용을 政治, 經濟, 事件, 文化로 구분했고 단순히 이 구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은 單一分類統計記事로 처리했다. <sup>주4)</sup>

주4) 政治, 經濟, 文化, 事件의 4 항목으로 單純分類를 한 이유는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정치와 경제기사가 우선적 항목이라고 판단하였고, 그 이외의 분야는 무수한 소항목을 포괄해 문화항목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事件이라는 형식의 표제어도 頻出하고 있어서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었다.

政治 : 政府 關連, 外交, 思想 關連, 朝鮮 獨立 關連, 天皇 關連 등

經濟 : 勞働 關連, 建設 關連, 商業 關連 등

事件 : 災害, 逮捕 および 檢査, 負傷 및 死亡 事件 등

文化 : 教育 關連, 社會 問題, 스포츠, 芸能 등과 같이 政治 · 經濟 · 事件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내용.

b) 複數 分類은 기사내용을 政治, 經濟, 事件, 文化의 4 영역 중 3항목 이상 포함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했다.

複數 分類의 예 : 經濟/文化, 政治/經濟, 政治/文化, 事件/文化, 事件/政治, 事件/經濟, 政治/經濟/文化, 事件/政治/文化, 事件/政治/經濟, 事件/經濟/文化의 10領域

單一分類 + 複數 分類 = 100%

### 3. 單一分類, 複數 分類에 의한 3 도시의 4 領域 구성비율

#### 1) 京都

『東亞日報』

單一分類 (621件 중 492件, 79.3%)

政治 (135件, 21.7%), 經濟 (20件, 3.2%), 事件 (61件, 9.8%), 文化 (276件, 44.4%)

複數 分類 (621件 중 129件, 20.7%)

이 중 文化 領域을 포함하는 기사 (政治/文化, 事件/文化, 經濟/文化, 事件/政治/文化, 政治/經濟/文化, 事件/經濟/文化의 6 領域) 은 총 157件 중 100건으로, 77.5%

單一分類, 複數 分類의 文化기사는 총 376건으로, 60.5%

『朝鮮日報』

單一分類 (470件 중 340件, 72.3%)

政治 (68件, 14.5%), 經濟 (24件, 5.1%), 事件 (61件, 13.2%), 文化 (186件, 39.6%)

複數 分類 (470件 중 130件, 27.7%)

이 중 文化 領域을 포함하는 기사 (政治/文化, 事件/文化, 經濟/文化, 事件/政治/文化, 政治/經濟/文化, 事件/經濟/文化의 6 영역) 은 총 130件 중 105건으로, 80.7%

單一分類, 複數 分類의 文化記事는 총 291件으로, 61.9%

『東亞日報』 『朝鮮日報』 의 文化總件數는 667件으로, 61.1%가 됨.

이상의 수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京都 關連의 기사에서는 文化項目이 가장 높은 61.1%로 나타나며, 이것은 文化도시 京都의 표상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京都의 기사내용 분석은 Ⅲ. 京都의 記事內容 細部分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 2) 大阪

『東亞日報』

單一分類 (3,108件 중 2,276件, 73.2%)

政治 (263件, 8.5%), 經濟 (1,119件, 36%), 事件 (249件, 8%), 文化 (645件, 20.8%)  
 複數分類 (3,108件 중 832件, 27.7%)

이 중 文化領域을 포함하는 記事 (政治/文化, 事件/文化, 經濟/文化, 事件/政治/文化, 政治/經濟/文化, 事件/經濟/文化의 6領域) 는 총 832건 중 504건으로, 60.5%

單一分類, 複數分類의 文化記事는 총 1,149건으로, 40.0%

『朝鮮日報』

單一分類 (1,988件 중 1,309件, 65.9%)

政治 (113件, 5.7%), 經濟 (453件, 22.8%), 事件 (232件, 11.7%), 文化 (511件, 25.7%)

複數分類 (1,988件 중 679件, 34.1%)

이 중 文化領域을 포함하는 記事 (政治/文化, 事件/文化, 經濟/文化, 事件/政治/文化, 政治/經濟/文化, 事件/經濟/文化의 6領域) 은 총 679件 중 504건으로, 74.2%

單一分類, 複數分類의 文化記事는 총 1,015건으로, 51.1%

『東亞日報』 『朝鮮日報』의 文化總件數는 2,164건으로, 42.5%가 됨.

이상의 수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양 신문의 타 영역기사에 비해 經濟分野의 수치가 單一分類 (73.3% 중 36%, 65.9% 중 22.8%) 와 複數分類 (26.7% 중 16.9%, 34.1% 중 19.5%)<sup>주5)</sup>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어느정도 예상가능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大阪의 經濟都市의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다.

주5) 복수분류의 %는 경제가 포함되어 있는 複數項目을 모두 합한 수치이다.

3)東京

『東亞日報』

單一分類 (37,250件 중 30,148件, 80.9%)

政治 (16,682件, 44.8%), 經濟 (5,142件, 13.8%), 事件 (926件, 2.5%), 文化 (7,398件, 19.9%)

複數分類 (37,250件 중 7,102件, 19.1%)

이 중 文化領域을 포함하는 記事 (政治/文化, 事件/文化, 經濟/文化, 事件/政治/文化, 政治/經濟/文化, 事件/經濟/文化의 6領域) 은 總7,102件 中 2,503건으로, 35.2%

單一分類, 複數分類의 文化記事는 總9,901건으로, 26.6% (『東亞日報』 자료만 대상)

東京의 경우, 政治的領域의 記事 (單一分類 81% 中 44.8%, 複數分類 19% 中16.53%) 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데, 이것은 제국 즉 국민국가의 수도라고 하는 도시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이 또한 예상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東亞日報』 『朝鮮日報』 의 大阪 関連記事分類 数值化

東亞日報				朝鮮日報			
分類		出現數 (件)	百分率 (%)	分類		出現數 (件)	百分率 (%)
單一分類	經濟	1,119	36	單一分類	文化	511	25.7
	文化	645	20.8		經濟	453	22.8
	政治	263	8.5		事件	232	11.7
	事件	249	8		政治	113	5.7
		約 73.3				約 65.9	
複數分類	經濟/文化	284	9.1	複數分類	經濟/文化	200	10.1
	政治/經濟	182	5.8		政治/文化	159	8.0
	政治/文化	122	3.9		事件/文化	83	4.2
	事件/文化	118	3.8		政治/經濟	78	3.9
	事件/政治	65	2.1		事件/政治	47	2.4
	事件/經濟	23	0.7		事件/經濟	37	1.9
	政治/經濟/文化	14	0.5		政治/經濟/文化	28	1.4
	事件/政治/文化	11	0.4		事件/政治/文化	19	0.9
	事件/政治/經濟	9	0.3		事件/經濟/文化	15	0.7
	事件/經濟/文化	4	0.1		事件/政治/經濟	13	0.6
		約 26.7				約 34.1	
		計 3,108	計 100			計 1,988	計 100

『東亞日報』 의 東京 関連記事分類 数值化

数值 分類		出現數(件)	百分率(%)
單一分類	政治	16,682	44.8
	文化	7,398	19.9
	經濟	5,142	13.8
	事件	926	2.5
		約 81	
複數分類	政治/經濟	4,138	11.1
	政治/文化	1,477	4.0
	經濟/文化	652	1.8
	事件/政治	426	1.1
	事件/文化	230	0.6
	政治/經濟/文化	86	0.2
	事件/經濟	35	0.1
	事件/政治/文化	33	0.1
	事件/政治/經濟	13	0.03
事件/經濟/文化	12	0.03	
		約 19	
		計 37,250	計 100

### Ⅲ. 京都의 記事內容

#### 1. 單一分類 內容

##### 1-1. 項目內容

政治：政界, 政府, 天皇, 外交, 思想, 獨立運動, 朝鮮王家

經濟：商業, 勞働, 建設

文化：教育, 文學, 스포츠, 社會動靜, 芸能, 宗教, 社會問題

事件：特定 細部項目은 없음

『東亞日報』 『朝鮮日報』 의 京都記事에 관한 單一分類比較

新聞社		東亞日報(全體 621件) (1920. 5. 13~1940. 7. 09)		朝鮮日報(全體 470件) (1920. 8. 07~1940. 7. 15)			
分類(單一)							
政治 (135件) 約 21.7%	政界/政府	67	約 49.6%	政治 (68件) 約 14.5%	政界/政府	37	約 54.4%
	天皇	34	約 25.2%		天皇	17	約 25%
	外交	15	約 11.1%		獨立運動	3	約 11.8%
	思想	8	約 5.9%		外交	2	約 4.4%
	獨立運動	7	約 5.2%		思想	8	約 2.9%
	朝鮮王家	4	約 3%		朝鮮王家	1	約 1.5%
		計 135	計 100%			計 68	計 100%
經濟 (20件) 約 3.2%	商業	11	約 55%	經濟 (24件) 約 5.1%	勞働	21	約 87.5%
	勞働	9	約 45%		建設	2	約 8.3%
	建設	0	0%		商業	1	約 4.2%
		計 20	計 100%			計 24	計 100%
文化 (276件) 約 44.4%	教育 教育/文學	93 2	約 33.7% 約 0.7%	文化 (186件) 約 39.6%	社會動靜	78	約 41.9%
	스포츠	84	約 30.4%		教育 教育/文學	45 2	約 24.2% 約 1.1%
	社會動靜	67	約 24.3%		스포츠	34	約 18.3%
	芸能	11	約 4%		芸能	11	約 5.9%
	宗教	8	約 2.9%		社會問題	10	約 5.4%
	社會問題	6	約 2.2%		宗教	4	約 2.1%
	文學	5	約 1.8%		文學	2	約 1.1%
		計 276	計 100%			計 185	計 100%
事件 (61件) 約 9.8%	61	計 100%	事件 (62件) 約 13.2%	62	計 100%		
計 492/ 621		約 79.3%		計 340/470 約 72.3%			

##### 1-2. 單一分類項目內容 詳細

### 政治項目

『東亞日報』 135件

經濟/政府 67件, 49.6% 天皇 34件, 25.2% 外交 15件, 11.1% 思想 8件, 5.9%

獨立運動 7件, 5.2% 朝鮮王家 4件, 3%

『朝鮮日報』 68件

經濟/政府 37件, 54.4% 天皇 17件, 25% 外交 2件, 4.4% 思想 8件, 2.9%

獨立運動 3件, 11.8% 朝鮮王家 1件, 1.5%

『東亞日報』 『朝鮮日報』 양 신문 모두 天皇, 思想, 獨立運動, 朝鮮王家에 관한 기사가 두드러짐.

### 經濟項目

『東亞日報』 20件

商業 11件, 55% 勞働 9件 45%

『朝鮮日報』 24件

勞働 21件, 87.5% 建設 2件, 8.3% 商業 1件, 4.2%

『東亞日報』 『朝鮮日報』 양 신문 모두 勞働者 (勞働運動) 에 관련된 기사의 비중이 높음.

### 文化項目

『東亞日報』 276件

教育 93件, 33.7% 스포츠 84件, 30.4% 社會動靜 67件, 24.3% 芸能 11件, 4%

宗教 8件, 2.9% 社會文化 6件, 2.2% 文學 7件, 2.5%

『朝鮮日報』 186件

社會動靜 78件, 41.9% 教育 45件, 24.2% 스포츠 34件, 18.3% 芸能 11件, 5.9% 社會問題 10件, 5.4% 宗教 4件, 2.1% 文學 4件, 2.0%

『東亞日報』 『朝鮮日報』 양 신문 모두 教育関連, 스포츠関連, 宗教関連, 芸能関連, 文學関連 기사가 많음.

특히 教育記事와 관련해, 京都帝国大学 관련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京都帝国大学 總長 · 教授의 動靜이나 韓国人留学生 (医学 · 理学) 들의 博士学位授与事实 등이 보도되고 있음.

## 2. 京都의 文化(文學) 관련기사 내용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京都関連 기사에서는 文化項目이 61.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京都의 도시적 특성과 표상이 식민지 한국의 신문기사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文化領域 기사 가운데서 주로 문학관련 기사<sup>주6)</sup>의 내용을 고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민지한국에서의 京都表象의 내용과 의미를 고찰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주6) 문학기사 이외에도 문화일반의 영역에서 식민지기의 한국과 교토의 접점내용 중에서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흥미로운 내용의 기사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앞으로 별도의 주제로 다룰 생각이다.

이하 京都의 文学関連記事는, 기사별로 縮刷版新聞의 내용을 확인한 후 조사한 내용이다. 또한 비교를 위해 大阪에 관한 기사는 표제어만을 표시했다.

大阪에 관한 文学記事는 『東亜日報』 5件 (文化記事 總 1,149件), 『朝鮮日報』 3件 (文化記事 總 1,190件) 인 것과 비교하면, 京都의 文学関連記事(『東亜日報』 9件, 『朝鮮日報』 4件)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2-1 大阪文学関連記事 内容

『東亜日報』 5件

- 85 1921.7.2 4/9 李龜永<sup>주7)</sup>, 大阪에서/밤비 (讀者文壇) 韓国文学一詩  
 88 1921.8.1 4/3 大阪에서 (讀者文壇) 홍원생(紅園生)  
 89 1921.8.1 4/3 紅園生, 大阪에서 (讀者文壇) 韓国文学一詩  
 167 1933.3.2 4/8 おくつきの西行 (第一号) : 大阪弘川社發行 雜誌 懸賞募集・当選発表  
 220 1935.2.5 3/0 近代人 (二月号) : 大阪市 近代人社 發行 雜誌

주7) 李龜永 ; 1901~1973 °映画監督 겸 시나리오작가. 배재학당 졸업후 독일. 1923년 귀국후 신문에 영화이론의 소개 및 평론 기고함. 1923년 玄哲 등과 朝鮮俳優學校을 설립하고 각본작업, 연기론 등을 가르침. 1927년에 영화 『落花流水』를 감독함.

『朝鮮日報』 3件

181. 圖書館과 書店에 表現되는 朝鮮文化의 程度. 漢城圖書館株式會社에서 一年間販賣된 成績을 보면, 『사랑의 선물』이라는 文芸가 第一//小説과 脚本이 多数女子讀書熱은 六十對九, 京城圖書館의 結果//思想書類第一好績, 대관옥호서점では 『크로포트킨의 연구』 『로농로서아』가 제일만히 팔었다고 (發行日) 朝鮮日報1923.12.25/夕刊3面

483. 自我聲 發刊. 大阪조선청년들의 일문잡지로 금월중순에 발행 (發行日) 朝鮮日報1926.03.07/朝刊2面

493. 自我聲創刊押収. 대관동포에 의해 去二十日에 발간한 것을 (發行日) 朝鮮日報1926.03.27/朝刊2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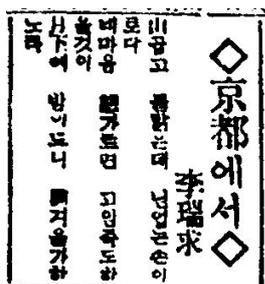
## 3. 京都의 文学関連記事内容 詳細

3-1. 『東亜日報』 5件

115. 1923. 9.2. 경도에서 主題語 (李瑞求)<sup>주8)</sup>  
 116. 1923. 9. 2. 李瑞求, 京都에서 主題語 (韓国文学, 時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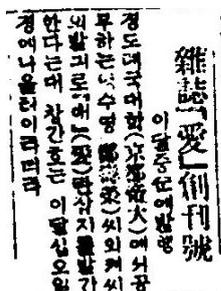
115, 116는 동일내용의 기사.

記事内容 : 京都에서 읊은 李瑞求의 時調一編이 실려 있음. 京都 산천의 아름다움을 달밤에 노래한 시조.



주8) 李瑞求 ; 1899~1982 °劇作家·演出家 °1920년, 『東亞日報』 창간과 더불어 기자생활. 1922년, 日本大学芸術科 중퇴. 1923년, 土月会同人으로 演劇運動 °1925년, 京城放送局演芸主任으로 있으면서 극작에 전념. 朝鮮演劇文化協會初代理事長 °1949년, 韓國舞台芸術院長. 한국전쟁 이후 라디오 드라마와 텔레비전 연속극을 발표. 新派悲劇과 歷史愛情劇을 다수 창작함.

愛 창간호. 경도제대의 鄭壽榮씨<sup>주9</sup> 등의 발기로 이달 중순에 발행. 主題語 (雜誌-愛)  
 기사내용 : 경도제국대학에서 공부하는 정수영씨 외 제씨의 발기로 愛라는 잡지를 발간하는데 창간호는 이달 15일경이라고 한다.



주9) 鄭壽榮 ;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한국문화사 연구문헌에서 동인지 『愛』와 鄭壽榮에 관한 내용은 밝혀낼 수 없었음.

234. 1926.10.4 『뮤즈』 (第3卷, 第1号) <sup>주10</sup> 京都아폴로社刊 主題語 (雜誌)

주10) 『뮤즈』 ; 현재까지 발표자의 조사로서는 미상.

519. 1931.7.2 最初の 理学博士, 京都帝大, 助手 李泰圭氏

524. 1931.10.23 理学博士李泰圭氏 京都帝大講師° 将来가 촉망되는 青年学者, 朝鮮人으로서는 嘴矢

718. 1935.6.2 全아시아 懸賞論文에 우리 학생이 삼등에 입선. 京都동지사의 李達実君 主題語 (論說論文懸賞募集當選發表) <sup>주11</sup>

주11) 현재까지 조사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996. 1940.6.9 京都와 一燈園 (旅想) 主題語 (朴勝極)

997. 1940.6.9 朴勝極 京都와 一燈園 主題語 (隨筆·雜文)

996. 997. 는 동일내용 기사. <sup>주12)</sup>

주12) 朴勝極 ; 1909년, 경기도 수원출생, 농가출신, 1928년 培材高校 수료후 日本大学 유학, 사상 문제로 퇴학처분을 받고 귀국, 수원을 주무대로 青年同盟, 農民組合, KAPF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신간회 등에서 활동, 해방후 수원군 인민위원회 부회장, 이후 월북하여 문화선전성문학예술부장 등을 역임, 실천운동가, 좌익정치운동가, 주요작품으로 『風塵』 (1935), 『白骨』 (1936) 등이 있음, 曹南鉉 「박승극의 실천, 비평소설」 (『韓國文化』 25) 등의 논문 참조.



기사의 내용은 박승극이 교토의 清水寺·東本願寺를 방문한 뒤 一燈園을 견학한 소감을 기술한 문장이다. 특히 一燈園 <sup>주13)</sup>의 懺悔와 無所有 奉仕生活 등의 원시공동체방식에 공감을 표하고 있는 내용이다.

주13) 一燈園은 1904년 (明治37) 에 西田天香에 의해 창시되었다. 현재 財団法人懺悔奉仕光泉林.

3-2. 『朝鮮日報』 4件

118. 잡지 『學潮』 創刊° 京都 우리학우회 기관지로 來 4月1日 발행. 金哲鎭, 郭鍾烈, 朴濟璨 三君은 발간사무를 띠고 입경할 터. 1926.03.28

129. 「學潮」 (창간호) <sup>주14)</sup> 경도유학생 중심의 학술잡지. 1926.07.13

주14) 「學潮」 ;

1926년(大正15) 6월 27일에 창간호를 발행하고 1927년(昭和2년) 제 2호를 마지막으로 발행정지됨. 그 이유는 제2호 <白金의 都市>편에 식민지 도시의 모습을 개탄하는 시와 세태비판적 감상문을 게재했기 때문. '치안방해'(1927년 7월 13일)로 검열에 걸림. 발행지는 京都市吉田帝大寄宿舎京都學友會. 學友會의 성격은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이들에게 강연활동을 벌이는 등 프로레타리아운동의 경향을 보임.

창간호와 제2호 <학우회 기사내용> <sup>주15)</sup>

1925년 5월부터 1926년 4월까지의 본회에 관한 주요사항.

- 一. 경도 재 조선인 노동총연맹에서 노동야학을 개설한 바 본회에서 강사파견.
- 一. 간사 선거를 행한 바 간사는 郭鍾烈, 金末奉, 金哲鎭, 李泰圭 외 12인.

一. 小樽高商軍教想定사건을 토의한 결과 교토, 오사카, 고베에 재류하는 우리 학우회 및 노동 각 단체와 연락하여 이에 대항하기로 함. 이에 11월 6일 이 사건에 대한 비판연설을 三條基督青年會館에서 개최.

「城大교수 三宅鹿之助를 중심으로 한 鮮內 적화공작사건 검거에 관한 건 (驚高特秘제2410호) 에 ‘우리학우회’ 기록이 보임.

「編輯餘滴」에는 발행초기에 경제적인 면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잡지발행이 이루어진 사정을 적고 있음. 양이나 수보다는 질을 취하며 가급적 선배, 회원들의 발표를 통해 아카데믹한 색채를 취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있음. 장르로는 시, 동요, 희극, 노동자문제, 경제, 생물, 정신의학, 사회과학 등 학문 전 분야에 걸쳐 있음.

주15) 주요 내용은 서울대학교도서관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한 「학조」의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창간호, 第2호 목차

卷頭言

氣質論 / 崔鉉培

經濟價値의一考察(未定稿) / 金哲鎭

女性解放運動의史的考察 / 鄭哲

生物學上으로본人類의將來 / 宋乙秀

東洋天文學의發達과占術의由來 / 文源柱

南唐李後主의詞 / 金九經

國家運動과社會運動 / 咸弼英

勞動苦의本質과그理想化 / 郭鍾烈

카페-프랑스 / 지용

살어진 마음의 흔적 / 제찬

短詩五章(舊稿) / 蘆風

바람의오-르케스트라外三篇 / 曹沃鉉

피리를불든날 / 公花

「마음의日記」에서 - 시조아홉首 / 지용

白金의都市 / 抱影

童謠 / 지용

노랑이꽃(童謠) / 金宗柱

喜劇「두데기詩人의幻滅」一幕 / 김수산

料理入 집의밤(一幕) / 柳仁卓

神經病患者(創作) / 로코코

或畫の話 / 山本宣治

唯物史觀と藝術 / 住谷悅治

學友會記事

學藝部重要事記

編輯餘滴

목차 중의 집필자

a) 崔鉉培는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제1세대 한국어연구자. 경남 울산출생,  
 b) 지용은 한국근대시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鄭芝溶 시인임. (동지사대학 영문과 졸업, 이화여자대학 교수 역임, 한국전쟁때 납북. 동지사대학 시절에 전위적인 모더니즘의 실험성을 보여 주는 「카페 프랑스」 발표. 이후 다수의 시를 창작함. 그의 시 대부분은 사물시(physical poetry)로서 감각적인 이미지와 토착어의 활용, 지성에 의한 감정의 절제 등이 나타나고 있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국현대시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도 있음.

그의 시 「이른 봄 아침」(1926년3월)이라는 시에 그의 하숙이 있었던 가모가와 주변의 쓸쓸한 풍경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앞에서 소개한 「카페 프랑스」에서도 교토의 변화가 四條通을 연상시키는 묘사들이 등장하고 있음. 그의 시 작품에는 일본체험 특히 교토 체험을 교토의 역사미(歴史美)나 문화 인식, 근대일본의 풍경으로서의 교토라는 공간에 대한 관심 등은 등장하지 않는다. 정지용은 실제 공간과 접촉한 체험보다는 내면 속에서 자신이 투사해 낸 조작적 체험을 시와 산문으로 만들어냈다. 이런 양상은 결론부분에서 언급하는 운동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자각과 고뇌가 전면에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함. <sup>주16)</sup>

주16) 『청춘의 감각, 조국의 사상』, 金允植, 솔, 1999년  
 『문학지리 한국인의 심상공간 국외편』, 심경호, 2005. 논형

c) 或画の話 / 山本宣治, 唯物史觀と芸術 / 住谷悦治 등 일본인투고자의 이름도 보임.

d) 간사 중의 한사람인 李泰圭 한국을 대표하는 화학자.

충남 예산 출생. 1924년 広島高等師範学校 졸업후 京都大学化学科 졸업. 1931년에 京都大学 이학박사. 京都大学教授. 1945년에 귀국해 서울대교수. 1948년 미국 유타대교수. 만년에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후진양성. 1955년에 노벨상후보 대상이 된 「粘性理論」으로 유명. 1992년 사거. <sup>주17)</sup>

주17) 東亜日報에도 李泰圭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음.

519. 1931.7.2 最初の 理学博士, 경도제대. 조수 李泰圭氏  
 524. 1931.10.23 理学博士 李泰圭氏 京都帝大講師. 장래 촉망받는 청년학자. 조선인으로서  
 는 호시.

293. 獄中にて歌える歌集° 太田遼一郎 齋藤英三集 京都共生閣発行 1930.03.17 <sup>주18)</sup>

新刊紹介	
◆新人間 (三月號) 一部 十六錢 發行所 京都府 八木町 八八 問屋 京都府 八木町 一四三 一冊 定價 三錢 大冊 定價 五錢 發行所 京都府 河原町 九六 上 京都府 其生園 振替 大八 一五九三	◆少年世界 (三月號) 一部 五錢 發行所 京都府 上 寺 九八 少年世界社 京都府 一八〇五 等 定價 (三月號) 一部 參錢 發行所 京都府 錦路 二 九 朝 祥 英 野 政 青 年 會 聯 合 會 青 年 雜 誌 社 振 替 京 城 一 〇 三 八
◆國民法律 (三月號) 定價 十五錢 發行所 東京市 芝 區 三 木 復 一 ノ 四 七 振 替 東 京 一 六 七 六 六 年 後 月 宇 甫 星 著 定 價 六 十 錢 發行所 東京市 小 石 川 區 四 九 町 二 八 大 東 社 出 版 部	

주18) 太田遼一郎은 昭和時代의 사회운동가. 明治38년 출생. 京都帝大에서 공부하고 労働·農民運動에 참여. 昭和3년에 공산당에 입당한 후 三·一五사건으로 검거됨. 전후, 일본 農林省農業総合研究所九州支所長, 熊本商大教授 등을 역임. 日本近代文學大事典(일본근대문학관편 전6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인물임. 日本人名大辞典』(講談社)

이상의 京都關連文化 (文學) 기사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지식인의 상당수는 사회주의계열의 사상을 지닌 유학생들이고 그들과 교류한 교토의 일본지식인들의 기사도 다수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複數分類의 內容

新聞社		東亞日報 (全體 621件) (年度: 1920.5 .13~1940. 7.09)	朝鮮日報 (全體 470件) (年度: 1920.8.07~1940.7.15)		
分類(複數)					
政治/文化 約 9.2%	政治/社會動靜 政治/社會問題 獨立運動/社會動靜 思想/教育 等	57 (約 44.1%)	政治/文化 約 11.7%	政治/社會動靜 政治/社會問題 獨立運動/社會動靜 思想/教育 等	55 (約 42.3%)
事件/文化 約 3.5%	逮捕/教育 天災/社會動靜 逮捕/社會問題 等	22 (約 17.1%)	事件/文化 約 4.5%	逮捕/教育 天災/社會動靜 逮捕/社會問題 等	21 (約 16.2%)
事件/政治 約 3.5%	商業/社會動靜 労働/社會動靜 労働/教育 等	22 (約 17.1%)	事件/政治 約 4.3%	商業/社會動靜 労働/社會動靜 労働/教育 等	20 (約 15.4%)
經濟/文化 約 2.1%	人身事故/政府 逮捕/思想 逮捕/獨立運動 等	13 (約 10.1%)	經濟/文化 約 4%	人身事故/政府 逮捕/思想 逮捕/獨立運動 等	19 (約 14.6%)
政治/經濟 約 0.8%	政府/労働 政府/商業 思想/労働 等	5 (約 3.9%)	事件/政治/ 文化 約 1.7%	逮捕/思想/教育 等	8 (約 6.2%)
事件/政治/ 文化 約 0.8%	逮捕/思想/教育 等	5 (約 3.9%)	政治/經濟 約 0.9%	政府/労働 政府/商業 思想/労働 等	4 (約 3.2%)
政治/經濟/ 文化 約 0.5%	政治/商業/社會問題 等	3 (約 2.2%)	政治/經濟/ 文化 約 0.2%	政治/商業/社會問題 等	1 (約 0.7%)
事件/經濟 約 0.3%	逮捕/労働 等	2 (約 1.6%)	事件/經濟 約 0.2%	逮捕/労働 等	1 (約 0.7%)
事件/經濟/ 文化 0%	労働/教育/社會問題 等	0 (計 100%)	事件/經濟/ 文化 約 0.2%	労働/教育/社會問題 等	1 (約 0.7%) (計 100%)
計 129/621		約 20.7%	計 130/470		約 27.7%

이상, 일별해보면 『東亞日報』 『朝鮮日報』의 政治/文化 등 10 領域에서 獨立運動, 勞働運動, 思想問題, 社會動靜 등, 京都大學, 京都의 知識人, 日本人勞働者와의 連帶 등이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음.

## IV 정리

1. 앞 II. 동아, 조선 기사(東京, 大阪, 京都)의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및 분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단순분류(4영역), 복수분류(10영역)를 종합한 통계에서 京都는 文化領域의 구성비율이 61.1%(오사카 42.5%, 동경 26.6%)로 나타나고 있다.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교토의 정체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예측가능했던 수치라고도 볼 수 있으나, 식민지 조선의 현실 안에서 발행되는 신문 보도 내용 안에서 교토의 문화영역의 기사수치가 동경, 대판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은 주목할만 하다.

2. 京都에 관한 문화영역 기사의 내용은,

단순분류의 경우 교육, 스포츠, 종교, 예능, 문학 관련 기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복수분류의 경우 독립운동, 노동운동, 사상문제, 사회동정 등에 관한 기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이 기사내용의 대부분은 교토대학교와 교토대학교수 관련 기사, 교토의 일본 지식인과 조선 유학생 기사, 사회주의운동, 노동운동 관련 기사 등임.

3. 특히 경도제대 기사 내용을 보면,

동아 총 기사건수 621건 중 86건

조선 총 기사건수 470건 중 50건으로

경도 전체 기사 중에 상당한 비중(12.4%)을 차지하고 있음.

경도제대 총장이나 교수들의 한국방문 혹은 총독부와의 관련기사. 경도제대 한국 유학생들의 활동, 사상문제와 관련된 사건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29. 1921.4.1 정무총감 경도대학교수 문학박사 原勝郎씨를 주빈으로 만찬회.

208. 1925. 12.3. 경도제대생 40명을 구인, 증거서류 백여책 압수. 모 비밀결사음모사건으로 경도 검사국 활동.

313. 1928. 4.18. 경도제국대학 法, 經 양부 임시 휴학발표. 당국에도 강경. 河上 肇사표.

580. 1933. 5.7. 경도제대 三교수에 명예교수 칭호 ; 新城新藏, 松本均, 青柳營司

582. 1933. 5.16 경도제대 瀧川幸辰교수문제 교수회성명.

경도제대 관련 기사의 상당 부분에서 나타나는 경향은 경도제국대학으로 상징되는 일본지성의 세계와 제국일본체제와의 갈등에 관한 관심표명. 특히 식민지 현실과 관련해 경제, 노동, 휴머니즘, 민족해방, 사회주의 등 사상의 문제 등에 대한 관심과 심정적 동의감의 표출.

한국 신문(지식인)들의 경도라는 지식사회 공간에 대한 관심의一端을 파악할 수 있음.

4. 경도의 문학관련 기사(동아 7건, 조선 4건) 중에 등장하는 한일 양국의 문인(지식인)은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 ; 李瑞求(극작가), 鄭壽榮(미상, 잡지 愛), 李達實(미상), 朴勝極(작가)

조선일보 ; 잡지 「學潮」 관련 다수의 문인과 지식인(鄭芝溶, 山本宣治, 李泰圭 등)

太田遼一郎, 齊藤英三, 池ノ内三雄 등

유학생 중에는 한국근대문학사나 기타 분야에 이름을 남기고 있는 한국지식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정수영, 이달실 등에 관해서는 발표자의 조사로는 밝힐 수가 없었음.

특히 잡지 「學潮」 관련 지식인들 중에는 앞에서 언급한 최현배, 정지용 등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나 나머지 인물들에 관해서는 밝혀진 것이 별로 없음. 그간 한국 근대문학전공자들에 의해 일본에서 유학했던 작가들에 관한 연구가 상당부분 이루어졌으나 주로 동경 지역(동경대학, 동경교육대학, 와세다대학 등) 대학의 유학생들이고 경도유학생들에 관한 연구는 윤동주, 정지용 등 극히 소수에 불과함.

상기 「學潮」의 투고자 목록에 山本宣治, 住谷悅治 등의 이름이 보이고 있는데, 교토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던 한국인 유학생들과 이들 일본지식인들과의 지적 교류 상황 또한 밝혀진 바 없는데 이에 관한 조사도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임.

太田遼一郎, 齊藤英三, 池ノ内三雄 등 3인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는 조선일보가 1920년대 이후 민족주의적이고 중도좌익적인 기자들이 많았던 사실과는 무관하지 않아 보임. 교토 지식인 사회의 지적 풍토와 한국인 유학생들과의 관련양상이라는 주제도 흥미로운 과제라고 판단됨.

5. 양 신문의 역사, 문학 등의 문화기사에 관한 조사를 확대하면 식민지기 반일, 친일의 문제에 관한 새로운 자료와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반일과 친일의 이분법적 시각을 벗어나 중간지역에 존재하는 경도유학 한국지식인들의 경도와의 만남을 추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동아. 157. 1924. 8.1. 이완용의 손자 李丙喜, 부랑소년들과 짝지어 돌아다니다가 경도에서 경찰범 처벌령으로 입건했으나 조부의 덕으로 특별히 방면. 조부의 신용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세상에 소문이 나지 않도록 감독자를 보내 달라고 교섭.

범람하는 제국수도 동경의 기사와 비교해 경도관련 보도기사의 상당 부분에서 식민지 현실과 관련해 경제, 노동, 휴머니즘, 민족해방, 사회주의 등 사상의 문제 등에 대한 관심과 심정적 동의감의 표출. (경도제국대학 관련 기사와 유사성을 지님)

6. 윤동주<sup>주19)</sup>와 교토, 식민지기 일본유학생

주19) 1917년 만주 간도에서 출생. 기독교 집안. 1934년 18세대 3편의 시를 창작(삶과 죽음 등 3편)함. 193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콩트〈순가락〉이 당선됨. 이후 각종 신문과 잡지 등에 시 작품을 투고함. 1938년 연희전문 입학.

1941년 연희전문을 졸업하고 일본유학을 위해 히라누마(平沼)라고 창씨개명함. 1942년 4월 릿쿄대학 영문과 입학한 후, 10월 동지사대학 영문학과 입학. 경도시 左京區田中高原町 27 武田아파트에서 하숙생활을 함. 1943년 7월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됨. 1944년 28세 치안유지법 제5조 위반(독립운동죄)으로 징역 2년의 언도를 받음. 1945년 2월 29세 옥중에서 사망.

참고) 운동주자필 詩稿전집 운동주 연보 1999년 민음사

이상은 식민지기 대표적 저항시인 운동주의 짧았고 치열했던 삶의 궤적이다.

1942년에 동지사대학에 입학했고 1943년에 독립운동죄로 체포된 운동주의 기사는 동아, 조선 양 신문이 이미 1940년에 강제폐간되어서 찾아볼 수 없음. 앞의 정지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운동주의 시 세계에는 빼앗긴 조국에 관한 상념, 식민지 현실 안에서 고뇌하고 있는 시인의 서정적 자아가 표출이 중심기조를 이루고 있고 경도의 역사미와 근대일본의 풍경을 관조하고 정서적 여유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것이다. 민족을 대변하는 저항시인으로서의 운동주의 시는 이미 연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 자체로 위대한 예술작품이지만 운동주, 정지용과 같은 불과 몇 명의 문인들의 작품만으로 이 시대를 다 설명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반일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 시각만으로는 당시 지식인들의 삶의 궤적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뛰어난 저항시인들에 관한 연구의 다음 단계로, 앞 신문 자료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유학생들 즉, 식민지기 교토라는 역사문화적 공간 안에서 교토의 대학사회, 지식인사회와 교류하면서 민족, 독립, 저항, 차별구조, 식민지현실 등과 같은 시대상황을 당면의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내면화 시키면서 유학생들을 보냈던 보통 지식인들의 작품과 삶에 관한 자료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는 동경유학생들이 중심이었던 식민지기 일본유학생들에 관한 연구의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교토와 일본의 근대문학, 근대문화〉라는 주제 안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또한 식민지기 한국지식인들의 삶의 방식을 구분하는 〈반일과 친일의 논리〉, 〈친일 문학 논쟁〉 등과 같은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의 영역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식민지기 한국 지식인들의 삶의 공간에 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식민지기 20여년간의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경도관련 기사를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의 성과의 一端임.

## 지정토론

김 유 천(상명대)

1. 본 발표에서는 『東亞日報』 『朝鮮日報』의 京都帝大 관련 기사가 京都 전체 기사 중 상당한 비중(12.4%)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경향이 京都帝大로 상징되는 일본지성의 세계와 제국일본체제와의 갈등에 관한 관심표명, 특히 식민지 현실과 관련한 사상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심정적 동의감이 표출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관해 당시 한국(또는 양 新聞)에서의 ‘京都帝大’ 觀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2. 본 발표에서는 『朝鮮日報』에 게재된 『學潮』에 관한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교토에서의 한국인 유학생들과 일본지식인들과의 지적 교류 상황에 대한 규명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현시점에서의 생각을 듣고 싶다.
3. 방대한 자료 데이터베이스의 앞으로의 구축 및 활용 계획은 어떠한가? 관련 연구 분야에서의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이용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고 싶다.



## 종합토론

사회 - 최 광 준(신라대 교수)

지정토론 - 김현정, 조규현, 宮前耕史, 진필수, 松本眞輔,  
이시준, 류정선, 김경희, 정 형, 김유천